

2012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내면 탐구로서의 소설 창작 방법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정용준

내면 탐구로서의 소설 창작 방법

A Study on the Method of Writing Fiction as a
Search of Inner Psyche

2012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정용준

내면 탐구로서의 소설 창작 방법

지도교수 이 승 우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정 용 준

정용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수남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나희덕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승우 (인)

2011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1. 서 론	1
1.1. 연구 목적 및 방법	1
2. 창작 의식과 작품 개관	4
2.1. 소설의 정신과 서사	4
2.2. 소설 위기의 양상	9
2.3. 작품을 통한 내면 탐구	14
3. 창작 방법론과 서사구조	22
3.1. 망각된 존재들의 숨어있는 서사	22
3.2. 행위와 내면 사이	35
3.3. 내면의 목소리와 그 표현	40
4. 창작의 실제	45
4.1. 「굿나잇,오블로」	45
4.2. 「벽」	66
4.3 「가나」	92
4.4 「떠떠떠,떠」	110
5. 결론	136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Writing Fiction as a Search of Inner Psyche

Jung Yong Jun

Advisor: Prof. Lee, Seung-U PH.D.

Department of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theory of novel writing is defined by the writers. There are several reasons that writers express their theory of creative writing even when there may exist certain arguments when the writer discusses his or her own motives of creative writing and ways of expression on their pieces of work. Creative writing is by nature followed by creative work and literature studies simultaneously. The writer should decide what to be between a student to study creative writing or a creator to write one's own novel. The ultimate goal of this field of study is to create literary works. The ultimate difference between studying Korean literature and creative writing can be found right here. In other words, both study on literature and consideration on novel should be ultimately useful

for one's own creative writing. In addition, the status and significance of the novel in the contemporary literature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history of novel, with a variety of works to be compared and analys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ignificance of novel that the writer wants to write.

Methods and formats that are different from ways of studying on novels that approach Korean literature as well as other fields of humanities are necessary. There, of course, exist some challenges in otherizing one's own writing works and using them in study while retaining objectivity. Nevertheless, studying and in-depth consideration of writer's own works can serve as a positive role in bringing an appropriate motivation and establishing the novelistic value. This may also establish a new approach to creative writing,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of literature.

In the Chapter 2, the roles and significance of the novel in exploring human being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chapter expresses that the exploration of human beings is to search for the overall existence along with the inner world of the humans, not focused on their primary action and events. In this chapter, the course of novels in exploring humans will be retraced by looking into the cases of Proust, James Joyce, and Kafka. In addition, looking into 4 pieces of the creative novel the writer of this paper wrote that include "Good night, Oblo", "Wall", "Stuttering", and "Ghana", how the characters are managing the characters' worlds and

situations given in those books ar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e creative consciousness and ways of expression are viewed.

In the Chapter 3, the inner behavior and problems of humans identified in the books are dealt with thoroughly. In the book called "Hidden Epics of forgotten beings" the status and structures of today's society that exhibits the strong power of materials and capital, the reality of humans that fell so low as to become the forgotten being while losing their own independent thinking is studied. Even when science, technology and even philosophy cannot deal with humans in reality, novel can use humans as one independent being as a subject matter, focus on his or her world of life, and listen to the inner voices. Such effects of the novel and a verity of its structural possibilities are examined. Through the characters appearing in the books "Good night, Oblo" and "Wall", the inner world of the forgotten beings and their epics are studied. Even by disclosing the fact of being forgotten, forgottenness can be revealed outwardly, through which problems are raised and the structures of the world are considered where they are meant to be forgotten and the narratives and alienation of an individual that are eaten away in such a world. In the book called "Between behavior and inner side", certain gap identified in the inner side of an individual where an agent and his or her intention is working is explored by looking into the behavior that tells the primary intention of the agent. Humans reveal themselves by how they act, while this chapter points out that the intention and behavior do not correspond, calling it into question that the reality does not allow the person to act by their intention and inner desires. In the book "Stuttering", the world of violence and

suppression is explored, the world that does not allow an individual to have independence to make their own decision even though they are the agent of the action. In order to do that, the behavior and distorted epics of the individuals are examined who are isolated and suppressed by the world surrounding the characters. In the book "inner voice and arts of expression", epics inside of the individual that moves independently from the behavior and look into such differences. Through the characters in the book "Ghana", the inner side of a human that works actively even in the situations that the behavior is stand-still or binding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ther words, an significant awareness on human beings plus a new world acquired when the inner side and psychological part of humans began to focus on are examined.

In the Chapter 4, four pieces of works that were dealt with in this paper written by the writer of this paper including "Good night, Oblo", "Wall", "Stuttering", and "Ghana" are attached.

In the conclusion, the paper contents are summarized and the creative writing theory and problems are recalled in the paper.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소설 창작에 대한 의견을 창작자의 관점에서 논한다.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창작 동기와 표현 방식에 대해 논하는 모종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창작론을 피력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문예창작학이라는 학문은 그 특성상 창작 작업과 문학 연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문예창작학을 공부하는 문학과와 자신의 소설을 창작해야 하는 창작자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본 학문의 최종적인 목적은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다. 국문학과 창작학의 궁극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 즉, 문학에 대한 연구와 소설에 대한 고민 모두 자신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대 문학에서 소설이 갖고 있는 위상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소설에 대한 역사와 다양한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자신이 창작하려는 소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문학을 비롯한 타 인문학 분야에서 접근하는 소설에 대한 연구와는 다른 방식과 형식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자신의 작품을 타자화 시키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거리두기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소설을 창작하는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연구하고 깊이 고찰함으로써 창작의 방법을 고민하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동기 유발과 함께 소설적 가치에 대해 확립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 및 방법을 밝힌다.

2장에서는 소설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에 대해 살펴본다. 매스미디어와 영상매체로 인한 소설의 위기를 지적
하고 소설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한다.
또한 인간을 탐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1차적 행동과 사건에 집중한다는
것이 아닌 인간의 내면세계를 비롯한 총체적인 실존을 탐구하는 것이라
는 것에 대해 피력한다. 프루스트와 제임스 조이스 그리고 카프카의 경
우를 살펴보며 인간을 탐구하는 소설의 발자취를 되짚는다. 필자가 창
작한 4편의 소설 「굿나잇,오블로」 「벽」 「떠떠떠,떠」 「가나」를 통해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 세계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창작의식과 표현방식에 대해 개관한다.

3장에서는 작품을 통해 심층적으로 인간의 내면과 행위의 문제를 다
룬다. 먼저 <망각된 존재들의 숨겨진 서사>에서는 물질과 자본이 강력
한 힘을 내고 있는 현대사회가 갖는 상황과 구조를 살펴봄으로 그 속
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주체성을 상실한 채 망각된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실존을 연구한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철학도 인간을 다루지 못하는 현
실 속에서 인간을 하나의 주체로 삼고 그의 삶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고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설의 효과와 다양한 형식적 가능
성을 연구한다. 「굿나잇,오블로」와 「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망
각된 존재들이 갖고 있는 내면 세계와 기억의 서사를 살펴본다. 망각되었
다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망각의 바깥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문제 삼고 그들이 망각될 수밖에 없는 세계의 구조

와 그 속에 잠식당한 개인의 서사와 소외를 살펴본다. 또한 <행위와 내면 사이>에서는 행위자의 일차적 의도를 알 수 있는 행위를 살펴봄으로 행위와 행위자의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내면 사이의 틈을 탐구해본다. 인간은 행동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 모습이 전혀 그를 닮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의도와 내면의 욕망대로 행동할 수 없는 현실을 문제 삼는다. 「떠떠떠떠」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과 인물을 둘러싼 세계 속에서 고립되고 억압받는 개인의 행위와 왜곡된 서사를 살펴봄으로 행위의 주체는 행위의 당사자이지만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개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폭력과 억압의 세계를 조명해본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와 표현방식>에서는 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면의 서사를 살펴보고 그 독립적인 차이를 살펴본다. 「가나」의 인물을 통해 인간의 행위가 정지되거나 구속된 상황 속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내면을 탐구한다. 소설이 인간의 내면과 심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얻게 된 인간에 대한 놀라운 인식과 새로운 세계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창작자의 작품 「굿나잇,오블로」 「백」 「가나」 「떠떠떠떠」의 본문을 첨부한다.

결론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창작론의 의미와 문제의식을 재확인한다.

2. 작품 개관과 창작의식

2.1. 소설의 정신과 서사

소설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¹⁾다. 소설의 영원한 주제는 인간이다. 방식과 양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설은 언제나 ‘인간에 관한’ 언어예술이다. 소설은 인간탐구의 한 양식이며 가장 총체적인 방법 중 하나이고 소설의 역사는 인간 탐구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소설이 인간을 탐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예술과 학문들이 인간을 탐구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역사가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소설은 실재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을 탐색하는 것이다.²⁾ 그것은 인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즉 소설이 갖고 있는 허구성은 인간의 실제 사건과는 다르지만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소설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각기 다른 실존의 다양함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소설은 근대의 시초부터 줄곧, 그리고 충실히 인간을 따라다니며 나름의 방식과 고유한 논리에 따라 존재의 상이한 면모들을 찾아냈다.³⁾ 소설은 인간 정신을 표현하는 한 형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설의 기원을 따진

1)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1994, 187p.

2) 밀란 쿤데라는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이 범죄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인간 실존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의 영역인 것이다.
(출처-밀란쿤데라, 『소설의 기술』, 민음사)

3) 밀란 쿤데라, 『소설의 기술』, 권오룡 옮김, 민음사, 2008, 14p.

다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⁴⁾ 그것은 소설이 갖고 있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장르적 성향 때문에 그렇다. 시나 철학은 소설을 포용할 수 없지만 소설은 시나 철학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소설의 정체성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는다.⁵⁾ 다른 장르들을 수용하고 철학적, 과학적 지식을 흡수하는 경향이 바로 소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서두에 저명한 이론가들의 소설의 정의가 아닌 창작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내세운 것은 이 연구를 관통하는 두 가지의 큰 특징과 맥이 닿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첫째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소설 관점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소설의 영원한 주제는 인간이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다. 창작자의 입장에서 소설을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을 연구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소설이 인간을 연구한다는 것은 피상적인 인간의 외부행동이나 서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서사는 영화에도 연극에도 TV 드라마나 만화에도 있다.⁶⁾ 소설이 인간에 대한 서사를 갖는다는 것은 외부적 행위 뿐만 아니라 내면과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정신은 외면적인 감각적 인지라는 차원과는 달리 내면적인 요구와 관계되는 차원이다.⁷⁾ 행위와 행동은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1차적 신호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행위의 문제는 그 행위를 유발하고 자극하게 만든 내면적 요구와 정신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는 항상 큰소리로 말하지는 않는다. 또 우리는 가장 주요한 일

4) 김현,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 지성사, 151p.

5) 앞의 책, 98p.

6) 김형중, 『단 한권의 책』, 문학과지성사, 2008, 307p.

7) 김주연, 『문학과 정신의 힘』, 문학과지성사, 1990, 147p.

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 이를테면 우리의 고백을 가장 충실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에게까지도 털어놓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행위와 표현만으로 인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때로는 잘못 해석되기도 한다. 인간은 사고한대로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고 마음먹은 대로 어떤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때론 정신과 의지와 정반대로 행동이 달라지기도 한다. 소설은 내면이라는 무형의 공간을 탐구할 수 있고 정신과 사고라는 침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소설은 행위와 사건, 그리고 행위자의 내면과 사건 이면에 숨은 의도와 감추어진 진실까지 탐구한다. 이러한 내면적이고 복잡한 정신이 바로 소설의 정신이다. 소설은 덮이 되어 버린 세계 속에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인간과 세계는 마치 달팽이와 달팽이 껍질의 관계처럼 결속되어 있다. 세계는 인간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것은 인간의 크기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변함에 따라 실존도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소설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규정된 삶의 양식과 익숙한 이야기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한다. 세계를 애매성으로 이해하고 유일한 절대 진리가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상대적 진실(가공의 자아를 구현해 내는 진실)들의 더미와 맞서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소설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살피게 하고 ‘존재의 망각’으로부터 그것을 지켜준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탐구란 무엇인가. 또 소설이 인간에 대해 탐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역사와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밀란쿤데라는 『소설의 기술』에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작가로 제임스 조이스와 프루스트 그리고 카프카를 예로 들고 있다.)¹⁰⁾ 프루스트는

8) 발터벤야민,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옮김, 민음사, 1992, 107p.

9) 앞의 책, 16p.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시간의 퇴화에 의해 무상하게 변동되어 가는 사물과 인간의 허무함을 담았고 특히 인간무의식에 저장된 기억과 감정의 편린들은 위대한 예술에 의해 다시 지각되어질 수 있음을 표현했다. 그는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과 혁신적인 수법으로 제목처럼 인간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다. 또한 초월적으로 서술하는 자아와 몽롱하고 둔감한 가운데서 체험하는 자아를 등장시켜 비밀스러운 일인이역극을 만들어냄으로 자아에 대한 인식을 극대화시켰다.¹¹⁾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초월해있다.¹²⁾ 그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소설의 형식을 바꾸었고 소설의 여러 가지 기본 원칙들을 변화시켰다. 순간의 일회성의 연속인 삶의 본질을 생생한 기억 속에서 찾고자 애쓰는 프루스트의 탐구는 무의식적인 기억의 환기와 감각의 교란을 통한 방법으로 인간의 심리와 내면속에 깃든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섬세하고 감성적이며 미묘한 ‘현미경적’이면서 ‘망원경적’인 묘사는 인간 심리의 심층을 기억을 통해 탁월하게 탐색했다. 프루스트는 소설 속에서 ‘표면적인 자아’와 깊숙이 숨어 있는 ‘심연의 자아’를 구별하고 심연의 자아의 근원적인 문제와 비극적인 인간 조건을 파

10) 밀란쿤데라는 『소설의 기술』에서 이들의 소설들은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와 감정의 은밀한 삶을 검토했다. 플로베르가 미지의 세계였던 일상의 지평을 탐사했다면 프루스트는 붙잡을 수 없는 과거의 순간에 대해 탐사했다고 말했다.

11) 프란츠 슈탄첼, 『소설형식의 기본유형』, 탐구당, 64p.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일인칭소설이 지니고 있는 서술과 체험의 도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실험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는 프루스트의 이 연작 소설 전체를 관류하고 있는 숨겨진 구성원리를 <회상하는 자아와 회상의 대상이 되는 자아의 일인이역극>에서 찾고 있다. 그 이전에 이미 레오 슈피체가 프루스트에 관한 그의 여러 논문들에서 일인칭인물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이 양극성을 가리켜 <초월적으로 서술하는 자아와 몽롱하고 둔감한 가운데서 체험하는 자아, 이 두 자아의 비밀스러운 일인이역극>이라고 지칭했다.

12) 제랄드 프랭스,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00p.
 시간적 선후를 확정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은 마들렌’의 삽화.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게 옳다.

해쳤다. 자아를 포착한다는 것은 실존의 본질적 문제를 포착한다는 의
 미다. 프루스트는 이러한 소설적 시도로 인해 인간의 행위와 모종의 사
 건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내면세계와 심리의 신비를 밝혀냈다. 또한 제
 임스 조이스는 『율리시스』를 통해 붙잡을 수 없는 현재의 시간에 대해
 탐구 했다. 이 작품은 내적 독백이 작품 전체를 일관한다. 그것은 구성
 의 바탕이고 지배적인 방식인 것이다. 표면적인 서사는 인물의 하루 동
 안 겪은 사소한 일들에 불과하지만 그 인물의 의식의 흐름과 심리의 복
 잡함은 인간의 내면세계와 심리의 층위를 행위와 시간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확장시켰다. 조이스의 이러한 소설 쓰기는 한 명의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크고 복잡한 구조와 신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리면서 동시에 설명했다. 프란츠 카프카는 소설 속에서 프루스트와
 조이스와는 다른 방식의 내면적 생각을 담아냈다. 인물의 내면적 생각
 이 인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압도적이고 피할 수 없는 모종의 상
 황에 휩쓸려 있는 것이다. 카프카는 인간의 행위를 결정짓는 내적 동기
 가 어떤 것이냐를 묻는 게 아니다. 그가 제기하는 물음은 전적으로 다
 른 것이다. 그의 물음은, 내면적 동기가 더 이상 아무런 무게도 지니지
 못하게 될 만큼 외부적 결정이 압도적인 것이 되어버린 세계에서 아직
 인간에게 남아 있는 가능성이란 어떤 것이냐는 것이다. 카프카적인 세
 계는 이미 알려진 어떤 현실과도 비슷하지 않다. 그것은 인간적 세계의
 ‘극단적인, 그러나 현실화 되지 않은 가능성’이다. 카프카의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 미로’의 성격을 가진 권력과 대결하고 있다. 그들은 이 세
 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 카프카적인 것이란
 차라리 인간과 세계의 원초적인 가능성, 역사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
 지만 인간을 영원히 따라다닐 수 있는 가능성의 표현처럼 느껴진다. 이

렇듯 소설이 인간을 탐구하는 방식은 인간의 행위와 사건의 탐구보다 인간의 자아와 심리 그리고 상황 속에 놓인 인간의 내면세계의 탐구로 인해 보다 탁월하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발전했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많은 형식상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필자는 이 시대에 소설이 당면한 모종의 위기와 또 그로 인해 변질되어가고 있는 인간의 내면 탐구라는 포기할 수 없는 소설의 정신을 계승하는 소설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과 의식으로서 인간에 대한 탐구의 유의미함을 연구하고 인간 내면세계에 대한 새롭고 적극적인 표현방식의 개발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할 것이다. 필자의 창작품을 예시로 들어 외부적 세계와 인간의 내면적 세계의 분리와 그로 인한 폭력과 망각에 대해 지적하고 망각된 존재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그 표현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2. 소설의 위기와 최근의 소설

가라타니 고진이 근대문학의 종언¹³⁾을 선언했고 밀란쿤데라는 소설의 죽음¹⁴⁾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학의 종언과 소설의 죽

13) 가라타니 고진은 『근대문학의 종언』에서 근대 문학의 종언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는 근대문학 이후 예를 들어 포스트모던 문학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또 문학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학이 근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고, 그 때문에 특별한 중요성, 특별한 가치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소리 높여 말하고 다닐 사항은 아닙니다. 단적인 사실입니다.”

14) 밀란쿤데라는 『소설의 기술』에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수백 수천 종의 소설이 쇠를 거듭하여 간행되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이 소설들은 더 이상 존재의 정복을 추구해가지 않는다고 했다. 실존의 어떤 새로운 면모도 찾아내지 않는다. 단지 이미 이야기되어 있는 것들만을 확인해 줄 따름이라고 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발견해 내지 않기 때문에 소설의 역사라고 부른 ‘발견의 계승’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음은 소설이라는 언어예술 장르의 소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설은 눈부신 발전과 진보를 이루어냈다. 물리적인 형식과 표현양식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깊이와 다양함까지 갖추면서 소설은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이 강한 문학예술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작가 한명 한명의 모방할 수 없는 상상력은 작가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설양식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소설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죽음을 선고하고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현상에 대해 밀란쿤데라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세계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작품의 의미까지 축소하는 흰개미는 소설마저 갉아먹고 있다. (모든 문화와 마찬가지로) 소설 역시 점점 더 매스미디어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다. 지구의 역사를 통합하는 작업의 하수인인 매스미디어는 축소 작업을 강화하고 매개한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인류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하고 상투적인 똑같은 내용들을 전 세계에 퍼뜨린다. 그것들이 가진 서로 다른 기관지들이 상이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표면적 상이함의 이면에는 동일한 정신이 군림하고 있다. 이것은 우익에서 좌익까지 널려 있는 《타임》이나 《슈피겔》 같은 미국이나 유럽의 시사 주간지들을 훑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것들은 모두 삶에 대해 한결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비전은 그 잡지들의 목차, 똑같은 기사, 똑같은 형태, 똑같은 어휘와 똑같은 문체,

똑같은 예술적 취향을 통해, 그리고 중요한 것과 시시한 것을 가리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 반영된다. 매스미디어가 정치적 다양성의 이면에 똑같이 감추고 있는 정신, 그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다.¹⁵⁾

매스미디어가 정치적 다양성의 이면에 똑같이 감추고 있는 정신이 바로 소설의 정신과 대치한다. 엘빈 캐넌은 “서적문학에서 전자문화로의 전환은 기존 문학 형식의 종말을 가져올 것”¹⁶⁾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드로는 “인쇄 문화의 최전성기가 시작되었을 때, 책의 과잉으로 그것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¹⁷⁾ 다시 말해서 과잉 생산과 풍요의 사회에서 문학의 종말은 문학책의 빈곤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생산의 방식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김병익은 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위기의 현상을 암울하게 진단하고 전망하는 비관적인 발언을 했다.

인류의 문화유산 중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컸던 문학의 지위는 이제 영화나 게임에 그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 작가 스스로도 시장의 인기에 맞추어 창작이 아니라 상품으로 제작하는 것이며 그렇게 생산된 문학 작품은 다른 소비상품처럼 일회용 소모품으로 변질되어 한 번 읽히고는 버려질 것이다. [.] 이렇게 비관적인 전

15) 앞의 책, 33p.

16) 엘빈 캐넌, 『문학의 죽음』, 최인자 옮김, 문학동네, 1999. 197p.

17) 앞의 책, 191p.

망으로 문학의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늘날의 문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암울한 진단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¹⁸⁾

문학의 위기는 빈곤의 외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풍요로운 양적 팽창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분명하다.¹⁹⁾ 이 시대에 소설이라고 분류되는 장르는 내러티브와 오락용 텍스트로 전락했다. 심지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예술의 소스로 활용되는 상황에 빠졌다. 인간의 실존과 세계의 이면을 탐구하고 조명했던 소설의 정신은 단순한 이야기와 피상적인 행위를 추적하고 보여주는 매체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정신은 소설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소설의 정신은 복잡함의 정신이다.²⁰⁾ 이러한 소설의 정신은 영상문화가 정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냄으로 영상문화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 소설은 본래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활자문화와 영상문화의 차이를 프루스트나 카프카의 소설과 그것을 영화화한 것과의 차이로 이해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어느 뛰어난 감독이 아무리 복잡하고 섬세한 이미지들로 구성된 영화로 만들더라도, 과연 정교하면서도 미로와 같은 긴 문장을 통해 사랑, 죽음, 예술 등 인간의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정밀하게 분석한 프루스트의 글이 갖는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 또한 영화의 작업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카프카의 『성』과 『소송』에서처럼, 인간의 욕

18) 김병익, 『21세기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1, 106p.

19) 오생근, 『위기와 희망』, 문학과지성사, 2011, 77p.

20) 앞의 책, 33p.

망과 실존의 문제를 극단적인 언어의 실험으로 파헤치는 일이 이 시대에 가능할 수 있을까?²¹⁾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창작자 스스로도 영화매체를 극복할 수 있는 소설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설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 김형중은 이렇게 지적했다.

영화와 구별되는 문학만의 매질 그것을 통해 영화와 대결하려는 시도는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시의 젊은 작가들에게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영화적 기법들의 대대적인 차용으로 문학적 혁신을 대신했다. 그렇게 해서 소설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소설이 영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소설이 영화를 흉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들 세대 작가들의 주체 형성 과정에 영화를 포함한 시각 문화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우리 시대의 독자들은 영화적으로 씌어진 소설을 더 많이 읽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²²⁾

소설의 상황이 이렇다면 인간의 상황은 어떠한가? 인간의 정신은 단순해졌는가? 때문에 소설의 정신과 시대의 정신이 이토록 피상적이고 똑같은 실존을 나누어 가졌는가? 그렇지 않다.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이상 인간은 더 이상 사고할 수도 내면이라는 복잡한 미궁을 쳐다볼 수도 없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유리벽 너머를 의식하고 억압당하

21) 오생근, 『위기와 희망』, 문학과지성사, 2011, 77p.

22) 김형중, 『단 한권의 책』, 문학과지성사, 2008, 298p.

고 기어이 지배당하면서 인간은 그 어느 시대보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과학과 산업의 발전은 인간의 정신과 실존에 관심이 없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또한 기형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은 실체 없는 주권자에게 주권을 빼앗긴 채로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소설의 존재 이유가 삶의 세계를 영원한 빛 아래 간직하고 우리를 '존재의 망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면 오늘날 소설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²³⁾

2.3. 창작품을 통한 내면 연구

필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현 시대에 소설이 처해 있는 위기를 지적하고 '풍요 속 빈곤'에 처해있는 소설의 현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론가들과 창작자들의 생각들을 되짚었다. 소설의 영원한 주제는 인간이고 각각의 창작품은 인간을 탐구하는 각기 다른 독자적 양식이다. 소설의 서사는 그냥 서사가 아니라 '언어'로 이루어지는 서사다. 그럴 때 고민할 것은 다른 장르들과 구별되는 언어 예술로서의 소설에 대한 자의식이다. 그것은 소설의 자율성을 지키고 소설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창작자들의 중요한 정신이다. 필자는 필자가 창작한 창작품을 예시로 소설이 인물을 다룰 때 놓쳐서는 안 될 내면탐구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본고에 다룬 소설은 「굿나잇,오블로」 「백」 「가나」 「떠떠떠,떠」

23) 앞의 책, 108p.

4편의 작품이다. 필자²⁴⁾가 창작한 여러 편의 작품 가운데 위 작품을 고르게 된 것은 본고에서 필자가 소설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두 개의 큰 축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두 개의 큰 축이라고 함은 첫째, 인간 존재를 망각하고 그의 실존을 볼 수 없게 만든 세계의 권력 구조를 보여주고 둘째, 그 세계 아래 망각되어 존재하고 있는 인물의 내면의 풍경과 그의 실존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각각의 작품들²⁵⁾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개관²⁶⁾을 하면 다음과 같다.

「굿나잇,오블로」

① 세상에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에 쇼적인 편집을 가미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비만여성과 그 가족에 관한 내용이다. 김장미라는 이름의 여성은 550kg에 육박하는 고도비만을 앓고 있다. 프로그램은 비상식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김장미의 사연을 방송에 내보내고 그녀의 비만한 육체를 부각시키며 그녀로 인해 시름에 잠겨 있는 가족들을 인터뷰했다. 방송이 나간 후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움직인 시청자들이 김장미에게 후원금을 보내왔고 식품회사에서는 그녀를 후원하고 있다는

24) 필자는 2009년 현대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10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했고 『가나』(문학과지성사)라는 제목의 작품집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 다룬 4편의 소설의 제목과 발표지명은 다음과 같다. 「굿나잇,오블로」(《현대문학》2009 6월호), 「벽」(《문학들》2009 가을호), 「가나」(《현대문학》2009 12월호), 「떠떠떠,떠」(《문학과사회》2010 겨울호).

25) 작품에 대한 개관은 의도적으로 두 갈래로 나누었다. 첫째는 소설의 외계를 둘러싼 인물의 서사이고 둘째는 인물의 실존을 드러낼 수 있는 내면의 풍경과 망각되었거나 망각할 수밖에 없는 기억에 대한 문제이다. 필자는 두 번째에 본고의 목적과 의도를 두고 있다.

26) 작품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대부분 필자의 작품에 대한 평을 했던 이들의 요약을 가져왔음을 밝힌다.

문구를 사용하는 대가로 김장미가 먹을 식료품을 지원했다. 하지만 주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장미의 아버지는 후원금을 믿고 불성실하고 방탕하게 살기 시작했고 거동을 할 수 없는 누나의 수발을 드는 남동생의 마음에는 울분이 쌓이고 지쳐만 갔다. 김장미는 갑자기 말을 하지 않게 됐고 그녀의 침묵으로 인해 남동생의 짜증과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무기력하고 불량한 생활태도와 누나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화가 난 남동생은 아버지를 죽이고 누나도 죽인다.

② 방송이 나간 후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아버지는 밤마다 김장미를 때렸다. 김장미는 어둠속에 누워 저항도 못하고 구타를 당하다가 다리 뼈에 금이 갔고 온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이러한 구타의 충격으로 인해 김장미는 실어증에 걸리게 되고 어둠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김장미는 밤마다 어둠속에서 환영에 시달리고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남동생이 불을 켜주길 원했다. 김장미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내면서 주변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햇빛이 벽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지낸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말들이 있고 소통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다.

「벽」

① 한 노숙자가 있다 이 남자는 공원 벤치에 누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이 남자에게 자칭 ‘이웃을 사랑하는 시민연대’의 총무란 자가 접근하고, 그의 신분증이 지원금 오십만 원과 교환된다. 명의를 빌려 빚을 지게 만든 후 인신매매하는 사건의 시작인 것이다. 그 후 자칭 ‘한국신용협회’ 과장이란 자의 방문으로 남자는 돈을

값기 위해 봉고차에 얽혀 섬으로 실려온다. 섬에 실려 온 남자를 비롯한 일행들은 별거벗겨진 채 정신을 잃을 만큼 끔찍한 폭행을 당한 뒤 발목이 도려지고 이름 대신 목덜미에 낙인찍힌 번호로 호명되는 노예가 된다.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한다. 혹은 일하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 일을 하지 못하면 죽을 만큼 맞거나 맞아 죽는다. 죽으면 손발을 다 자르고 이빨까지 몽땅 뽑혀 바다에 던져진다. 그리하여 “낙오하지 말자, 규칙을 어기지 말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자, 같은 생존 의지가 일꾼들의 정신 속으로 바이러스처럼 침투해간다. 이곳에서는 일꾼들 사이에서 벽이라고 불리우는 ‘살아있는 시체’들이 있다. 일꾼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 죽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공포심과 위화감을 조성시키기 위한 섬의 실질적인 벽인 것이다. 남자 역시 벽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결국 남자는 이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게 되고 누군가를 벽으로 만든 대가로 일꾼들을 부리는 관리자로 승격된다.

② 노숙자로 살다가 섬에 끌려온 남자는 제도에 순응하고 폭력에 길들여지면서도 끊임없이 내적인 고민을 한다. 그것은 “지금 나는 불행한가?” 라는 자문인데 그 자문은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불행하다면 끌려오기 전 나는 불행하지 않았었나?” 질문이 질문으로 대답되면서 이 남자는 스스로 순응하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내적인 고민과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견딘다고 해서 마음의 의문이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남자는 동료들 벽으로 만들고 관리직으로 승격되면서 스스로에게 이 상황을 합리화 시킨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에게 하는 것이기에 죄가 없다는 이 슬픈 독백은 이미 독백을 하는 남자는 과연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내면의 풍경인 것이다.

「가나」

① “나”는 시골 마을에 사는 평범한 청년이다. 그에게는 남몰래 좋아하는 여인이 따로 있었으나 마을의 습속에 의해 “하비바”라는 이름의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된다. 좋아하던 여인의 사촌의 아내가 되고, 자신은 아직 어린아이 티도 벗지 못한 병어리 여자와 결혼하게 된 현실을 원망하며 그는 하비바에게 모든 분풀이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도적디 쳐들어와서 그 마을의 주된 생계 수단이던 양을 모두 약탈하고 그에 저항하는 몇몇 사람을 죽인다. 죽은 이들 중에는 그의 사촌도 포함되어 있다. 죽은 사촌을 매장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라디오를 끼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노래 부르는 시늉을 하는 아내에게 또 폭력을 행사한다 그 폭력은 사촌이 죽임을 당할 때 옆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책망이다. 그러는 과정 중에 “나”는 하비바는 나무판에 글씨를 적어 마음을 표현하고 그는 아내를 이해하고 아무것도 기댈 곳 없는 그녀를 받아들이게 된다. 마을은 자급자족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마을 밖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게 되고 “나” 역시 아내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들을 두고 마을을 떠나 국경을 넘어 원양어선에 오른다. “나”는 아내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망망대해를 떠돌게 된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나”는 갑판에서 실수로 실족을 하게 되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된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바다 속에서 떠다니다가 시체가 어부에게 발견되고, 해경에게 인도된다. 그 신원미상의 익사체는 화장이 되어 한 줌의 재가 된다.

② “나”의 생각과 인지능력은 바다에 빠져 죽은 이후에도 계속 된다. 죽은 이의 시점에 의해 기록되는 생생한 체험과 그 시점에서 비롯된 “나”의 회상이 이어진다. 죽음이라는 실존을 넘어 “나”라는 인물이 갖고 있던 기억은 죽어버린 육체를 초월해 내면과 정신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존재는 자신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을 한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와 남기고 온 것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의 정신은 고향으로 향하고 마침내 그 고향에 있을 아내와 아들에게까지 닿게 된다. “나” 죽음이라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사유를 육화시키는 방식으로 직접 체험하고 누리면서 죽어버린 육체를 객관화시키고 살아있을 때의 삶 자체를 객관화시키며 죽은 이후에 “나”는 비로소 해방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 같은 인식을 하게 된다.

「떠떠떠, 떠」

① 말을 더듬는 남자와 간질에 걸린 여자에 대한 소설이다. 두 사람은 열한 살, 어린 시절에 잠시 같은 반인 적이 있었다. 학교는 분명히 인격적인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두 사람에게 학교는 발설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픔과 수치심을 뇌리에 각인시킨 공간일 따름이다. 남자가 말을 더듬는 것을 알면서도 선생은 늘 27일만 되면 반 전체 앞에서 책 읽기를 시켰다. 그때마다 남자는 불분명하게 더듬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거품을 입에 물고 발작을 일으킨다. 그 후 여자아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둘은 동물의 털을 쓰고 놀이 공원에서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난다. 말 못할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

해하게 된 들은 사랑에 빠진다.

② 남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 더듬는 사람이다. 이 들은 분명 다른 것이지만 남자는 자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의 흉내를 낸다. 말을 더듬는다는 것이 남자의 삶속에서 오랫동안 조롱거리가 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남자는 그 장애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결국 남자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택하고 병어리 흉내를 낸다. 남자는 말을 하지 않지만 내면 속에서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한다.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하다. 남자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내면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밖으로 발성되지 않기 때문에 남자 스스로밖에 알 수 없다. 간질을 앓고 있는 여자는 아무런 징후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데 그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현상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장애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이해가 아닌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것이었다.

네 편의 작품의 개관은 의도적인 목적으로 ①과 ②의 부분으로 나누어 요약하였다. ①은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 외계에 대한 표면적인 서사를 다루었다면 ②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심인물의 내면과 정신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행위이다. 행위가 무엇이나는 것은 소설의 영원한 질문이다.²⁷⁾ 말하자면 그것은 소설의 구성적 문제인 것이다. 하나의 결정은 어떻게

27) 앞의 책, 88p.

이루어지는가? 또 그것은 어떻게 행위로 전환되며 행위들은 또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모험을 이루게 되는가? 행위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단테는 “모든 행동에 있어 행위자의 일차적 의도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다.”라고 했다.²⁸⁾ 그렇다면 행위에 대한 해석은 행위자의 의도로 바꾸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한 내면과 이면을 모두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행위와 그 내면의 의도와 정신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바로 행위와 그의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경우가 그렇다. 인간은 행동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 모습이 전혀 그를 닮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의 역설적인 성격이야말로 소설의 위대한 발견이다. 인간의 행위가 다른 생물의 행위와 다른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외계에 실천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 하는 물리 표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⁹⁾ 하지만 행위를 실천하기 전에 마음속에 갖고 있던 의지와 행위 사이에는 틈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때로는 세계의 어떤 상황과 권력의 억압이 마음속에 있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행위를 억지로 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인간의 행위를 파악하고 그 이야기를 추적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소설이 정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면 행위의 서사뿐만 아니라 내면과 정신의 부분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행동의 구조가 외적인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라 행동 내적인 연관에 근거할 때 줄거리는 그러한 보편 개념을 만들어낸다. 그러

28) 앞의 책 40p.

29)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1994, 237p.

한 내적인 연관 관계는 보편화의 실마리다.³⁰⁾ 중요한 내적인 연관에 관한 비밀을 풀어내는 것인 인간 행동에 대한 보편과 특수를 탐구하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소설의 죽음과 문학의 종언은 인간의 복잡하고 개별적인 내면과 정신의 부분의 망각을 강요하는 세계의 흐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인물의 내면과 정신에 대한 문제를 소설이 끊임없이 문제 삼고 추적해야 하는 것이 창작자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중요한 창작의식이라고 생각한다.

3. 창작과 표현

3.1. 망각된 존재들의 숨어있는 서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세계는 텅으로 변해버렸다.³¹⁾ 산업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진보로 인해 물리적인 세계의 거리는 과거에 비해 말할 수 없이 가까워졌지만 인간들의 삶의 세계는 그 주위로 갑자기 좁아져 버렸다. 또한 이러한 풍부함은 긍정적 의미의 총체성을 파괴한다.³²⁾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영상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들은 세계의 모든 것을 아무 거리감 없이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타인들의

30) 폴 리콕르, 『시간과 이야기 1- 허구 이야기에서의 형상화』, 김한식 이경래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9, 124p.

31) 앞의 책, 44p.

32) 케으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심설당, 1998, 34p.

삶(그것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라 할지라도)을 생생하게 알고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인간들의 물리적인 소통은 복잡하고 빨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인간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로 인한 해방감일까? 물질문명이 인간에게 주는 물리적인 혜택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결국 유익한 것이었는지, 정말로 그러한 효과와 유익을 인간들이 스스로 원했는지에 대한 회의는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 낡은 질문이 되어버렸다. 결국 인간들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상황과 진정한 이야기는 저 찬란한 문명의 빛 속에서 하얗게 망각되고 말았다. 조지오웰의 다수의 작품³³⁾이 전체주의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망각에 대한 문제였다. 하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이 망각된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것에 대해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인간이 망각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또한 망각된 존재들이 망각되지 않기 위해 각자의 삶속에서 투쟁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망각이라는 주제에 대한 소설적 탐색은 끝도 결론도 있을 수 없다.³⁴⁾ 필자는 이러한 인식과 소설적인 주제를 본고에서 다룬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필자가 창작한 소설을 예시로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굿나잇,오블로」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들의 갈등과 이야기는 가족들의 문제다. 하지만 저자가 이 소설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인간들

33) 조지오웰은 『1984』와 『동물농장』을 통해 권력 구조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의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훌륭하게 표현해냈다.

34) 앞의 책, 185p.

의 소소하고 특별한 삶에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것 같이 접근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의 특정한 부분을 이용하고 사용한 것일 뿐 그 어떤 윤리적 책임이나 내적인 고통을 살피지 않는 매스미디어의 무책임한 횡포를 다루고 싶었다. 그로 인해 평온했던 인간들의 일상적인 삶이 빠르게 붕괴되고 서로의 관계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가족들 나아가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을 다루고 싶었다. 매스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은 인간들의 삶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개인의 삶에 작용한다. 그로 인해 매스미디어의 노출된 인간들은 강제로 망각되기를 강요받고 실제로 망각됨으로 인해 내적인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싶었던 것이다.

① 오블로는 세상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다. 브라운관을 통해 비춰진 오블로의 모습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비대한 몬스터의 실물, 그 자체였다. 진행하던 MC와 방청객들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 주기적으로 비명과 탄성을 질러댔다. 오블로의 몸무게를 재기 위해 준비됐던 분홍빛 플라스틱 체중계는 리포터의 손에 들려 한참동안 장난감처럼 비춰졌다. 결국, 동물들의 무게를 재는 작은 크레인과 기중기가 동원 됐다. 사람들이 몸에 줄을 매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오블로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내 오블로의 모습은 네거티브 효과를 통해 공포스럽게 반전되었고 붉은 색의 550Kg이라는 숫자가 피가 번지듯 주르륵 흘러 내렸다. 방청객들은 비명을 내질렀고 진행하는 MC들

은 ‘세상에, 세상에’라는 말을 반복하며 곧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다.

②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사정이 달라졌다. 꽤 유명한 식품회사에서 오블로를 돕고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오블로가 먹을 음식을 3년 동안 후원해준다고 했고, 후원계좌에는 필요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꼬프는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가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점차 그 편리함과 달콤함에 빠져 들었다. 꼬프는 당구장 운영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그 곳에서 동네 한량들을 불러 도박판을 벌였다.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꼬프는 도박에도 재능이 없었다. 통장의 돈을 모두 도박으로 날렸다. 돈을 잃은 꼬프는 자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고 잠자는 스끼를 깨워 집안 걱정을 늘어놓다가 끝내 미안하다며 아이처럼 울었다. 간혹 욕설을 퍼붓기도 했지만 이내 사과하곤 했다. 그 때마다 스끼는 무력한 꼬프를 증오했다. 후원금은 금세 그쳤다. 꼬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잔고를 확인하고 욕을 하고, 다시 확인하고 욕을 하는 시간을 되풀이 했다. 세상은 오블로의 사연을 잊었고 더 이상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오블로보다 독특한 사람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다. 게다가 오블로처럼 살이 많이 찐 것은 그것이 병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신기하고 동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 자기 관리의 실패로 여겨졌다.

③ 아, 저번에 전화로 김행복씨가 저희 쪽으로 제보를 몇 번 주셨었어요. 촬영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연락을 못 드렸다가 이렇게 오늘 연락드리네요. 혹시 김행복씨와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반가워요. 그런데 혹시 김장미씨 몸무게가 지금 얼마쯤 나간다고 하셨죠? 이번에 보내주신 사진 말인데요. 아 정말 놀랍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김장미씨 사연을 의학다큐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

여보세요? 여보세요?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김행복씨, 김장미씨 다 죽었다고요!!

스끼는 전화를 끊는다. 스끼의 손가락 사이로 전화선이 어지럽게 꼬여든다. 전화선을 붙들고 있는 스끼의 손이 떨린다. 스끼는 주먹을 짝 움켜쥐고 물에 잠긴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달려간다. 주방에서 날카로운 쇠소리가 스친다. 스끼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중증 고도비만을 앓고 있는 한 여성에 안타까운 사연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를 돕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은 ① ② ③의 순서대로 가족의 파멸을 불러왔다. 원치 않았는데 개인을 불특정 다수가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계의 중심에 새웠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윤리적 의식이 전혀 없는 매스미디어의 힘에 의해 소셜 속 인물들은 내상을 입고 각자 가장 원치 않은 방식대로 몰락해간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어야 하고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족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증오와 원망으로 인해 가족 간의 사랑의 유대감을 잃고 타인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하고 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매스미디어의 권력이 이 가족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이 가족은 사랑의 공

동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내적인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행위만을 놓고 서로의 의도와 내면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소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소설의 중심인물인 김장미(오블로)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음으로(못함으로)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혹은 무책임하게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누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누워 있다는 것에 대한 오해와 삶에 대한 피로로 인해 김왕자(스기)는 구성원을 죽이고 가족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소설은 이러한 인물들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고 행위 이면에 숨은 의도와 정신의 영역을 충분히 발견하고 다룰 수 있다. 아무 말 없이 고통을 감수하고 결국 죽음을 맞았던 김장미(오블로)의 속마음과 내면에서 왕성하게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는 소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주되며 등장한다.

① 오블로의 방이 어두워지고 있다. 오블로는 살진 손가락을 더듬어 침대 모서리를 짚 붙든다. 오블로의 눈빛이 어두워지고 있는 이 곳 저 곳을 분주하게 오간다. 어둠은 흡수되는 물처럼 서서히 방을 잠식해간다. 먹지처럼 고르던 어둠이 순식간에 구겨지며 수많은 명암으로 나뉘어 찢어진다. 찢겨진 어둠의 한 자락이 검은 천 조각처럼 오블로의 배 위로 떨어진다. 오블로는 엄지발가락을 잔뜩 으르리며 허리를 뒤흔든다. 병 속에 담긴 물처럼 살들이 요동치다 다시 잠잠해진다. 오블로의 숨이 가빠진다.

② 장미는 등이 아프다. 무엇인가 살고 있다. 장미는 그렇

게 믿었다. 등이 아플 때마다 장미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자신의 피를 빨고 날카로운 잔뿌리를 혈관 깊숙하게 퍼뜨리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뒤집어 보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아팠다.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등이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장미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그 시간을 견뎌나간다.

①은 외부적으로 보면 말 못하는 짐승처럼 그저 먹기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있는 것 같은 김장미(오블로)의 내면의 고통과 무서움을 다루는 부분이다. 누워만 있게 된 김장미(오블로)의 상황 탓에 동생인 김왕자(스끼)는 치져 갔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는 것 같은 누나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②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김장미(오블로)는 말을 할 수 없는 실어증에 걸리게 되었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 것은 고통이 없이 편하게 먹기만 해서가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육체 탓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선정적으로 집어 삼키는 매스미디어의 폭력성을 배경으로 한 소설³⁵⁾은 김장미(오블로)의 티브이쇼 출연 이후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가족의 황폐한 삶 안으로 가차없이 직뺨해 들어간다. 그녀는 살아있는 살덩어리³⁶⁾으로 여겨졌다. 김장미, 김행복, 김왕자 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외부의 가치를 대표하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한 가족의 불행은 모든 의미를 잃고 단지 살아가기만 하는 ‘벌거벗은 삶’이다. 이처럼 소설이 외부로 드러나는 인물의 행위만 추적하는 외적인 이야기만 담는다면 인간의 실존을 온전히 탐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아니 어쩌면 다소 진행이 더디고 서사가 멈춰서는 내면에 집중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한다면 인간의 실존을 왜곡하고 더럽히

35) 차미령, 《현대문학》 6월호, 168p.

36) 이수형, 「‘그저’의 세계 이것이 인간인가」, 《문학과사회》 2009. 겨울호, 330p.

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외부세계의 영향력과 권력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또한 그 영향력으로 인해 인간 본성의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끊임 없이 질문하고 밝히는 것이 소설을 창작하는 창작자의 잊지 말아야 할 윤리일 것이다.

또한 세계와 모종의 권력이 가하는 억압 자체가 인간을 파괴시키는 경우도 있다. 저자가 「벽」을 창작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들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문장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역사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영원한 희생자들인 그들이 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말인가? 말하자면 소설은 이 질문에 대한 사족이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수용소 인원들 중 몇 명을 무작위로 선택해 ‘무젤만’이라 명명했다. 아우슈비츠는 무젤만을 특별한 수감자로 바꾸어놓는다. 그들은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무안한 죽음 직전의 생명체들이었다. 무젤만은 일종의 본보기였고, 수용소의 암호였으며, 아우슈비츠의 통치방식이었다. 내가 주목한 것은 무젤만을 대하는 수감자들의 태도였다. 수감자들은 무젤만을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동료로 여기지 않았으며 심지어 인간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인종이고 동료였고 가족이었던 그들을 그저,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는 신체적 기능들의 집합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이 무젤만에게 건네는 유일한 언어는 침묵이었다.³⁷⁾

위 문장은 「벽」에 대한 작의를 밝힌 창작노트의 일부분이다. 위 문

37) 정용준, 『젊은소설 2010』, 문학나무, 2010, 242p.

장에서 밝혔듯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건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던 그 행위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의 상황과 인간들이 처한 조건에 대한 고민과 탐구에 있었다. 고유한 한명 한명의 인간의 행위가 독립적이고 모두 달라야 하는 당연한 조건이 어떤 특정한 상황과 권력구조 속에서는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러한 이상 행위가 특이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 즉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특정한 권력과 구조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자 앞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청년이 다가와 섰다. 청년은 한참 동안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눈을 맞추기 힘든 각도였다. 남자는 고개를 젓혀 선글라스를 쳐다봤다. 선글라스 뒤에 숨은 위협적인 눈빛, 남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청년도 남자의 손에 명함을 쥐여주었다. 청년의 손가락이 강제로 남자의 손가락을 폈다. 여자의 명함과는 달랐다. 하얀 바탕에 검정색 글씨. **한국신용협회 과장 박종식**. 표면은 거칠게 잘려 있어 펄프 가루가 손가락에 묻었다. 청년은 남자에게 몇 가지를 말했다. 청년의 말에 의하면 남자는 얼마 전에 카드를 발급했고 그 카드를 통해 삼천만원의 대출받았다 했다.

극단의 폭력과 모멸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앗아간다. 죽음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곳에서는 죽는다는 것이 의

미를 갖지 못한다. 염전에서 죽음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죽음이 너무도 사소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능은 다르다. 때리면 맞지 않으려고 몸을 웅크린다. 본능은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가장 정직한 반응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본능을 일으키는 지속적인 자극은 노력으로 이어진다. 몰아붙일수록 삶의 포기는 선명해지고 생존 본능은 강해진다. 이는 사내의 생각 중 가장 창의적인 것이었다. 염전은 생존 본능이라는 에너지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낡은 기계와 같다. 탈출의 욕망보다는 잡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불만보다는 지금의 상태라도 유지하고 싶은 무력감이 지배하는 땅. 모든 곳이 벽으로 막혀 움직일 수 없는 염전에서 일꾼들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들이 함께 모여 웅크리고 자는 막사뿐이다.

「벽」의 작의는 표면적으로는 이 시대에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폭력과 비인격적인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38) 소설은 실재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존이란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능성의 영역이다. 그것은 인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즉 소설의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하고 흥미로운 상황이 아닌 가능성이다.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인간의 실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주되기 때문에 소설은 실제

38) 앞의 책, 65p.

사건을 다루었더라도 사건 자체의 리얼리티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건과 상황 이면에 숨어 그것을 일어나게 하고 작동하게 만드는 본질과 그 속에 놓여 있는 인간의 실존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백」의 공간과 사건을 통해 역사적으로 반복되며 자행되었던 비인간적이고 본질적인 상황을 그려내고 싶었고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인가? 외딴 섬의 염전 만인가? 노동과 생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인간세계의 모든 조건이 문득 이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³⁹⁾ 하지만 「백」을 통해 그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사건과 상황이 아닌 그 속에 놓여있는 인간들의 본성이었다. 모두 피해자로 평등하게 고통 받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지배와 피지배자가 생기고 강함과 약함이 생기며 생존 의지가 인간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파괴시키는지에 대해 다루고 싶었던 것이다. ‘백’은 최소한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신분증도 이름도 없이 죽음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노역에 시달리다 염전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즉 “살아있는 시체”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이 사회에 강고하게 놓여있는 그리하여 살인적인 노역을 하는 사람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적대의 구분선을 의미한다.⁴⁰⁾ 이렇게 “살아있는 시체”처럼 물화되어가는 인물들에게도 내적인 고민과 통증이 있고 망각되고 소멸된 각자의 기억이 있다. 소설은 그것을 드러내고 집중함으로 인해 염전에서 단순한 기계처럼 다루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인간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슬프게 추억하며 날카롭게 느끼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39) 백지은, 「정오의 소설들」, 《작가세계》 2011 여름, 283p.

40) 이경재, 『젊은소설 2010』, 문학나무, 2010, 271p.

9는 생각한다.

그날, 차라리..... 그렇게 했어야 했다.

아주 오래된 기억도 떠오른다. 할 수 있으면 잊어버리려 노력했던 그 기억이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지만 귀염성이 있던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으로 9의 얼굴에는 설렘과 쓸쓸함이 함께 스친다. 쪽방 촌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었다. 얇은 베니어판만 집의 경계를 나눌 뿐 창문도 없고 비상구도 없는 별집 같은 쪽방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화재는 공식적인 사망자만 백 명이 넘는 엄청난 사고였다. 9는 자신의 이름을 실종자 명단에 올렸다. 무능력한 가장보다 돈이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더 필요했다. 그리고 얼마 뒤, 화재 지역에 보상을 위한 정밀 수사가 시작됐다. 그날로 9는 화재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 9는 생각한다.

지금 아이들의 키가 얼마나 될까, 아내는 잘 있을까, 보고 싶구나.

소설 속에서 결국 벽이 되어 버린 아니, 벽이 되기를 선택한 9의 내면의 서사와 기억은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극대화시키고 비인간적인 인간들의 공동체를 고발하고 그것으로 인해 모종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윤리의식과 양심에 경종을 울리게 된다.

필자는 「굿나잇,오블로」와 「벽」에 대한 작의를 밝히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해석함으로 인해 소설을 창작하는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할 때 느끼고 의식해야 하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모종의 윤리의식과 자신

이 창작하려는 소설의 세계와 인물을 바라볼 때 느껴야 하는 인간의 실존을 밝히고 다루어야 할 의무에 대해 피력했다. 하지만 소설을 창작하는 창작자의 윤리는 보편적인 인간에게 적용하는 윤리와는 다르다. 밀란쿤데라가 생각하는 소설의 윤리를 필자도 공감한다.

소설은 근대의 시초부터 줄곧, 그리고 충실히 인간을 따라다니고 있다. 후설이 서구정신의 요체로 간주한 ‘앞에의 열정’이 이제 소설을 사로잡아 소설로 하여금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살피게 하고 ‘존재의 망각’으로부터 그것을 지켜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삶의 세계’를 영원한 빛 아래 보존한다. “오직 소설이 발견할 수 있는 것만을 발견하라. 그것만이 소설의 유일한 존재 이유다.”라는 헤르만 브로흐의 말을 나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가 거듭 되풀이하는 이 말에 담긴 그의 고집에 공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존재의 부분을 찾아내려 하지 않는 소설은 부도덕한 소설이다. 앞이야말로 소설의 유일한 모럴인 것이다.⁴¹⁾

존재의 망각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고 그에게 삶의 세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소설이 할 수 있다면 소설을 창작하는 창작자가 창작의 순간 고집스럽게 인간실존에 대한 탐색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자 이유가 될 것이다.

41) 앞의 책, 14p.

3.2. 행위와 내면 사이

행위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설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서두의 질문처럼 다양한 답이 가능하다. 철학에서의 답이 있을 것이고 과학에서의 입장이 있을 것이며 의학 역시 인간에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철학과의 대비를 통해 소설의 방식을 알아보자. 행위에 대해 철학자가 생각하는 방식과 소설가가 생각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행위가 무엇이나에 대한 답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다. 철학은 인물도 상황도 없는 추상적인 공간 속에서 개념과 논리의 생각을 발전⁴²⁾시켜 나가면서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반면에 소설은 철저하게 상황과 그 상황에 놓여있는 인물을 놓고 생각한다.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과 인물에 따라 수없이 많은 갈래로 나누어질 수 있고 답 역시 소설과 창작자의 상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세상에는 무수한 형식의 소설들이 있다.⁴³⁾ 하지만 필자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행위와 행위자의 마음 사이에는 틈이 있다는 것이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 그 자체가 바로 틈인 것이다. 인간은 행동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 모습이 전혀 그의 의도와 상관이 없거나 혹은 아주 반대의 경우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간극과 신비를 풀기 위해 소설은 나름의 방식과 고유한 논리에 따라 존재

42) 앞의 책 47p.

43) 제랄드 프랭스,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9, 5p.

의 상이한 면모들을 찾아냈다.⁴⁴⁾ 소설은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와 감정의 은밀한 삶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내적독백이라는 소설의 획기적인 발견은 인물의 머릿속에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도청 장치 덕택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비록 행위자의 행위가 내면의 목소리와 다르고 혹은 아무 행위가 없다할지라도 내적독백은 독자로 하여금 행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인물의 실존과 진정한 의도와 요구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설은 이러한 방식과 기법을 통해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의 실존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의 진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떠떠떠, 떠, 떠」를 예시로 행위와 내면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고 인물의 내면이 얼마나 행위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떠떠떠, 떠」는 말 더듬는 남자와 발작을 일으키는 여자가 만나 사랑한다는 것, 이들이 각기 가진 장애로 인해 학창 시절의 모욕과 수치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유원지에서 사자와 판다의 탈을 쓰고 일하다 재회해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칠게 요약할 수 있다.⁴⁵⁾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이끌어가는 서사적인 측면은 이 소설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필자 스스로도 이 소설을 창작할 당시에 집중했던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들과 소통이 불가능한 장애를 안고 있는 개별적인 두 존재의 각기 다른 삶이었다. 이러한 장애는 타인으로부터의 위로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오직 스스로에게만 주어진 것이기에 남녀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설픈 방식으로 장애가 사라지고 위로받고 하나가 되는 서사는 생각하지도 않았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둘의 외부적 서사는 소

44) 앞의 책 14p.

45) 강지희,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11, 312p.

통불가능한 방식의 표현이 될 것이기에 특별하지도 않고 의미 있지도 않다.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지만 내면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며 정신적으로 충만한 어떤 것이었다. 이 소설의 도입부를 보면

모음이 사라지길 원해. 혀끝이 입술에 부딪치지 않고 발음되는 단어들, 입천장에 혀가 닿지 않고 태어나는 부드러운 언어들, 입술 사이에 암초처럼 걸려 빠져나오지 않는 커다랗고 단단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사전과 인간의 기억에서 모조리 지워졌으면 좋겠어.

남자의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독백으로 시작하고 있다. 말을 더듬는 내면에 거품처럼 부글거리는 언어에 대한 예민하고 복잡한 생각과 사고들은 남자의 외부로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생각은 적극적인 어떤 결단에 이르게 된다. 바로 스스로 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차라리, 병어리가 되겠어.

소설에서 이 남자의 내면을 짚어내지 않고 외부의 표현된 행위로만 판단했다면 남자는 그저 소심하고 상처받은 말더듬이로만 그려질 것이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 연인을 만나고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낭만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면에 대한 탐구가 없이 외부의 것만 갖고 인물의 실존을 보여줄 경우 심각한 왜곡과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남자에게는 말이 곧 행위이다. 남자는 언어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고 언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 언어는 바꾸어 말하면 언어(행위)란 수용할 수 있으나(들을 수는 있으나) 말할 수는 없는 오직 만질 수 밖에 없는 이 수동적 인물에게 언어는 소통의 먹잇감이라기 보다 끝내 소화되지 못한 체 내 의식과 육신을 괴롭히는 실체와 같다.⁴⁶⁾ 이 경우에는 행위란 행위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기보다 의도를 왜곡하고 가로막는 벽과도 같이 존재한다. 마치 외부적 강압으로 인해 표현이 억압받는 것처럼 어떤 인간에게는 스스로 갖고 있는 조건들이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물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인물들의 사건과 행위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여야 하는 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물들의 내면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행위와 내면사이의 틈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경우와 그 내면이 감추고 있는 이면의 진심을 담고자 했던 부분을 살펴보자.

① 그 후로도 그녀는 일하는 도중 가끔씩 갑자기 잠이 들었다. 판다는 변함없이 웃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갑자기 그녀가 잠이 들 때면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아무리 사자가 무섭고 용맹스러운 행동으로 주위를 끌어도 그 순간 판다가 발산하는 치명적인 매력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았다. 통통하게 살찐 하얀 판다가 갑자기 바닥에 누워 활짝 웃는 얼굴로 뒹구는 모습은 너무 귀여웠기 때

46) 강동호, 「사랑의 영도, 만짐의 현상학」, 《문예중앙》, 2011. 여름호, 390p.

문이다.

②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녀가 내게서 판다의 머리를 빼앗아 뒤집어썼다. 두 팔을 엇갈아 안고 있던 팔을 푸는 과정에서 그녀의 손톱이 팔목을 긁었다. 나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판다의 관자놀이를 꼭 누르며 떨고 있었다. 판다의 표정은 여전히 명랑하게 앞뒤 양옆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길 수 없는 쾌감이 몸을 통과하고 있거나 완전히 미쳐버린 표정처럼 판다는 고통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불끈 쥔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이상한 떨림이었다.

①은 간질을 앓고 있는 여자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의 행위를 묘사한 부분이다. 여자는 인형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항상 귀엽게 웃고 있는 판다의 표정으로 여자가 발작을 일으키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떠는 외부적 모습에서는 그 어떤 고통도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다. 반대로 활짝 웃고 재롱을 피우는 판다곰처럼 귀여운 모습만 부각될 뿐이다. 그러한 은폐의 효과로 인해 여자는 남들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장애의 징후가 보이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고 더욱 좋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행위는 개인의 특정한 실존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②는 인형의 탈을 쓰고 발작을 일으키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①의 상황과 똑같이 여자는 발작을 일으키기 전 인형의 탈을 뒤집어썼지만 남자는 인형 얼굴 뒤에 숨어있는 여자의 진짜 얼굴과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행위 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귀여운 모습에 속지 않고 여자의 발작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설이 인물의 내면을 다루고 그것에 집중하면 배일에 쌓여있는 인간의 참 모습을 그리고 진의를 분간할 수 있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설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는 서사와 장면이 집중한다면 이러한 행위와 내면의 틈을 발견할 수 없게 되고 앞에서 지적했던 소설이 담당하고 다루어왔던 인간의 실존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밀란쿤데라의 전망처럼 소설은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3.3. 내면의 목소리와 그 표현

“독자는 독서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고유한 독자가 된다. 작가의 작품은 일종의 광학 기구에 불과하다. 작가는 이 기구를 독자에게 줌으로써 이 책이 없었다면 아마도 자기 자신 안에서 볼 수 없었을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⁴⁷⁾ 프루스트의 이 문장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독자가 소설을 보면 바라보게 되는 것은 나 아닌 타인과 세계의 어떤 사건이기도 하지만 독자 스스로를 자기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프루스트는 자신의 소설의 끊임없는 내적 독백과 내

47) 밀란쿤데라는 『쿠티』에서 프루스트의 이 문장을 인용하며 이 문장들이 오로지 프루스트 소설의 의미만을 밝혀 주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더 넓게 소설이라는 예술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정의 내려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밀란쿤데라의 소설 정의에 포함된 독서의 효과다.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데 밀란쿤데라는 이것이 소설이 인간의 정신과 내면에 집중할 때 비로소 인간실존을 효과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고 봤다.

면담구를 통해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 혹은 인간의 내면을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효과를 광학기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필자는 공감한다. 프루스트에게 인간의 내면적 세계란 하나의 기적이었고 우리를 끊임없이 경탄케 하는 무한함이었다.⁴⁸⁾ 인간의 내면은 물리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간의 내면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표현 방식을 통해 미루어보는 것 밖에 없다. 가령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행위를 통해 행위자의 1차적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언어를 통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와 생각들을 알 수도 있다. 또한 행위로 표현되지 않고 언어로 발설되지 않지만 표정이나 상황을 통해 행위자의 내면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간접적이고 가공된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에 대한 마음을 파악하기에는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내면세계에 대해 알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내면에 대해 알 수 있는 표현양식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 전지적인 시점의 눈으로 객관적인 행위의 앞과 뒤를 모두 볼 수도 있고 내면의 목소리나 독백으로 직접 내면의 상황을 진술할 수도 있다. 심지어 소설만이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양식도 존재한다. 바로 창작자의 상상력이다. 소설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 그 상상력을 통해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소설 창작 기법을 발견하게 되었다. 초현실적인 상황이나 시적인 상태 혹은 철학적인 사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접근으로도 소설은 얼마든지 인간에 대해 또 내면세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설이 가진 엄청난 종합의 기능이

48) 앞의 책, 43p.

있다. 시나 철학은 소설을 포용할 수 없지만 소설은 시나 철학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소설의 정체성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른 장르들을 수용하고 철학적·과학적 지식을 흡수하는 경향이 바로 소설의 특징이다.⁴⁹⁾

필자는 「가나」를 쓰게 된 계기에 대해 밝힌 적이 있다.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친한 동생이 해경 생활을 하다가 익사한 시체를 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도대체 14일동안 시체가 무얼 하며 돌아다녔을까’ 하는 것이 가장 컸어요. 분명 한때는 존재하고 살아 있었을 사람인데, 소속을 알아낼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 있었을 때의 모든 것들이 소각되고 또 소멸되는,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⁵⁰⁾

다시 말해 필자는 「가나」의 중심인물을 시체로 정하고 그것에 대해 소설을 쓴 것이다. 시체는 내면이 없다. 인간이었지만 죽었기 때문에 사고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창작자는 물리적인 한계와 조건으로 상상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 소설은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며 또한 물리적인 세계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죽어있는 사람에게도 정신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력이 「가나」를 쓰게 만들었고 세계 속에서 이미 망각된 존재를 끄집어내어 그의 기억과 서사를 추적함으로써

49) 앞의 책 98p.

50) 정용준, 『웹진문지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과 지성사, 2011, 54p.

그의 삶을 복원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실체가 아니지만 어떤 인간에게는 실존이었고 또한 불특정다수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의 세계다. 때문에 소설이 인물의 내면세계에 집중하는 것을 표현 양식과 물리적인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소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한 방식으로 다루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가나」는 실제 세계에서 시작해서 죽어있는 시체의 비현실적인 세계로 도약한다. 그리고 실제 세계를 무의미하게 다루고 시체의 정신과 그의 내면의 세계에 집중한다.

① 붉은 물체가 바다에 떠 있다. 낙지잡이 배 옆으로 피정이 멈춰 선다. 깃발을 흔들며 어부가 피정으로 건너온다. 부산하고 성급한 발걸음이다. 어부는 C에게 알아듣기 힘든 말을 다급히 쏟아낸다. C는 이미 통신을 통해 들었던 정보지만 어부의 말을 충실히 상황판에 옮겨 적는다. A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붉은 물체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다. A의 들숨과 날숨이 조금 빨라진다. B는 하얀 포대를 준비하고 카메라를 손에 든다. 파도에 흔들리며 위 아래로 움직이는 물체는 빨간색 점퍼다. 그 밑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암초처럼 크고 겹다. 작은 보트가 바다에 내려진다. 보트에 A와 B가 올라선다. A는 두꺼운 줄을 어깨에 감았고 B는 하얀 포대를 들고 있다. 빨간색 점퍼에 다가선 B가 움찔 놀라며 코를 감싼다. 엄청난 악취가 풍긴다.

② 해류가 몸을 떠민다. 그것은 무겁고 밀도가 높은 바람과 같았다. 그 흐름에 따라 천천히 발이 움직이고, 난 바다 속

을 산책하듯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지금 이곳을 어찌 형용할 수 있을까, 부드러운 흙속에 심겨진 나무뿌리처럼 나는 바다 속에 잠겨 있다.

흔히 삶이 죽음의 대척점에 놓이는 데 반해 「가나」는 더블 플롯의 구성을 취하면서 삶의 양면으로 공존하는 생과 사에 대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소설은 두 개의 시점, 1인칭과 3인칭의 혼용을 통해 이 ‘죽었지만 살아 있는’ 불가해한 존재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⁵¹⁾ ①은 소설의 중심인물이 바다에 빠져 시체로 발견된 당시의 장면을 다룬 것이고 ②는 시체가 수면에 떠오르기 전까지 물속에서 떠다니는 것을 시체의 정신과 내면을 1인칭 시점으로 직접 말하게 한 것이다. ①의 상황처럼 아무 정보도 목격자도 없이 떠오른 행려병자의 시체는 단지 소각되고 그의 존재는 소멸되고 세계에서 완전히 망각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②의 방식으로 죽어버린 인물의 내면과 그의 기억을 추적함으로써 인해 그 인물의 세계를 복원하고 그가 이런 방식으로 망각될 수 밖에 없었던 세계의 부조리함과 허망한 삶의 조건들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죽음과 인간의 자아라는 영원한 수수께끼에 대한 하나의 의견과 사고의 외연을 넓힐 수도 있다. 내면적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는 달리 가는 심리적 시간이다.⁵²⁾ 즉 소설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 다룰 때 꼭 필요한 내면세계에 대한 탐구는 물리적인 조건과 한계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더 잘 밝혀낼 수만 있다면 소설을 창작하는 창작자는 그 어떤 방식과 불가능한 표현 양식일지라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상 모든 예술과 학문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한다.⁵³⁾ 하지만 문학(소설)은 어떤 개인이 인간의 한 측면만을 붙잡고 씨름함으로써 인

51) 김나영, 『웹진문지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과 지성사, 2011, 52p.

52) 김현,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 지성사, 1991, 418p.

53) 앞의 책, 165p

간을 피상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파악할지라도 모를 단점을 막고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게 한다. 문학(소설)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분야는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4. 창작의 실제

4.1. 「굿나잇,오블로」

1.

오블로의 몸무게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는 힘들다. 삼년 전, 거대한 몸과 경이적인 몸무게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오블로는 그때보다 더욱 커졌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는 방에 누워있는 오블로의 모습은 해변을 피로 물들이고 죽어가는 고래를 연상케 한다.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는 철거가 중단된 건물의 철골처럼 불안정하다. 프레임에 칠해진 회색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있다. 오블로가 숨을 쉴 때마다 침대에서는 삐걱거리며 쇠소리가 났다. 견고하게 용접된 병실용 철제 침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지방이 두껍게 쌓인 오블로의 피부는 갑각류의 껍질처럼 단단하다. 밀집된 살덩어리들은 독립된 세포들이 자체번식 하듯 커져만 갔고, 그 속에 화석처럼 숨은 흰 뼈들은 힘을 잃고 점점 물러져갔다.

*

오블로는 세상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다. 브라운관을 통해 비춰진 오블로의 모습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비대한 몬스터의 실물, 그 자체였다. 진행하던 MC와 방청객들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 주기적으로 비명과 탄성을 질러댔다. 오블로의 몸무게를 재기 위해 준비됐던 분홍빛 플라스틱 체중계는 리포터의 손에 들려 한참동안 장난감처럼 비춰졌다. 결국, 동물들의 무게를 재는 작은 크레인과 기중기가 동원 됐다. 사람들이 몸에 줄을 매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오블로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내 오블로의 모습은 네거티브 효과를 통해 공포스럽게 반전되었고 붉은 색의 550Kg이라는 숫자가 피가 번지듯 주르륵 흘러 내렸다. 방청객들은 비명을 내질렀고 진행하는 MC들은 ‘세상에, 세상에’라는 말을 반복하며 곧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다. 카메라가 눈물을 흘리는 오블로의 아버지를 클로즈업했다.

어릴 때는 너무도 예쁜 딸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삽니다.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나 아픈지.....

아버지는 물기가 빠져 푸석거리는 식물처럼 작고 마른 모습이였다.

그래도 동생이라고 어찌나 누나를 챙기고 보살피 주는지요, 저 어린 것이 누나 대소변을 다 받아내요.

아버지는 스끼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끼는 벽에 등을 기대고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순식간에 카메라가 스끼에게 향했다. 스끼의 옆모습이 로우앵글로 담겼고 화면은 흑백필터로 바뀌었다. 단조의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스끼의 검은 눈동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동생과 아버지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인터뷰를 요청하는 리포터는 마이크를 오블로의 입술 앞에 들이밀었

다. 오블로 앞의 은색 마이크는 막대사탕처럼 작아보였다. 오블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으깨진 두부처럼 빠져나온 턱 살은 얼굴과 목의 경계를 허물었고, 짙은 보라색 입술은 오블로를 더욱 괴기스럽게 만들었다. 화면 중앙에는 오블로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간 어머니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아버지의 그늘진 옆모습이, 상단에는 후원계좌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방에서는 상한 냄새가 난다고, 킁킁하지만 아직 제 속을 비추고 있는 허공에서는 음습한 소리들이 들린다고, 그 소리들을 밟아가며 수상한 형상들이 조금씩 다가온다고, 그 소리들이..... 너무도 무섭다고, 무섭다고, 무섭다고,

오블로는 말하고 싶었다.

오블로의 방이 어두워지고 있다. 오블로는 살진 손가락을 더듬어 침대 모서리를 짚 붙든다. 오블로의 눈빛이 어두워지고 있는 이 곳 저 곳을 분주하게 오간다. 어둠은 흡수되는 물처럼 서서히 방을 잠식해간다. 먹지처럼 고르던 어둠이 순식간에 구겨지며 수많은 명암으로 나뉘어 찢어진다. 찢겨진 어둠의 한 자락이 검은 천 조각처럼 오블로의 배 위로 떨어진다. 오블로는 엄지발가락을 잔뜩 오므리며 허리를 뒤흔다. 병 속에 담긴 물처럼 살들이 요동치다 다시 잠잠해진다. 오블로의 숨이 가빠진다. 배 위에서 흔들리던 한 조각의 어둠이 지네로 변한다. 오블로의 커다란 배가 들썩거리고 침대의 췌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지네가

수많은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며 오블로의 겨드랑이를 스치고 지나간다. 순간, 두터운 살을 뚫고 소름이 오른다. 겹쳐진 목 위로, 가슴으로 설세 없이 움직이던 지네의 다리가 하나 둘씩 떨어져 공중에 흩어진다. 까만 허공 속에 실처럼 떠있는 지네의 다리들이 오블로의 주위를 둥글게 에워싼다. 다리들이 얇은 막을 찢고 흔들리며 바닥으로 떨어진다. 겁에 질린 오블로의 두 눈이 막 태어난 새끼박쥐가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본다. 오블로가 이를 앙다문다. 그것들이 날기 시작한다. 사삭사삭 박쥐의 날개 짓에 침묵의 어둠이 찢겨지고, 그 틈으로 박쥐들이 붉은 입을 열어 알 수 없는 소리를 뱉어낸다. 그 소리가 오블로의 고막을 찢른다. 오블로는 고통스러워도 크게 움직일 수 없다. 들썩일 때마다 발목에 끔찍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박쥐들이 갑자기 땅으로 투두둑 떨어진다. 정적과 고요. 오블로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 하지만 코는 뭔가를 맡는다. 오블로가 가장 싫어하는 하수구 냄새다. 바닥에는 막 변태한 쥐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잔뜩 젖어 털이 눅눅한 쥐들이 빠른 속도로 침대 다리를 타고 오른다. 허벅지 위로 올라선 생쥐의 까맣고 작은 눈동자가 오블로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본다. 오블로의 동공이 바짝 조여진다. 쥐들이 전력으로 질주하며 입으로 파고든다. 오블로는 이빨을 딱딱딱 부딪치며 쥐의 침입에 저항한다. 날카롭고 긴 생쥐의 꼬리의 끝이 팔뚝과 늘어진 가슴 사이에 송곳처럼 박히기 시작한다. 오블로는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는다. 오블로의 헛바닥이 동그랗게 말려 목구멍을 막고 성대는 떨리지 않는다. 벌어진 오블로의 입으로 어둠이 빨려든다. 오블로의 젖은 눈동자가 방문을 향한다. 오블로는 간절하게 스끼를 기다리며 속으로 외친다, '방문을 열어줘, 불을 켜줘, 제발'

2.

스끼는 지금 기분이 나쁘다. 귀를 만졌던 담임의 손가락에 묻은 땀이 축축했다.

아들 같고 예뻐서 그러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스끼는 속눈썹이 길고 얼굴이 예뻐다. 멍게처럼 붉고 까무잡잡한 친구들의 얼굴에 비하면 유독 돋보이는 얼굴이었다. 담임은 다른 친구들보다 스끼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키고 관심도 많이 보였다. 스끼는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침묵이 담임을 얼마나 조급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다. 그때마다 담임은 스끼에게 이런저런 변명들을 늘어놓았다. 사제지간이 얼마나 중요한 인연인지에 대해서, 누군가를 오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누나의 안부를 물으며 티브이에서 봤다는 식의 동정어린 목소리, 스끼의 이름을 부르며 재미있지도 않은 농담을 하는 어색한 웃음. 스끼는 담임의 손길을 몸으로 느끼는 것 보다 담임의 말을 듣는 것이 더욱 수치스럽고 괴로웠다. 담임이 무안하지 않도록 스끼는 밝게 웃는다.

스끼의 발걸음이 도서관을 향한다. 익숙한 동선을 타고 러시아 문학이 있는 책장 앞에 선 스끼의 눈동자가 반짝인다. 스끼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을 만지듯 책을 스치고 지나가다 멈춰 선다.

마야 꼬프스끼

스끼는 작가의 이름을 소리내 읽는다. 몇 번을 되뇌다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입술을 꼼짝꼼짝 거린다.

마야 꼬프스끼, 마야 꼬프스끼

스끼의 붉게 상기됐던 얼굴이 조금씩 하얘진다. 밝아진 스끼의 얼굴이 막 물을 묻히고 나온 듯, 맑아 보인다.

*

스끼는 스스로를 스끼라고 부르기로 했다. 스끼는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를 잊을 수 없었다. <고독한 예술가들의 땅, 러시아> 끝없이 펼쳐진 시베리아, 그 황량한 땅을 홀로 건너는 횡단열차. 하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눈동자는 파랗고 그 속이 투명했다. 스끼는 그 얼굴들이 왠지 비현실적으로 보였으며 동시에 아름답게 보였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춤추며 노래했고, 곳곳에서 시를 낭독하고 책을 읽었다. 작은 마을에 서있는 위대한 작가들의 동상은 그 모습이 늠름해보였다. 그들은 문학을 사랑했고 작가들을 존경했다. 러시아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는 강하고 날카로웠지만 부드러운 바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바람소리처럼 들리던 스끼, 스끼, 스끼, 스끼.

스끼는 검은 매직으로 교과서와 노트에 커다랗게 ‘스끼’라고 적어 넣었다. 스끼는 친구들이 싫었다. 하는 짓이 유치하고 저능해 보였다. 하루 종일 만화책을 돌려보고, 여자연예인들의 가슴에 집착하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은 언제나 고역이었다. 친구들은 도스토예프스끼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도 몰랐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욕이라고 생각하며 스끼의 떡살을 잡으려 했다. ‘저급한 녀석들’ 스끼는 들리지 않게 중얼거리며 친구들을 외면했다. 친구들도 스끼의 노트와 교과서를 보고 스끼를 ‘스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개 스끼, 시팔 스끼, 호로 스끼, 좃같은 스끼, 호모 같은 스끼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도스토예프스끼를 발굴한 사람은 벨린스끼였어. 러시아의 대 문호가 춥고 좁은 자취방에서 빛도 없이 잠겨 있을 때,

벨린스끼가 직접 도스토예프스끼를 찾아갔지. 그 당시 벨린스끼는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평가였어. 무명의 도스토예프스끼를 화려하게 러시아 문단에 알린 후, 도스토예프스끼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등,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어.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에는 스키라는 이름이 들어가. 내 이름에는 그런 위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까라... 뭐? 좇 까라 그래!! 아주 유식해서 좋겠다. 이 씨팔 스키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상록수나 광장 같은 한국소설 대부분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거야. 러시아의 미래파들은 실제로.....

꺼져!! 씨팔.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스끼는 스키대로,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서로를 무시했다. 스키는 주로 혼자 있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가끔은 교무실이나 휴게실로 자신을 불러주는 담임이 고마울 때도 있었다. 쉬는 시간마다, 담임의 말을 들어야 할 때 마다, 저능한 친구들의 입에서 ‘스끼’라는 단어가 저속하게 사용될 때 마다 스키는 오블로를 생각했다.

*

오블로의 방문이 열린다. 빛을 등지고 선 스키의 실루엣이 검다. 스키가 불을 켜자 형광등 아래 오블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스키의 미간이 잠깐 좁아진다. 오블로의 배에는 특별하게 제작된 커다란 목욕타월이 덮여 있다. 목욕타월 양 귀퉁이에 매달린 줄은 오블로의 어깨와 목에 걸쳐있다. 비대한 아이가 턱받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전신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대에 오른 환자처럼 오블로는 무력해 보인다. 오블로는 형광불빛에 눈이 부셔 쉽게 눈을 뜨지 못한다. 스키의 책

가방이 붉은 카펫위에 던져진다. 한동안 눈을 뜨지 못한 오블로의 숨소리가 조금씩 낮아진다.

누나, 오늘은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스끼는 냉장고문을 연다. 갇혀 있던 냉기가 붉은 카펫 위로 쏟아진다. 냉장고 안에는 각종 견과류와 통조림, 화학 약품처럼 거대한 크기의 우유가 빼곡하게 차 있다. 커다란 크기의 검붉은 햄들은 날카로운 갈고리에 걸려 있는 정육점의 살코기 같다. 스끼는 속이 깊은 그릇을 가져온다. 표면에는 우유가 굳어 비듬처럼 엉겨 붉은 자국위로 땅콩껍질이 붙어 있다. 스끼는 그릇에 우유를 반통쯤 붓는다. 우유 속으로 땅콩과 건포도, 마른 바나나가 들어 있는 견과류를 쏟아 넣는다. 통조림을 깬다. 콩이 젤리처럼 엉겨 붙어 있다. 탁탁 털어 넣다가 통까지 우유 속에 빠진다. 스끼는 커다란 햄을 칼로 반 토막 낸다. 오블로는 얼굴을 돌려 말없이 스끼를 쳐다본다. 그릇속의 우유는 죽처럼 걸쭉해진다. 스끼는 오블로의 곁에 그릇을 가져다 댈다. 오블로가 손을 뻗는다. 오블로의 손이 그릇에 조금 못 미친다. 그릇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오블로의 팔이 돼지의 잘린 뒷다리처럼 보인다. 스끼는 오블로가 손으로 그릇을 만질 수 있는 거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 스끼는 잠시 오블로의 더듬거리는 손짓을 바라본다. 스끼는 가볍게 오블로의 옆구리를 발로 건드린다. 검붉은 피멍이 수두처럼 퍼져있는 오블로의 옆구리 살이 흔들린다. 스끼는 오블로의 팔뚝과 허벅지의 멍을 말없이 내려다본다. 스끼의 턱 근육이 딱 조여진다. 오블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누나가 왜 오블로인지 알지? 내가 말해줬잖아. 기억 나지?

스끼는 발끝으로 그릇을 민다. 그릇 속의 걸쭉한 우유가 몇 번 출렁거린다. 스끼는 침대 밑의 손잡이를 잡고 돌린다. 오블로의 상반신이 조금씩 위로 올라온다. 스끼가 손잡이를 돌릴 때마다 침대에서는 거칠게 쇠소리가 들린다. 오블로의 상반신이 45도쯤 올라오자 스끼는 손잡이를

놓는다. 오블로의 살들이 심하게 겹쳐지고 오블로의 숨이 더욱 거칠어진다.

나,참..... 기억이 또 안나나보네. 곤차로프라는 사람이 『오블로모프』라는 작품을 썼다고 했잖아.

스끼는 오블로의 가랑이 사이에 그릇을 올려놓는다. 오블로는 아직 그릇에 손대지 않고 스끼의 눈치를 살핀다.

오블로모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게으르고, 무감각하고, 열정이 없고, 심지어 슬리퍼에 발가락을 집어넣는 것도 귀찮아서 하인들에게 먹을 것과 똥, 오줌까지 받게 했어. 숨 쉬는 것조차 귀찮았을지도 몰라. 지금 누나처럼 말야.

스끼는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질 때마다 힘을 주어 손바닥으로 벽을 친다. 오블로는 먹이통을 꺼안은 곰처럼 미련스럽게 가만히 있다. 반응이 없는 오블로를 보고 스끼는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낀다. 모래언덕처럼 견고한 오블로의 목을 발로 걷어차고 싶다고 생각한 스끼는 엄지발가락에 잔뜩 힘을 준다. 스끼는 벽에 걸려 있는 작은 국자를 들어 그릇에 던져 넣는다. 오블로가 먹기 시작한다. 스끼의 눈치를 보던 오블로의 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스끼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에 딱 막히는 것을 느낀다. 감정이 뒤섞인다. 화가 나는 것인지, 슬픈 것인지 분간하기 힘든 스끼는 방을 나와 문을 닫는다. 오블로의 출렁거리는 살의 감촉이 스끼의 손바닥에 남아 자꾸만 화끈 거린다. 스끼는 허벅지에 손바닥을 닦아 낸다. 달힌 방문 틈으로 형광등의 흰빛과 우유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3.

스끼는 거실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등을 본다.

물 빠진 쥐색 양복이 주름져 있다. 최근 들어 더욱더 전화기에 매달려 있는 아버지를 보며 스끼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명명한 또 다른 이름, ‘꼬프’를 생각한다.

체호프의 소설 『관리의 죽음』에서 나오는 말단 관리 ‘체르바꼬프’, 그는 어느 날 극장에서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앞좌석의 상사 머리에 침을 튀기고 말았다. 상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체르바꼬프’는 그 실수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분명 상사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했다. 누구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지만 체르바꼬프는 자책감속에 갈등하다가 결국 강박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만다. ‘체르바꼬프’는 소심하고 작은 인간의 전형이었다.

꼬프, 스끼는 아버지의 등을 향해 경멸 하듯 말을 내뱉으려다 조용히 되삼킨다. 꼬프라는 단어가 주는 조잡하고 상스러운 어감이 유치한 아버지의 본명보다 더 어울렸다. 아버지가 전화기를 입에 대고 누군가에게 사정하는 모습이 스끼의 눈에는 죽은 나무에 붙어있는 축축한 버섯처럼 보인다. 스끼는 말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들어간다.

*

꼬프는 당구장을 운영했다. 당구장은 가난한 연립 주택가가 모여 있는 허름한 상가 3층에 위치해 있다. 2층에 있는 개척교회는 새벽마다 당구장을 없애고 교육관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고, 4층에 있는 태권도장에서는 하루 종일 아이들이 고향을 질러댔다. 다이가 4대 밖에 없는 당구장은 초라했다. 미적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명은 입구가 너무 밝고 안쪽은 너무 어두웠다. 벽에 걸어 놓은 사진속의 서양여자들의

성기와 가슴은 구멍이 뚫려 검게 삭아가고 있었다. 오블로의 모습이 방송에 나가고 난 후, 꼬프는 변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이 들어왔고 아이들에게서는 편지가 왔다. 심지어 오블로의 엄마를 안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꼬프의 무능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오블로의 엄마가 돌아올 리 없었다. 넉넉하게 벌지 못해서 오블로를 치료해주지는 못했어도 꼬프는 오블로의 건강과 먹을 것을 가장 먼저 챙겼었다. 가끔은 오블로가 좋아하는 꼬프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사정이 달라졌다. 꽤 유명한 식품회사에서 오블로를 돕고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오블로가 먹을 음식을 3년 동안 후원해준다고 했고, 후원계좌에는 필요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꼬프는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가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점차 그 편리함과 달콤함에 빠져 들었다. 꼬프는 당구장 운영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그 곳에서 동네 한량들을 불러 도박판을 벌였다.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꼬프는 도박에도 재능이 없었다. 통장의 돈을 모두 도박으로 날렸다. 돈을 잃은 꼬프는 자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고 잠자는 스끼를 깨워 집안 걱정을 늘어놓다가 끝내 미안하다며 아이처럼 울었다. 간혹 욕설을 퍼붓기도 했지만 이내 사과하곤 했다. 그 때마다 스끼는 무력한 꼬프를 증오했다. 후원금은 금세 그쳤다. 꼬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잔고를 확인하고 욕을 하고, 다시 확인하고 욕을 하는 시간을 되풀이 했다. 세상은 오블로의 사연을 잊었고 더 이상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오블로보다 독특한 사람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다. 게다가 오블로처럼 살이 많이 찐 것은 그것이 병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신기하고 동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 자기 관리의 실패로 여겨졌다.

일단 한번만 와 보라니까요. 그때보다 더 커졌어요. 어쨌면 정말 기

네스북에 오를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살이 많이 찐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렸다니까! 아이 씨팔. 와서 한번 찍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여보세요? 여보.. 야! 야!! 이 개새끼야. 씨팔 놈들이 와서 한번만 보라니까.

꼬프는 오블로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스끼를 부른다.

장미 밥 챙겨줬니?

아니요, 아직.....

방송국에서 또 올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많이 먹여. 애써 찍으려 왔는데 저번보다는 더 불만 해야지 않겠어?

꼬프는 전화기를 몇 번 바닥에 때리더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스끼는 꼬프가 나간 현관을 한참동안 바라보며 빈주먹을 꼭 비틀어 준다.

*

오블로는 잠들어있다. 스끼의 눈에는 들썩거리며 움직이는 오블로의 배가 오늘따라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늘 누워만 있는데도 무척 피로한 모습이다. 스끼는 방 안 가득 고여 있는 오블로의 똥냄새를 맡는다. 아무리 맡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에 스끼는 인상을 쓴다. 오블로에게 밥을 먹이고 똥 오줌통을 갈아온 시간이 2년이다. 그 전에 오블로는 힘겨워 하긴 했지만 조금씩 움직였고 밥도 스스로 먹을 수 있었으며, 말도 잘 했었다. 간혹 어릴 때 스끼와 함께 놀던 이야기를 하며 스끼를 즐겁게 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지 스끼로서는 알 수 없었다. 오블로가 누워 있는 허리 밑으로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지 않다. 움직이지 못하는 오블로는 침대에 누워 밥을 먹고, 그 자리에서 똥오줌을 싸다. 거대한 오블로에게 기저귀를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블로의 하반신을 지탱해주는 3 자형

철골 틈으로 빠져나온 오블로의 살이 떨어져 박힌 음식물과 함께 미어지게 박혀 있다. 오블로의 허벅지에 늘러 붙은 똥 딱지들은 바위에 붙은 따개비처럼 보인다.

누나, 내 말 들려?

오블로의 숨소리가 순간 작아진다.

왜 말을 안 해? 안 들리는 거야?

스끼는 오블로가 누워있는 침대를 걸어찬다. 오블로는 몸을 들쭉거리려 보지만 스스로 몸을 뒤집지 못한다. 스끼는 침대 밑에서 오블로의 똥통을 발로 밀어낸다. 똥과 오줌이 섞인 내용물이 죽처럼 흔들린다. 아직까지 스끼는 오블로를 볼 때마다 드는 이 불쾌감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 지겨운 짓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으로 자꾸만 몸에 열이 올랐다. 스끼는 똥통을 들고 속에 있는 것을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린다. 완전히 빨려 들지 못한 잔여물이 맑은 물속에서 천천히 맴돈다. 변기 속을 내려다보며 스끼는 중얼 거린다.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스끼는 다시 한 번 변기 물을 내린다. 스끼는 누워있는 오블로를 한참동안 내려 본다. 오블로에게 밥을 주고 싶지 않았다. 스끼는 오블로의 방에서 나온다.

침대가 흔들리며 삐걱 거리는 췌소리가 한동안 집안을 맴돈다.

4.

장미는 등이 아프다. 무엇인가 살고 있다. 장미는 그렇게 믿었다. 등이 아플 때마다 장미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자신의 피를 빨고 날카로

운 잔뿌리를 혈관 깊숙하게 퍼뜨리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뒤집어 보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아팠다.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등이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장미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그 시간을 견뎌낸다. 장미는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햇빛이 벽에서 천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본다. 햇빛은 민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기어 올라간다. 햇빛이 지나간 자리는 금세 어두워진다. 아무도 없는 빈집은 소리로 가득 찬다. 장미는 눈을 감고 소리를 듣는다. 냉장고 팬이 갑자기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거린다.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떨어진 물이 배관을 타고 흐른다. 옆집 개가 짖는 소리라든지, 아이들이 지나가며 내지르는 웃음소리 같은 것들은 장미를 기분 좋게 하는 소리들이다. 천장에는 푸른 창이 3개씩 달린 삼각형 모양의 집들이 프린팅 되어 있다. 장미는 천장을 보는 것이 두렵다. 집 속에 무엇인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밤마다 천장의 작은 집 사이로 크고 작은 거리가 만들어지고, 곧 마을이 생겨났다. 하지만 햇빛이 머무는 오후에는 천장의 집들은 수몰된 마을처럼 조용했다. 장미는 천장을 노려본다.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창문을 통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것만 같다. 어둠 속에서 푸른 눈동자를 뜨고 장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을,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이 부릅뜬 눈동자에 가득 고인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들은 불이 꺼지면 문을 열고 나와 장미를 괴롭힌다. 장미는 질끈 눈을 감는다. 장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괴물이다. 괴물에게서는 늘 술냄새가 났다. 괴물은 장미를 아프게 했다. 두려움에 떨리는 장미의 눈동자가 괴물이 사는 집을 분주하게 찾는다. 괴물이 술을 마시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장미의 호흡이 다시 거칠어진다.

*

이년 전 어둠속에서 처음으로 괴물의 존재를 느꼈을 때 장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지 못했다. 어둠속에 모든 것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곁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고 다른 이의 호흡을 느꼈고 그 속에 섞인 술냄새를 맡았다. 괴물은 꿈이 아니었다. 어둠속에서 막대기가 장미의 몸을 때렸다. 아무리 몸을 뒤척이고 비명을 질러도 막대기는 집요하게 장미의 몸을 파고들었다. 그때, 장미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발목뼈에 금이 갔다. 움직일 때마다 끔찍한 고통이 온 몸을 관통하며 지나갔다. 그 때부터 장미의 눈에는 밤마다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어둠의 옷을 껴입고 나타나 장미를 괴롭혔다. 악을 쓰고 누군가를 부르고 싶었지만 아무리 입을 벌려도 성대는 떨리지 않았다. 스끼가 들어와 불을 켤 때, 그것들은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도망갔다. 장미가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면서 스끼는 조금씩 지쳐갔다. 장미는 늘 배가 고팠다. 밤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들에게 시달릴 때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배가 고파지면 무엇인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삶에 대한 욕구를 증폭시켰다. 다시 어두워지고 있다. 천장의 집들이 하나씩 어둠속에 지워지면서 푸른 창에 불이 켜진다. 장미는 침대를 딱 움켜쥐며 스끼를 기다린다.

5.

스끼는 왕자라는 자신의 이름이 싫었다. 때문에 이름을 붙여 준 꼬프와 심지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까지 싫었다. 왕자와 장미가 사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이제껏 살아온 삶이 너무 궁핍했고 비루했다. 어릴 때는 친구들이 거지왕자라고 놀려댔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왕자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왕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천박하게 지어놓은

꼬프의 상투적인 발상을 증오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꼬프는 자신이 의식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어느 순간부터 꼬프가 술에 취해 왕자를 깨우는 날이 많아졌다. ‘우리 왕자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술 냄새를 피우며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할 때부터 왕자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안 된다.’ 속으로 수 없이 중얼거렸다. 왕자는 밤마다 술에 취해 누나의 방에 들어가는 꼬프의 눈빛이 정상이 아님을 눈치 챘다. 꼬프가 누나를 짐승처럼 대할 때마다, 도박으로 돈을 잃고 밤마다 술에 취해서 올 때마다, 왕자의 마음에는 서늘하게 날이 섰다.

앞으로 누나에게 밥을 주지 않겠어요.

갑자기 왜 그래? 조금만 있으면 방송국에서도 온다는데

누나에게 밥 주는 것도 힘들고 똥통 비워 내는 것도 이제 너무 싫어요.

조금만 참아봐. 방송국에서 한번만 더 오면 말이다.....

제발, 그만 병원으로 보내게요.

술에 취해있는 꼬프가 왕자의 어깨를 잡고 흔든다. 왕자의 몸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왕자는 꼬프보다 키가 한 뼘이나 컸다. 왕자는 고개를 돌려 꼬프를 정면으로 노려본다. 왕자보다 힘이 약한 꼬프는 왕자의 뺨을 때리려다 말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가 슬며시 웃으며 왕자의 손목을 잡는다.

왕자야.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어떻게 멀쩡하게 가족도 있는 사랑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니, 조금만 참고 있으면 곧 방송국에서 또 취재 나올 거야. 니 누나 봐라. 그때보다 훨씬 더 커졌잖아. 방송국에서 아직 누나의 크기를 못 봐서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장미 사진을 찍어서 보냈거든, 한번만 더 방송을 타면 말이다..... 이번에는 정말 큰 특종이 될 거야!!

씨팔! 니가 아버지냐!

왕자는 꼬프의 배를 발로 걷어찬다. 꼬프는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다. 왕자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간다. 장미는 어둠속에 짓눌려 이 모든 소리를 숨죽여 듣고 있다. 한참동안 꼬프는 거실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전화기를 든다. 버튼을 몇 번 누르다 말고 전화기를 내려놓은 꼬프는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병을 꺼낸다. 밤이 늦도록 왕자는 들어오지 않는다. 꼬프는 앉은 자리에서 계속 술을 마신다. 더 이상 냉장고에 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꼬프는 티브이 옆에 놓인 당구 큐대를 들고 장미의 방으로 들어간다. 꼬프는 장미의 방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는다.

6.

수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오후, 스끼가 오블로의 방으로 들어간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방에 들어온 스끼가 오블로는 낮설다. 스끼는 오블로의 똥통을 비워낸다. 냉장고를 열어 음식들을 아낌없이 그릇에 가득 담고 우유를 한통 가득 담는다. 오블로는 불어터진 입술을 움짱거리며 허겁지겁 먹는다. 스끼는 냉장고 곁에 가만히 주저앉아 음식을 먹는 오블로를 지켜본다. 목욕타월이 벌어진 틈으로 오블로의 가슴이 출렁거린다. 가슴에 붙어 있다기보다 옆구리까지 퍼져 있다고 해야 할 만큼 커다란 살덩어리. 그 위로 검은 젖꼭지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흔들린다. 걸쭉한 우유가 느릿하게 흘러내리며 목욕타월을 적신다. 스끼는 침대바퀴를 고정시키는 잠금 쇠를 풀고 침대를 거실까지 밀고 나간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침대바퀴가 바닥에 검은 자국을 그어대며 킁킁거린다. 방을 너무 오랜만에 벗어나는 오블로는 겁에 질려 침대를 손으로 꼭 잡고 목욕타월을 이빨로 앙 다문다. 침대가 화장실 문 앞에 세워진다. 스끼는 파란 플라스틱 통에 뜨거운 물을 채우고 찬 물을 섞어 물을

따뜻하게 만든다. 화장실은 금세 하얀 김으로 가득 찬다. 스끼는 오블로의 목 언저리의 살을 집어 올려 끼어 있던 줄을 빼내고, 오블로의 입에서 목욕타월을 빼낸다. 오블로의 목을 감고 있던 줄이 풀린다. 오블로가 겁에 질려 몸을 뒤척인다. 스끼는 말 없이 오블로의 허벅지를 더듬어 매여 있는 줄을 찾는다. 줄은 침대와 허벅지 사이에 끼어 꼼짝도 하지 않는다. 스끼는 가위로 줄을 잘라 낸다. 오랫동안 줄에 짓눌려있던 오블로의 허벅지에는 붉은 자국이 나있다. 모든 줄을 잘라내고 목욕타월을 걷어내자 오블로의 나체가 들어난다. 오블로의 온 몸에는 피가 응고되어 생긴 딱지들과 검은 빛이 도는 멍들이 퍼져 있고 허벅지에는 각종 오물들과 똥들이 굳어 있다. 뱃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오블로의 성기는 낡은 빗자루처럼 검고 지저분했으며 털은 거의 빠져있다. 게다가 얼마 없는 털도 물기 없이 푸석거리려 바스라질것만 같다. 오블로의 젖가슴은 가슴이라기보다는 아랫배가 두 개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젖가슴 사이 명치 쪽에는 하얗게 우유가 엉켜 붙어 있고 표면은 금이 가 있다. 조금만 길어도 꼬프가 잘라 버렸던 오블로의 머리카락은 짧고 지저분했다. 스끼는 한동안 오블로의 몸을 본다. 오블로는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에 웅웅거리며 몸을 떤다.

누나. 『오블로모프』의 결말을 말해줄까?

스끼는 따뜻한 물을 오블로의 몸에 부드럽게 끼얹는다. 오블로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팔을 흔든다. 따뜻한 물이 오블로의 몸 곳곳으로 흘러내린다. 거실바닥에 물이 고인다. 저항하던 오블로가 가만히 눈을 감는다.

오블로모프는 결혼을 했어. 비록 상대가 오블로모프보다 나이가 많았고 재혼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부인이었지. 그 부인은 오블로모프의 무력한 모습도 사랑했어. 부인의 사랑때문에 오블로모프도 조금씩 변하는 듯 했어.

스끼는 오블로의 가슴과 성기 부분에 정성스럽게 비누칠을 한다. 오블로가 가벼이 몸을 움직인다. 하얀 거품이 오블로의 몸을 뒤덮는다. 스끼는 부드러운 타월로 오블로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 낸다. 오블로의 몸에 붙어 있던 땀 딱지들과 오물들이 거품과 함께 하나 둘 떨어져 나간다. 스끼는 오블로의 몸을 힘겹게 옆으로 돌린다. 스끼는 타월을 들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 돌아누운 오블로의 등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 침대 프레임에 짓눌린 부분은 심하게 헐어 있고, 노란 고름이 가득 고인 커다란 욕창이 곳곳에 퍼져 있다. 스끼는 물을 끼얹으려다 말고 다시 오블로를 바르게 눕혔다. 스끼는 몇 번이나 침을 삼킨다. 침은 너무도 뜨겁다

하지만..... 오블로모프는 결국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부인의 헌신적인 사랑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지. 너무 깊이 젖어버린 무력함이 오블로모프를 침전시키고 만 거야.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블로모프의 모습을 보며 결국 부인은 포기를 하고 오블로모프를 떠나. 부인은 집을 나서며 오블로모프에게 편지를 한통 남겼어.

스끼는 맑은 물로 오블로의 몸을 감싸고 있던 거품을 씻어낸다. 오블로의 몸은 조금씩 깨끗해지고, 검붉은 빛이 돌던 멍들이 보랏빛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어. 당신의 아내로 정말 당신을 사랑해보려고 노력했었다는 부인의 편지를 받은 오블로모프는 지독한 슬픔 속에 빠져 들게 되지.

스끼는 깨끗해진 오블로의 몸을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낸다. 그리고 새로 사온 커다랗고 노란 목욕타월을 오블로의 몸에 걸친다. 타월에는 귀여운 병아리 한 마리가 노래를 부르는 그림이 프린팅 되어 있다. 노란 목욕타월을 덮은 오블로는 모처럼 활짝 웃는다. 오블로는 손가

락으로 자꾸만 침대를 통통 때리면서 몸을 들썩인다. 거실에 물이 가득 고여 늪처럼 변했다. 스끼의 눈에는 오블로가 누워있는 침대가 물 위에 떠있는 섬처럼 보인다.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만 같아 스끼는 오블로의 침대를 방으로 다시 집어넣는다. 스끼가 걸을 때마다 절벽 거리며 비누거품이 부서진다.

누나. 결국 오블로모프는 침대에 누워 부인이 남긴 편지를 안고 죽어. 하인도 가족도 모두 오블로모프를 떠나 버린 쓸쓸한 집에서 말이야. 그런데, 누나. 오블로모프는 죽을 때 어땠을까? 죽는 것이 슬펐을까? 아니면 이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했을까? 난 그것이 궁금해..... 어떤 죽음은 차라리 삶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블로의 방은 비누향기로 가득 찬다. 스끼는 들떠있는 오블로의 눈을 바라보다 마른기침을 몇 번 뱉어낸다. 자꾸만 뜨거운 것이 올라와 스끼의 목이 잠긴다. 밝은 표정의 오블로는 금방이라도 옛날처럼 농담을 하며 장난을 칠 것처럼 보인다. 전화가 온다. 빈 거실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스끼는 오블로의 방에서 나온다.

김행복씨 택이죠?

네. 누구시죠?

네, 저는 ‘특종! 불가사의’의 기획을 맡고 있는 피디입니다. 혹시 김행복씨 되십니까?

아니요, 지금 집에 안 계신데요.

아, 저번에 전화로 김행복씨가 저희 쪽으로 제보를 몇 번 주셨었어요. 촬영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연락을 못 드렸다가 이렇게 오늘 연락드리네요. 혹시 김행복씨와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반가워요. 그런데 혹시 김장미씨 몸무게가 지금 얼마쯤 나간다고 하셨죠? 이번에 보내주신 사진 말인데요. 아 정말 놀랍더

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김장미씨 사연을 의학다큐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

여보세요? 여보세요?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김행복씨, 김장미씨 다 죽었다고요!!

스끼는 전화를 끊는다. 스끼의 손가락 사이로 전화선이 어지럽게 꼬여든다. 전화선을 붙들고 있는 스끼의 손이 떨린다. 스끼는 주먹을 꼭 움켜쥐고 물에 잠긴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달려간다. 주방에서 날카로운 쇠소리가 스친다. 스끼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오블로의 방에서 통,통,통, 침대 프레임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향긋한 비누 냄새가 퍼진다.

*

오블로는 오늘, 자신을 괴롭혔던 존재들과 처음으로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목욕을 한 이후에 이상하게도 어둠이 무섭지 않았다. 오늘은 지네도 없고, 생쥐도 없었고, 밤마다 가슴 속 깊이 박히던 송곳도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어둠은 바람이 되어 시원해진 오블로의 가랑이 사이를 간질였고, 꽃이 되어 오블로의 몸 곳곳으로 피었다. 등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오블로를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 속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고여 있는 피 속을 뚫고 열린 작고 빨간 열매가 몸 곳곳에서 좋은 향기를 만들어 내는 것만 같아,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또 배가 고팠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블로의 방에 괴물이 들어왔다. 괴물은 어둠속에서 느릿한 걸음으로 조

금씩 다가왔다. 오블로는 괴물이 좀 달라졌다고 느꼈다.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지만 미세하게 피 냄새가 났다. 괴물은 오블로의 발목과 허벅지 근처에 손을 짚었다. 오블로는 가벼운 통증을 느꼈지만 이내 그 손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도리어 부드럽다는 것을 느꼈다. 괴물은 곳곳에 고여 있던 오블로의 멍들을 만져 주었다. 투둑, 투둑 붉은 열매가 오블로의 몸 안으로 떨어졌다. 괴물은 오블로의 입에 큰 빵을 집어넣었다. 배가 고팠던 오블로는 빵을 먹었다. 자꾸만 씹어 삼켜도 줄어들지 않은 빵은 점점 커져서 오블로의 입을 막고 코를 막았다. 오블로는 숨이 막혔다. 괴물은 가만히 오블로의 이마를 짚었다. 오블로는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블로의 이마를 짚은 손이 부드럽게 오블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오블로는 갑자기 스끼가 보고 싶어졌다. 스끼가 자신의 몸을 씻어내며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천장에 붙어 있던 집들의 창에 하나 둘, 불이 꺼진다. 고요한 어둠이 오블로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푸른 새벽, 괴물은 방을 나가지 않고 오블로의 곁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4.2. 「백」

어두워진다. 21은 움직임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본다. 남쪽의 먼 바다로부터 먹구름이 염전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을 자극해 눈꺼풀이 감긴다. 21은 눈 주위를 손바닥으로 비비고 귀를 문지른다. 땀이 손바닥에 흥건하게 묻어난다. 비가, 오겠군. 21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거린다. 손에 쥐고 있던 끌개를 고쳐 쥐고 바닥을 힘껏 밀어내는 21의 걸음이 왼쪽으로 기운다. 하얀 소금 결정이 쓰윽 — 소리를 내며 한쪽으로 밀리며 쌓인다. 끌개가 지나간 자리는

거울처럼 맑다.

바람이 거세진다. 반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증발지에 있는 일꾼들의 행동이 빨라진다. 반장5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보다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 고개를 틀며 욱설을 뱉어낸다. 반장5는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 올린 가래를 소리 나게 뱉는다. 인내심이 없고 다혈질인 반장5, 그의 흥분으로 일꾼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창고에 들어가야 할 소금이 곳곳에, 너무도 많이 쌓여 있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없었다. 반장12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확인했다. 하지만 지금, 구름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하늘은 어지럽다. 일꾼들의 행동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장들의 소리는 악에 가까워지고, 눈빛은 고양이과 동물의 것처럼 날카롭게 변한다.

기어이, 비가, 내린다. 툭, 툭, 투두투둑, 쌓여 있던 소금 더미가 파도 앞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반장들이 일꾼들을 공격한다. 9는 끌개질을 멈추고 구타를 시작한 반장들을 쳐다본다. 그들의 주먹질은 아이를 향해 달려드는 미친개의 이빨처럼 집요한 구석이 있다. 9는 시선을 옮겨 허물어지는 소금 더미를 쳐다본다. 그 어떤 기대도 욕망도 없는 무심한 눈빛, 9는 들리지 않게 한숨을 내쉬고 숨을 참는다. 반장10이 9의 손에서 끌개를 빼앗고 등을 내려찍는다. 9는 아무런 저항 없이 얼굴부터 바닥에 폭 묻고 쓰러진다. 증발지의 잔물에 얼굴을 반쯤 박은 9의 시선은 비를 맞고 선 채로 이쪽을 향해 서 있는 벽에 닿아 있다.

막사 안에 일꾼들이 모로 누워 있다. 짧은 머리와 물 빠진 회색 티셔츠,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PEACE'라는 흰색 글씨가 인쇄된 갈색 트

레이닝북. 그들은 언뜻 보기에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아 보인다. 갓 부화한 새 새끼처럼 젖어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몸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 아몰지 않은 멍 위로 새롭게 피멍이 생겨난 22, 눈두덩이 완전히 부어 눈이 떠지지 않는 17, 입술이 심하게 찢겨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18, 어금니 외에는 이빨이 없는 9. 그들의 신경은 더 이상 자극과 통증을 감각할 수 없을 만큼 무뎠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만큼은 편해 보인다. 한마디도 오가지 않는 막사 안. 무너진 지붕 틈새로 떨어진 빗방울이 바닥에 닿아 부서진다. 한 달하고도 삼 일 만에 처음으로 갖는 휴식이다. 그동안 평균 열네 시간을 쉼 없이 일했다. 긴장이 풀린 일꾼들의 몸이 점액질처럼 침상에 끈끈하게 달라붙는다. 9의 옆자리에 누운 21이 몸을 뒤척이며 들리지 않게 한숨을 나누어 쉬고 있다. 평소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21이었다. 9의 손바닥이 21의 가슴을 가만히 누른다. 9의 손가락은 느리고 부드럽게 21의 가슴을 토닥인다. 21의 한숨이 잦아들고 호흡이 일정해진다. 막사의 일꾼들은 모두 꿈조차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든다. 목덜미에 새겨진 숫자들이 해면 위 부표처럼 느릿느릿 흔들린다.

*

공원 벤치에 누워만 있던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그저’라는 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었다. 남자는 그저 누워만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도 한나절을 보낼 수 있었고, 초점 없는 멍한 시선으로 무엇이든지 오랫동안 볼 수 있었다. 보고 있다, 기 보다 차라리 뜨고 있다, 고 해야 좋을 눈이었다. 비둘기들의 배설물이 어깨에 쌓

여도 개의치 않았고, 공원을 뒹굴던 파자 봉지가 날아와 남자의 얼굴을 덮어도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는 벤치 위에 놓인 정물 같았다. 남자와 무관하게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태양은 정해진 궤도를 변함없이 움직였다.

어느 날, 남자에게 누군가 찾아왔다. 단정한 하늘색 투피스차림에 동그란 안경을 쓰고 핑크색 립스틱을 칠한 40대 여자였다. 여자는 남자에게 알은체를 하며 말을 걸었다. 남자는 처음 보는 여자였다. 여자는 시종일관 남자에게 ‘선생님’이라는 경어를 붙이며 예의바르게 행동했다. 중요한 말인데 좀 길어질 것이라며 여자는 남자를 여관에 데려갔다. 남자의 손에는 여자가 쥐여준 명함이 들려 있었다. 곁이 만져지는 재질의 종이는 코팅되어 있었고, 인디언 블루 빛 배경은 명함을 한층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총무 한연주. 명함은 여자의 정체를 그렇게 밝히고 있었다. 남자의 눈에 유독 ‘이웃’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도드라지게 보였다.

지금 법이 바뀌어 국가에서 개개인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 다시 시작하셔야죠.

남자는 여자의 말은 잘 들리지도 않았다. 너무도 오랜만에 침대에 눕혀보는 등이었다. 오랜 벤치 생활로 등 근육은 딱딱해졌고 남들은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그 존재조차 모르는 꼬리뼈는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부어 있었다. 남자는 엉덩이 부분이 무엇인가에 의해 조금만 스쳐도 밑으로 송곳이 들어오는 것처럼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매트리스는 말랑말랑했다. 통증 없는 엉덩이를 매트리스에 비비며 남자는 편

안함을 느꼈다. 여자는 남자의 방에 끼니마다 밥을 시켜주며 말을 걸었다. 주로 질문이었고 남자는 대답했다. 여자는 매 시간 메뉴를 바꾸는 섬세함도 가지고 있었다. 여자는 이틀째 되는 날, 남자에게서 신분증과 명의를 빌렸다. 남자가 여관에 들어온 삼 일째 되는 날, 여자는 남자에게 오십만 원을 내밀었다.

국가에서 주는 첫번째 지원금이네요.

남자는 현금을 손에 들고 여자에게 인사를 했다. 고마운 그녀에게 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했어야 했는데, 남자는 두고두고 그것을 아쉬워했다.

남자는 특별히 사치스럽게 산 것도 아닌데 돈을 다 써버렸다. 남들처럼 바람이 불지 않는 실내에서 잠을 청하는 것, 때마다 끼니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동전 몇 개로 뽑아 마시는 자판기 밀크커피.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 요구하는 돈은 남자에게 버거웠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조금만 있으면 여자가 찾아와 또 오십만 원을 줄 것이다. 그것은 나의 권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십만 원이라도 아껴 적금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남자는 빵 봉지를 뜯었다. 고소한 버터 냄새가 남자의 후각을 자극했고 그것은 남자를 쉽게 행복하게 만들었다.

남자 앞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청년이 다가와 섰다. 청년은 한참 동안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눈을 맞추기 힘든 각도였다. 남자는 고개를 젓혀 선글라스를 쳐다봤다. 선글라스 뒤에 숨은 위협적인 눈빛, 남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청년도 남자의 손에 명함을 쥐어주었다. 청년의 손가락이 강제로 남

자의 손가락을 폈다. 여자의 명함과는 달랐다. 하얀 바탕에 검정색 글씨. **한국신용협회 과장 박종식**. 표면은 거칠게 잘려 있어 펄프 가루가 손가락에 묻었다. 청년은 남자에게 몇 가지를 말했다. 청년의 말에 의하면 남자는 얼마 전에 카드를 발급했고 그 카드를 통해 삼천만원을 대출 받았다 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카드..... 대출..... 이라니요. 가진 돈은 없어도 남의 돈은 빌려본 적 없습니다.

청년은 남자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의 내용은 복잡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분명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직접 서명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이다. 청년의 주먹이 당장이라도 뺨어나갈 것 같은 에너지를 모으고 남자의 얼굴을 향해 장전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 친절했던 여자의 미소가 떠올라 남자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청년은 인내심이 약해 보였다. 청년은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매우 힘들었다며 얼굴 근육을 위협적으로 꿈틀거렸다.

이제 어떡할 거요?

남자는 바닥을 내려 보며 침묵했고 청년은 남자의 정수리를 노려보며 침묵했다. 그렇게 오후의 시간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것은 청년이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느릿하게 말하는 청년의 얼굴은 안면 근육이 미묘하게 당겨지며 감정을 분간할 수 없는 어색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청년의 말을 듣고 남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앞에 서

있는 청년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다. 어색하게 몸에 달라붙는 싸구려 슈트는 청년의 야만성을 전혀 감추지 못했다. 눈치는 노숙을 통해 터득한 남자의 유일한 생존 감각이었다. 남자는 청년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다. 남자는 1년 동안 월 오십에 청년과 계약했다. 그래도 숙식은 해결되고 작업 환경이 좋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청년은 남자의 손목을 움켜잡고 흔들며 말했다.

참, 아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요. 특별수당을 얹어 줄 테니까.

남자는 점박이 영감과 함께 청년의 봉고차에 올라탔다. 영감은 남자처럼 노숙을 하기는 했지만 힘이 생기면 동냥을 하러 다니거나 인력 소개소에 나가 일을 구하는 등 제법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코 한가운데 큰 점이 있어서 평소에 점박이 영감으로 불렸다. 봉고차에는 남자와 영감 말고도 두 명이나 더 있었는데 눈빛이 불안하고 행색이 초라한 것으로 미루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인 것 같았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현장에서 우리 써준대?

잘 몰라요. 별로 안 힘들고, 작업 환경도 좋대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창밖을 쳐다봤다. 청년은 운전대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휘파람을 불었다. 봉고차는 시내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국도로 향했다.

*

21은 면도를 한다. 일회용 면도기의 날은 녹슬고 무디다. 면도날이 턱밑을 지날 때마다 미간을 좁히며 인상을 찌푸린다. 하지만 21은 면도를 멈추지 않는다. 아니, 면도를 멈출 수 없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수업

을 없앨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푸석하고 윤기 없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만든다. 21은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거울에 비친 얼굴을 살펴보며 최대한 눈을 크게 치켜뜬다. 21은 지금의 표정이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새벽, 막사 앞에 일꾼들이 열을 맞추어 선다. 일꾼들 앞에는 여느 때처럼 네 개의 벽이 위태롭게 서 있다. 벽을 발견한 일꾼들의 표정이 갑자기 경직된다. 세 명의 반장들이 일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일꾼들의 몸 상태를 살핀다. 일꾼들은 굽은 허리를 똑바로 펴고 최대한 의욕적인 표정을 짓는다.

앞으로 가.

반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일꾼들이 일사분란하게 걷기 시작한다. 순간 일꾼들의 어깨가 왼쪽으로 휘청거린다. 21은 현기증을 느꼈지만 입안의 살점을 어금니로 꽉 깨물며 눈을 크게 뜬다. 한 일꾼이 바닥에 쓰러진다. 일꾼의 목에는 23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 2와 3은 열이 맞지 않고 각 숫자의 위치가 다르지 않아 얼핏 보면 SW처럼 보인다. 23은 숫자 위에 아직까지도 핏물이 맺힐 만큼 최근에 들어온 일꾼이다. 23은 들어올 때부터 몸에 열이 있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다. 어제는 새벽에 잠꼬대를 해서 옆자리의 14가 23의 입속에 급히 손가락을 집어 넣었었다. 말하는 것은 일꾼들에게 금지된 법 중 하나였다. 쓰러진 23의 붉은 얼굴을 보며 21은 스읍 —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23, 열외!! 나머지는 소금밭으로 출발한다. 안개가 걷히기 전에 최대한 많이 굶어야 한다. 늑장 부리거나 머리 쓰는 새끼들은 아주 이참에 주저앉힐 테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뼈 빠지게 일해라. 출발!

23을 제외한 열두 명의 일꾼들이 소금 창고로 향한다. 모두 형편없

이 마른 몸에 구부정하게 허리가 휘었다. 왼쪽으로 절름거리는 일꾼들의 기우똥한 모습이 사막에 버려진 한 무리의 펭귄들 같다. 뒤에서 따라오는 반장5의 소리가 일꾼들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빨리 움직여! 병신 새끼들아.

9가 21을 향해 왼쪽 눈을 찡긋거린다. 21은 슬며시 뒤를 돌아보며 반장5를 살핀다. 반장5와 12는 한참 뒤쳐져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고 있다. 9는 갑자기 괴상한 표정을 짓는다. 9의 표정은 변검처럼 자주 바뀐다. 기묘하게 희극적인 표정이다. 9는 새끼손가락을 코에 집어넣었다가 입으로 넣는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듯, 행복한 표정이다. 그리고 다시 왼쪽 귓구멍에 집어넣더니 손톱만 한 귓밥을 끄집어낸다. 21은 웃, 소리 없이 웃는다. 9도 입을 벌리고 소리 내지 않고 웃는다. 앞 이빨이 하나도 없는 9의 입 안이 우물처럼 검다. 9는 일꾼들 중 유일한 한 자리 숫자 일꾼이다. 21은 9가 언제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몇 살이나 되었을지, 잠깐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 개새끼 5를 제외한 1 2 3 4 6 7 8의 행방이 갑자기 궁금해진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외로 비튼다. 궁금해 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21은 창고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막사에 들어온 날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했던 다짐을 곱씹었다. 느리고 눅눅한 바람 속에 짙내가 가득하다. 염전 전체에 가득한 안개, 오늘은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21은 주먹을 꼭 말아쥐고 팔뚝에 힘을 준다. 아스팔트에 끼얹은 한 바가지 물처럼 흔적만 남은 연약한 근육의 결이 잠깐 뒤틀리다 곧 사라진다. 사만 제곱미터의 소금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

굴도. 남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섬이었다. 이름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 남자를 보고 청년은 거칠게 선글라스를 벗겨내며 말했다.

이 나라 섬이 삼천 개가 넘어. 그걸 일일이 다 알면 네가 여기 있겠어?

청년의 왼쪽 눈썹 위에는 새끼손가락 굵기의 칼자국이 나 있었다. 부릅뜬 흰자위에는 혈관이 뒤덮고 있어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흘릴 것 같았다. 게다가 왼쪽 목덜미에는 10이라는 숫자가 화상을 입은 것 같은 흉터로 남아 있었다. 남자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남자가 돈을 더 받기 위해 데려온 영감은 단체관광이라도 가는 것처럼 배의 갑판에 걸터앉아 부서지는 바다 거품을 보며 좋아했다. 남자도 영감을 따라 망망한 바다에 불안한 눈빛을 던졌지만 낡은 운동화 속의 발가락은 오글오글 말려들고 있었다.

선창에 내린 남자와 영감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파란색 화물용 트럭에 옮겨 태워졌다. 청년은 불투명 비닐천막 속에 사람들을 태우고 천막 문을 닫았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소금 창고였다. 남자는 트럭이 왔던 길을 돌아봤지만 멋대로 자란 느티나무만 있을 뿐 위치를 추측할 만한 어떤 지형지물도 없었다. 창고는 황량했다. 단지 창고와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냉동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뿐이었다. 청년은 사람들을 창고에 일렬로 세웠다. 창고 안에서 한 사내가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고도비만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우둔한 몸집과 짧은 머리카락의 사내는 통이 넓은 면바지와 낚시용 조끼밖에 입지 않아 움직일 때마다 유두가 함몰된 가슴이 덜렁거렸다. 자신을 염전의 주인이라 밝힌 사내는 대뜸 영감의 복부를 걷어찼다. 억, 하는 소리를 내고 영

감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런 늑탕이를 데리고 와서 어찌자는 거야?

사내는 쓰러진 점박이 영감의 뒤통수에 침을 뱉었다. 뱀의 허물처럼 하얗고 매마른 침이었다. 사내는 소리쳤다.

일하러 온 새끼들이! 왜 이리 비리비리해!!

정신을 차렸을 때 남자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추위였다. 뒤이어 오른쪽 광대뼈로부터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남자는 신음을 내뿜으며 천천히 자신의 몸을 살폈다. 벌거벗겨져 있었다. 손목과 발목은 아플 정도로 딱 묶여 있었다.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를 번갈아 바닥에 대며 힘을 주며 일어서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순간, 당혹감과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와 남자를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죽고 싶은 마음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지독한 느낌, 그것은 남자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는 끔찍한 감정이었다.

사내는 가죽이 찢긴 낡은 소파에 앉아 남자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 약 오 미터의 간격으로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남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묶여 있었다. 몇몇은 우는지 콧물을 삼키는 소리를 냈고,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갈라진 소리 틈으로 무력하게 느껴지는 떨림은 남자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사내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구겨진 인조 피혁이 퍼지는 소리와 낡은 스프링 소리가 창고에 웅웅 울렸다.

너희들이 정신없이 자는 동안에 한 가지 서류를 더 만들었다. 너희들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그냥 찍었는데 별 상관은 없겠지?

남자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묻은 붉은 인주를 쳐다봤다.

있잖아. 앞으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 일이라는 것이 힘들기 마련이거든. 그런데 너희처럼 쓰레기 같은 녀석들은 특히 일하기 싫어하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런 말 들어봤지? 먹으려면 일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법이 있어. 그 법을 너희들이 성실하게 지키겠다는 내용이야. 이 서류는.

사내는 종이를 부채처럼 짝 펴서 흔들었다.

누, 누구야 넌? 난, 안 해. 날 보내줘!

목소리의 주인은 짐박이 영감이었다. 남자는 속으로 소리쳤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요.

창고 벽에 기대고 있던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창고는 영감이 내지르는 비명 소리와 사람의 배를 가격할 때 들리고 둔탁하고 물렁한 소리로 시끄러워졌다. 영감의 소리는 멧었지만 구타는 그치지 않았다.

아, 저 사람은 법을 어기고 말았네. 지금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 먹고 재워주고 월급도 주는데 씨발,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아, 이것저것 많은데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몇 가지만 알려줄게. 일단 방금처럼 말하면 안 돼. 화장실 가도 돼요? 안 돼! 일은 언제 끝나요? 안 돼! 아파요. 안 돼! 집에 가고 싶어요. 안 돼! 또. 씨발, 입 아파. 어쨌든 말은 안 돼. 알았어?

누군가 가늘게 대답했다. 사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 또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다.

거봐. 방금 말해줬는데도 멍청하게 말을 하잖아. 또 있어. 집에는 갈 수 없어. 언젠가는 너희들도 일을 그만하게 되겠지. 그때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일을 할 수 없잖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히 일 해. 참..... 이걸 니들을 위해서 하는 충고인데.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하지 마. 고민도 하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래야 조금 덜 힘들어.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 손발이 바빠야지 머리가 바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참, 그리고 본격적인 일에 투입되기 전에 너희들을 좀 손볼 거야. 솔직히 너희들이 워낙 인간답지 않은 생활을 오래했잖아. 그래서 그래. 일단, 관리 차원에서 몸에 번호를 새길 거야. 여기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따끔거릴 거야. 그리고 가끔, 그래서 안 되지만 도망가려는 놈이 있어. 그래서 왼쪽 발목을 딱 사분의 일만 자를 거야. 걱정 마. 일주일만 지나면 걸어 다닐 수 있어. 좀 절기는 하겠지만. 걱정 마. 여기 일은 뭘 필요가 없거든. 느긋하게 일하기에 더없이 좋은 다리를 가지게 되는 거지. 사실, 진짜 우리도 피곤해. 너희들에게 일자리 주지. 월급 주지. 인간 만들어주지. 암튼. 끝까지 살아남아서 훌륭한 일꾼이 되길. 이상!

사내는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두어 번 탁탁 치고 창고에서 나갔다.

창고에서 사람들은 알몸으로 손과 발이 묶인 채 서 있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행동이었다.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가만히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점점 어렵고 힘들어졌다. 뼈마디가 굳고 근육에는 경련이 일어났다. 피곤한 몸을 지키기 위해 뇌는 끊임없이 수면을 요구했고 그것을 이겨내기 힘든 사람들은 쓰러지기 시작했다. 쓰러지면 누군가 다가와 일으켜 세웠다. 반항하거나 신속히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허벅지나 정강이를 걷어찼다. 시간의 흐름은 어떤 이에게는 아주 느리게, 어떤 이에게는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혹은 시간이 역류하는 것처럼 느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평한

물리적 시간은 결국 흘렀다. 굴도의 염전에는 20을 제외한 19 21 22 세 명의 일꾼이 새로 생겼다. 20은 이틀째 되는 날, 죽고 말았다. 비틀거리며 창고에서 나오는 남자의 목에는 21이라는 붉은 숫자가 견장처럼 선명히 박혀 있었다.

*

염전은 바둑판을, 증발지는 바둑판 표면의 작은 사각형을 닮았다. 사각형의 경계마다 놓인 소금 더미는 흰 돌처럼 일정하고 무수하다. 오래된 일꾼 9는 삽날이 넓은 주황색 플라스틱 삽을 소금 더미의 한 부분에 푹 집어넣는다. 잠시 뒤 끄 하는 소리와 함께 삽날 가득 하얀 소금이 떨어져 나온다. 얼핏 하얀 눈을 닮았지만 부피만 흡사할 뿐 무게는 비교할 수 없다. 삽을 들고 있는 9의 손목이 떨린다. 하지만 반장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일, 9는 이를 양다물고 소금이 담긴 삽을 움직여 외발통수레에 옮겨 담는다. 9는 능숙하게 외발통수레를 운전한다. 사람이 혼자 걷기도 좁은 증발지 사잇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외발통수레뿐이다. 소금을 창고에 들이는 일은 소금 추출의 최종 단계인 만큼 반장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일이다. 때문에 일꾼들은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외발통수레가 쓰러져 물속으로 빠지기라도 한다면 녹아 없어지는 것은 소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9의 외발통수레가 임시 저장 창고에 안전하게 도착한다. 소금이 쏟아진 빈 수레는 너무도 가볍다.

9는 더 이상 염전 너머를 보지 않는다. 보게 되면, 보고 싶은 것이 생긴다. 보고 싶은 것이 생기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는 현실이 괴

로운 법이다. 충분히 괴로운 상황이다. 이 상황에 결핍감을 보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떤 이에게는 희망이 살아갈 힘을 줄지 모르지만 이곳에서의 희망은 마약과도 같다. 희망은 거짓 기대와 헛된 욕망을 만든다. 기대와 욕망은 몸에 열을 공급한다. 배출되지 않고 누적되는 열은 결국 자멸에 이르게 한다. 자멸은 곧 벽이다. 염전에서 희망은 벽 앞에서 늘 산산이 부서져왔다. 9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그 어떤 것도 희망하지 않는 무감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다.

일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1. 반장들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잠시 삽질을 멈추고 쉬고 있는 중이다. 21의 시선은 9의 외발통수레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곧 21의 시선은 외발통수레를 빗겨나 염전 전체로 향한다. 21의 시선은 염전 너머에 있는 바다를, 그리고 바다 너머에 있는 육지에까지 이른다. 아주 잠시 21의 눈빛이 복잡한 감정으로 반짝거린다. 갑자기 자판기에서 뽑은 달달한 밀크커피의 맛이 그리워진다. 21은 시선을 옮겨 맞은편 증발지를 보려다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한다. 벽이다. 21은 황급히 시선을 거두고 삽을 움켜쥜다. 벽의 존재는 21의 정신의 뒷면을 압박한다. 마음이 한곳을 향해 뚫뚫 뚫치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진다. 21은 밀려드는 긴장을 이겨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닥에 침을 뱉고 인상을 찌푸린다. 벽은 움직임이 없다.

염전의 경영 방식은 현재까지 최고의 효율을 자랑한다. 전원이 꺼지지 않는 한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일꾼들은 멈추지 않는다. 완전히 마모되거나 부서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내는 알고 있다. 그렇게 교육시켰고 통제해왔다. 다만 문제는 녹슨 볼트와 너트처럼 일꾼을 자주 교환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문제될 것 없

다. 일꾼이 될 사람은 조금 더미만큼이나 많이 널려 있다. 그들은 대부분 신원이 불분명하다. 신원이 밝혀지더라도 그것을 증명해줄 가족이나 근거를 찾기 힘들다. 때로는 멀쩡히 살아 있지만 사망신고가 되어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9가 그러하다. 9는 당장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경찰이 9의 시체를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기록된 9의 사망기록뿐이다.

극단의 폭력과 모멸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앗아간다. 죽음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곳에서는 죽는다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염전에서 죽음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죽음이 너무도 사소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능은 다르다. 때리면 맞지 않으려고 몸을 웅크린다. 본능은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가장 정직한 반응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본능을 일으키는 지속적인 자극은 노력으로 이어진다. 몰아붙일수록 삶의 포기는 선명해지고 생존 본능은 강해진다. 우리는 사내의 생각 중 가장 창의적인 것이었다. 염전은 생존 본능이라는 에너지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낡은 기계와 같다. 탈출의 욕망보다는 잡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불만보다는 지금의 상태라도 유지하고 싶은 무력감이 지배하는 땅. 모든 곳이 벽으로 막혀 움직일 수 없는 염전에서 일꾼들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들이 함께 모여 웅크리고 자는 막사뿐이다.

반장5는 소금을 운반하고 있는 9의 굵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반장5도 그저, 5였던 시절이 있었다. 막사에 막 들어와 겁에 질려 잠들지 못하는 9의 손등에 손바닥을 올려 진정시켜주었던 것은 5였다. 염전의 일꾼이 하나둘씩 죽어나갔다. 죽음이 난무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창한 목적 따위는 없었다. 그냥 살아남는 것뿐이었다. 5는 살아남기 위해 하루를 악착같이 살아냈다.

어느 날 밤, 사내가 창고로 5를 불러냈다. 일과가 끝난 후 막사를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막사를 벗어나기 전 5는 고개를 돌려 잠들어 있는 9의 얼굴을 한참동안 쳐다봤다. 죽음의 공포가 5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아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5가 창고에 들어오자 사내는 창고에서 강제적으로 서명한 두번째 서류를 5의 눈앞에서 찢었다.

지금부터 너는 말을 해도 된다.

사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듯했다. 5는 멍하니 사내의 얼굴을 쳐다봤다. 사내는 평소 다부진 체격과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는 5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너는 승진했다. 다시 말하면 관리직으로 일자리가 바뀌었다, 이거야. 어때, 마음에 들어?

5는 그저, 고개만 끄덕거렸다. 최대한 순응적인 표정을 짓는 것도 결코 잊지 않았다.

좋아. 일은 간단해. 너는 앞으로 일꾼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책임지는 반장이야. 근데 너도 잘 알겠지만 너희들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필요에 따라서는 좀..... 무슨 말인지 알지?

5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본보기가 필요해. 갈수록 나약해지고 있는 일꾼들을 자극시킬 그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것이 반장이 되기 전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다음 날, 5는 사내가 지목한 두 명의 일꾼, 나이가 많아 걸음이 느린 3과 최근에 열이 많아 유독 작업 속도가 느렸던 8을 지목했다. 5는 1 2 4 6 7 9가 보고 있는 막사 앞에서 3과 8을 때리기 시작했다. 5는 눈을 질끈 감고 주먹과 발을 날렸다. 그것이 얼굴일지라도, 혹 급소일지라도 가리지 않았다. 사내가 그만하라는 말을 할 때쯤, 5는 격렬한 경기를 마친 격투기 선수처럼 온몸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5는 반장5가 되었다. 3은 5의 구타가 끝나기 전,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8만이 사내가 원하는 적절한 상태의 본보기가 되었다. 8은 유령처럼 표정도 감정도 없이 숨만 쉬었다. 막사 앞에서도, 식사 시간에도 8은 위태롭게 직립의 상태를 유지하며 일꾼들 앞에 서 있었다. 8의 눈빛은 박제된 초식동물의 유리 눈알처럼 반짝거렸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일꾼들은 8의 눈빛을 피하려 노력했다. 고개를 돌려 외면하거나, 땅바닥을 쳐다봤다. 8은 살아 있는 시체였다. 일꾼들은 8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미래를 엿봤다. 8은 일꾼들 사이에서 벽으로 통했다. 어디에서나 눈을 들면 눈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벽이 이편을 향해 서 있었다. 일꾼들은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벽이 되지 말아야 한다.

낙오하지 말자, 규칙을 어기지 말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자, 살아남아야 한다, 같은 생존 의지가 일꾼들의 정신 속으로 바이러스처럼 침투해나갔다. 그렇게 일꾼의 숫자가 30이 넘어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벽이 되거나, 벽이 되었다가 죽거나, 혹은 5처럼 누군가를 벽으로 만들고 반장이 되었다.

반장5는 감상에 빠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눈에 힘을 주었다. 유일하게 자신이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9였다. 9의 눈을 보고 있으면

반장5는 별거벗은 것 같은 기묘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것은 일꾼일 때 느꼈던 수치심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불쑥 생각나거나, 힘들게 겨우 옮겨왔던 바위가 처음 위치에 되돌아가 있는 것 같은 무력감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연히 9의 눈빛과 마주치면 먼저 눈을 피하는 것은 반장5였다. 21은 아무 생각 없이 반장5를 보고 있다. 9에게서 눈을 돌린 반장5의 눈빛이 21의 눈과 마주쳤다. 잠시 멍해 있던 반장5의 얼굴이 빠른 속도로 일그러졌다.

개새끼가! 뭘 쳐다봐?

평소보다 과격한 반장5의 구타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

숨소리만 떠다니는 침묵의 막사 안에 부릅뜬 눈동자 하나가 천장을 노려보고 있다. 짓이겨진 오른쪽 눈꺼풀은 감겨 떠지지가 않는다. 21은 두 개의 손가락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안구를 벌려보지만 날카롭게 뚫고 들어오는 통증이 어금니를 꼭 맞물리게 한다. 반장5의 얼굴이 떠오른다. 21의 오른쪽 눈꺼풀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난다. 이제는 다 없어진 것 같았던 억울한 감정이 새삼스럽게 몸을 뜨겁게 만든다. 그동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증발지 바닥을 긁었다. 흘리는 땀과 묻어나는 염분 탓에 눈은 언제나 충혈되었다. 한 낮에는 생산되는 소금의 양이 너무 많아 아무리 힘을 쥐도 끝개가 앞으로 나가지가 않았다. 왼쪽 발목은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고 태양은 너무도 오랫동안 하늘에 떠 있었다. 21은 가끔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뿐, 반장의 얼굴만 보면 고개를 숙여버린다. 그들은 웬지 얼굴만 쳐다봐도 무슨 생각을 하

고 있는지 알아차릴 것만 같았다. 도망가더라도 그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기어이 다시 섬으로 끌고 갈 것이다. 21은 문득 생각을 한다. 나는 불행한가? 또 생각을 한다. 나는 살고 싶은가? 21은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차피 죽어버리면 통증과 감각이 분해될 것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 생각한다. 그런데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걸까? 순간, 치명적인 상상력이 21의 정신을 사로잡는다.

벽.

21은 침을 흘리고 동공이 풀린 채 죽음의 문턱에 선 노인처럼 조금 발 위에 서 있는 자신의 검고 마른 발등을 본 것만 같아 뜨고 있던 눈을 꼭 감는다. 하나의 생각만 조금 결정처럼 오롯이 남는다. 헛생각은 안 된다. 끝까지 살아야 한다. 21의 왼쪽 눈꺼풀이 부들부들 떨린다.

염전의 매출이 부쩍 늘었다. 올해부터 시작한 택배 거래 탓이다. 처음 한 달간은 하루에 한두 가마니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하루 평균 열가마니 이상 거래된다.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택배 거래는 사내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조금 가마니를 직접 선창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반장이 더 필요했다. 일꾼이 아무리 많아도 증발지를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사내는 반장5에게 쓸 만한 일꾼을 창고로 데려오라고 했다. 반장 10과 12 역시 반장5가 추천한 일꾼들이었다. 8을 제외한 세 명의 벽은 모두 12와 10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반장5는 9에게 다가간다. 9는 바다에서 증발지로 물을 퍼 올리는 기계를 만지고 있었다.

따라와.

평소 같으면 머리카락이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갔을 테지만 반장5는 그냥 앞장서 걷는다. 9는 수문을 막는 방수포를 벽돌로 잘 누른 다음 반장5의 뒤를 따른다. 9의 눈빛에 전에 없던 동요가 일어난다. 창고에는 18이 주저앉아 있다. 낫지 않던 18의 입술은 굵아 왼쪽 안면부 전체로 퍼져 있다. 창고에 들어간 9의 시선은 가장 먼저 바닥에 엎드려 있는 18를 향하고, 다음으로 가죽 소파에 앉아 발톱을 깎고 있는 사내에게 옮겨졌으며, 이내 앞장서 걷던 반장5의 얼굴로 이어진다. 반장5는 9의 시선을 외면하며 말한다.

데리고 왔습니다.

발톱을 깎던 사내가 각은 발톱을 손가락으로 집어 들고 냄새를 맡으며 쿵쿵거린다. 그리고 살짝 인상을 구기고 힐끗 9를 쳐다본다.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봐.

9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어? 한 자리네. 이야. 튼튼하네. 튼튼해.

손톱깎이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뭐, 솔직히 너도 여기서 굴러먹은 짬이 있으니까 대충 알 거야. 너도 승진이다. 축하한다. 넘버 나인! 멋지게 해봐.

9는 고개를 숙인다. 떨고 있는 18의 눈과 9의 눈이 마주친다.

옆에 있던 반장5가 갑자기 달려와 18의 배를 걷어차면서 말한다.

이렇게! 치라고. 새끼야.

18이 몸을 웅크리고 애벌레처럼 꿈틀거린다.

9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서 해.

사내가 조용히 채근한다. 9는 움직이지 않는다. 반장5가 9의 뒤통수

를 주먹으로 때린다. 9는 움직이지 않는다. 옆에 서 있던 반장10이 달려와 9의 뺨을 때린다. 9는 움직이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9는 움직이지 않는다. 사내가 다시 소파에 앉는다.

저 새끼. 보내. 다른 놈 데리고 와.

반장5가 9의 한쪽 팔을 거칠게 잡는다.

사내가 호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발바닥의 굳은살을 깎아내며 말한다.

그냥 보내지는 말고.

아주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른다.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쳐다보고 있던 반장 10과 12가 반장5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9는 반장5의 눈에 눈을 맞추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반장5의 눈은 곧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가득 담고 별장게 충혈되어 있다.

반장5는 9의 정강이를 걷어찬다. 뼈와 뼈가 부딪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9가 넘어진다. 반장5의 발길질은 멈추지 않는다.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9의 왼쪽 발목을 밟는다. 보고 있던 사내는 지루한 듯 하품을 하며 창고에서 나간다. 바닥에 앉아 있던 18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한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염전에 안개가 가득하다. 어제 미처 창고에 들이지 못한 소금을 창고에 들이는 것이 오늘 오전 일과의 목적이다. 안개가 사라지기 전에 끝나쳐야 하는 일, 평소보다 막사 앞 반장들의 목소리가 크다. 21은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나 신발을 신고 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9의 움직임이 굼뜨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21이 9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만 9는 얼굴을 들지 않는다. 9가 침상에서 바닥

으로 굴러 떨어진다. 21이 다급히 9의 몸을 잡고 일으키지만 9는 일어서지 못한다. 9의 왼쪽 발이 바닥을 디디는 순간, 자꾸만 9의 몸은 쓰러진다. 21은 9의 왼쪽 발목을 만져본다. 단지 부어있다, 라로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리 전체가 심하게 부어 있다. 이윽고 막사에 반장10과 12가 들어온다. 반장10은 9의 겨드랑이를, 반장 12는 9의 목덜미를 잡고 막사 밖으로 끌고 간다. 21이 일꾼이 된 이래로 처음으로 옆자리에 9가 아닌 14가 서 있다. 반장5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

9는 바닥에 누워 창고의 천장을 본다. 그날이 생각난다. 소금이 너무 많이 나온 날이었다. 끌개가 잘 밀리지 않아 평소보다 힘들던 날이었다. 곳곳에서 일꾼들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길 반복하던 날이었다. 해가 지고 노을마저 사라져 창고 바닥에 빈 외발통수레를 내려놓은 날이었다. 소금이 하얀 산처럼 창고에 가득 쌓인 날이었다. 살가죽 밑에 박혀 있을 수많은 뼈 마디마디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몸이 아팠던 날이었다. 쌓인 소금 위를 절름거리며 기어올라가 손바닥으로 천장을 만져본 날이었다. 발바닥 밑에 쌓인 거대한 왕릉 같은 소금 속으로 천천히 파고들어가 그냥 영원히 잠들고 싶다고 생각한 날이었다. 9는 생각한다.

그날, 차라리..... 그렇게 했어야 했다.

아주 오래된 기억도 떠오른다. 할 수 있으면 잊어버리려 노력했던 그 기억이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지만 귀염성이 있던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으로 9의 얼굴에는 설렘과 쓸쓸함이 함께 스친다. 쪽방 촌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었다. 얇은 베니어판만 집

의 경계를 나눌 뿐 창문도 없고 비상구도 없는 별집 같은 쪽방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화재는 공식적인 사망자만 백 명이 넘는 엄청난 사고였다. 9는 자신의 이름을 실종자 명단에 올렸다. 무능력한 가장보다 돈이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더 필요했다. 그리고 얼마 뒤, 화재 지역에 보상을 위한 정밀 수사가 시작됐다. 그날로 9는 화재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 9는 생각한다.

지금 아이들의 키가 얼마나 될까, 아내는 잘 있을까, 보고 싶구나.

창고 문이 열리고 반장10과 12가 들어온다. 그리고 반장들의 손에 붙들린 21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끌려 들어온다. 최근 기상 시간이 누구보다 빠른 21이었다. 21을 발견한 9가 급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엎드린다. 아침부터 보이지 않던 반장5는 창고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21은 식사 시간 때마다 반장5가 반복해서 말하던 협박이 생각난다.

많이 먹어라. 그리고 아프지 마라. 개새끼들. 아침에 일어나 제대로 못 걷는 새끼들은 진짜 병신이 되니까. 저기 병신들 보이지?

반장5의 턱짓은 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다 죽으면 개죽음이야. 손과 발 다 자르고 이빨까지 몽땅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장난 같지? 병신들. 한번 걸려봐.

21은 지금 후회하고 있다. 더 빨리 일어나고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다. 주인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헛생각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괜히 반장5를 쳐다보거나 가끔씩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귀신같은 반장들이 마음을 잃어낸 것이리라. 겁에 질린 21은 허벅지가 떨리고 혈관이 툭툭툭 뛰었다. 창고에 사내가 들어오고 문이 닫힌다.

*

반장 10이 다섯 명의 새로운 사람을 염전으로 데리고 온다. 그들이 창고에서의 일주일을 잘 버티면 염전은 32 33 34 35 36의 새 일꾼을 갖게 된다. 반장21이 승진 후 처음으로 해보는 일꾼 교육이다. 반장12는 망가진 숫자인두의 형상을 끌로 다듬고 있고, 반장 10은 괜히 창고 벽을 주먹으로 텅텅 치고 있다.

21은 18을 벽으로 만들고 반장이 되었다. 처음부터 발목이 완전히 부서져버린 9는 몇 번의 발길질만으로 숨이 끊어졌다. 주인은 어차피 제대로 설 수도 없는 녀석이라 죽지 않았어도 죽을 때까지 때릴 참이었다고,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이제 막 새롭게 반장이 된 땀투성이 일꾼을 위로했다.

반장 21은 정신을 잃고 창고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팔목과 발목을 페그물로 묶는다. 아직 깨끗하고 하얀 발목을 만지며 반장 21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고 죽은 9를 생각한다. 차라리 잘됐다 는 생각을, 한다. 벽이 되지 않았다는 것, 통증을 느끼는 감각과 신경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분해된 것에 대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9를 때리라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갈등. 지금 나는 불행한가? 불행하다면 염전에 오기 전, 나는 불행하지 않았었나? 사내의 말을 거부하고 내가 막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벽이 된다면? 선택은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내려졌다. 아니, 선택을 하기도 전, 이미 21의 주먹은 바닥에 누워 있던 9의 뒤통수를 향해 뺨어나가고 있었다.

두 명이 건디지 못하고 죽었다. 반장12의 발길질이 지나치게 사람들의 목젓을 향했던 것도 이유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한 것이다. 냉동실의 문이 열리고 반장21이 죽은 두 명을 집어넣는다. 반장21은 죽은 사람의 차갑고 무거운 몸을 들어 냉동실에 집어넣은 날을 기억해낸다. 냉동실에 무거운 겨울 코트처럼 걸려 있던 사람들, 아니 도저히 사람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냉동된 하얀 물체들. 그리고 웬지 낯익은 얼굴 하나. 얼굴 중앙에 서리가 끼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희미한 회색빛 점과 목덜미에 새겨진 20이라는 숫자. 그 순간 자신의 입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던 하얀 입김.

지금, 냉동실은 텅 비어 있다. 반장5의 말은 사실이였다. 딱딱하게 얼어있는 손목은 망치질 한 번에 고등어 몸통처럼 쉽게 떨어져 나갔다. 달이 뜨지 않은 그믐밤, 냉동된 시체의 몸에 벽돌을 묶어 바다에 하나씩 풍당풍당 던질 때, 반장 21은 주문처럼 같은 말을 되뇌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일을 마치고 배가 굴도 선창에 닿을 때, 반장 21의 눈은 살짝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반장 21은 차가운 냉동실 끝에 두 명을 집어넣는다. 냉기가 살갓에 닿아 소름이 돋는다. 반장 21은 천천히 숨을 내쉰다. 따뜻한 온도가 팔뚝에 닿고 하얀 입김은 유령처럼 냉동실을 떠돈다. 냉동실 문을 닫는다. 돌아선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서린다.

지금도 반장21은 예전처럼 빨리 잠들지 못한다. 그때마다 반장21은 손바닥을 펴 왼쪽 가슴에 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섯 개의 손가락

으로 토탕토탕 가슴을 두드린다. 그러면 놀랍게도 곧 깊은 잠이 든다.

*

태양이 좋은 날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소금이라 하여 천일염이다. 오늘은 소금밭에 굶고 좋은 소금이 무수히 많이 내릴 것이다. 반장 21은 가볍게 손목을 꺾고 일꾼들이 있는 증발지로 향한다. 길 가에 서 있는 벽들의 시선이 반장 21의 등에 머물고 있다.

4.3. 「가나」

1.

소형피정의 엔진이 돈다. 새벽이 아직 물러나지 않은 바다, 적요한 수면위로 내려앉은 어둠이 엔진소리를 삼킨다. 해경들이 피정에 올라탄다. 깊숙이 눌러쓴 모자 밑으로 숨은 눈빛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A는 바다를 향해 견시를 보고, C는 통신을 확인하고 타를 잡는다. 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김이 유령처럼 피정 위를 떠돌다 사라진다. 남쪽 수평선 끝에 어선 몇이 노란 불을 밝히고 조업을 하고 있다. 선미의 녹슨 스크류가 바다 속을 헤집으며 천천히 돌아가고 피정에 열이 오른다. 수평선 끝에 웅크리고 있는 미명은 좀처럼 바다를 비추지 못한다. 붉은 사이렌이 돌고 어둠속으로 피정이 들어간다. 그 모습은 그들로 향하는 느릿한 환형동물의 움직임과 닮아있다.

견시를 보는 A가 조타실에 있는 C를 바라본다. 레이더의 붉은 불빛만 집요하게 바라보던 C가 입 안쪽의 살점을 꼭 깨문다. 타를 잡은 손

바닥에 땀이 찬다. 분명치 않게 수신되는 통신 전문과 점멸하는 레이더 빛이 피정을 어디론가 이끈다. 일출을 앞둔 바다에 안개가 피고 새벽빛이 해변 위를 천천히 움직인다. 갑판위에 무릎을 대고 앉아 노끈과 방수포대를 정리하던 B가 옷깃을 여미며 짧게 기침을 한다. 보이지 않던 섬들이 하나 들쭉 떠오르고, 스크류가 해집고 있는 바다는 하얀 거품을 토해낸다. 피정이 향하는 바다 끝에 낙지잡이 배 한척이 떠있다. 피정은 그 곳을 향해 똑바로 나아간다. 이제 막 수평선에 걸린 태양빛이 사방으로 갈라진다. 일곱 시가 막 지난 겨울바다, 아침이 온다.

2.

눈을 뜬다. 뿌옇게 흐려지며 몽그러지는 하늘, 위 아래로 뒤섞이며 흔들리는 대지. 이곳은 어디일까. 딥고 설 곳이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지금 서 있다. 호흡은 멈췄으나 정신은 이곳과 저곳을 분별하고 있고, 혈관 속의 피가 흐르지 않지만 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해할 수 없으나 지금 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이것은 꿈이 아니며 현실도 아니다. 나는 정말 죽은 것인가.

현인들은 말했다. '죽음이 가없는 인생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인생은 과거의 일기들을 마주할 수 있다. 그 시간은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여행 중 가장 긴 여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그들이 만난 죽음의 얼굴은 상상과 객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죽음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 얼굴도 없고, 징후도 없고, 위험도 없었으며, 모종의 예감도 없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저 잠이 오는 것처럼, 죽음은 그렇게 왔다.

잠이 든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고 의지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엔진소리에 귀가 울려도 끝없이 졸렸고, 그물을 당

기며 온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순간에도 불쑥 잠은 찾아왔다. 그러나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선실의 완벽한 어둠속에서는 잠이 오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을 감각할 수 없는 불면의 경험은 땅 속에서 웅크리고 몇 년을 살아야 하는 유충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새벽. 그 정지된 시간을 멀쩡한 정신으로 견디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차라리 죽음이 더 나올 것 같다는 절망스러운 포기만이 좁은 선실에 켜켜이 쌓여가는 나날이었다.

지금 내가 잠을 자는 것인가, 꿈을 꾸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것인가. 그렇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죽은 것이다. 죽음은 잠처럼 익숙하게, 하지만 예상할 수 없이 찾아왔다. 어, 하는 그 사이에, 나는 죽었다.

3.

붉은 물체가 바다에 떠 있다. 낙지잡이 배 옆으로 피정이 멈춰 선다. 깃발을 흔들며 어부가 피정으로 건너온다. 부산하고 성급한 발걸음이다. 어부는 C에게 알아듣기 힘든 말을 다급히 쏟아낸다. C는 이미 통신을 통해 들었던 정보지만 어부의 말을 충실히 상황판에 옮겨 적는다. A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붉은 물체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다. A의 들숨과 날숨이 조금 빨라진다. B는 하얀 포대를 준비하고 카메라를 손에 든다. 파도에 흔들리며 위 아래로 움직이는 물체는 빨간색 점퍼다. 그 밑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암초처럼 크고 검다. 작은 보트가 바다에 내려진다. 보트에 A와 B가 올라선다. A는 두꺼운 줄을 어깨에 감았고 B는 하얀 포대를 들고 있다. 빨간색 점퍼에 다가선 B가 움짤 놀라며 코를 감싼다. 엄청난 악취가 풍긴다. A가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파도가 높아지길 기다린다. 순간, 파도가 높아지고 붉은 점퍼가 떠오른

다. 그 틈을 타 A가 줄을 집퍼 밑으로 통과시킨다. B가 반대편으로 빠져나온 줄을 잡는다. A와 B는 양쪽 줄을 잡고 잠시 호흡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본다. B의 충혈된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흐른다. A와 B가 눈을 맞추고 같은 호흡으로 순간적으로 줄을 끌어올린다. 잡겨있던 그림자가 순식간에 파도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이다. 뒤집힌 사람의 허리가 반쯤 보트에 걸쳐진다. 아직 얼굴과 하체는 물속에 잠겨있다. A와 B가 손바닥으로 줄을 한 바퀴 돌려 감으며 한 번 더 힘을 쓴다. 보트 위로 사람이 완전히 올라온다. 붉은 점퍼에 두꺼운 작업용 비닐 바지를 입고 있는 남자다. B가 돌아서며 바다에 구토를 한다. 소리는 요란하지만 토사물은 말갱고 내용물이 없다. A가 침착하게 사진을 찍는다. 떠오른 남자의 얼굴이 심하게 벗겨져 있다. 하얗게 부풀어 오른 피부는 오래된 고무처럼 험겁고 너덜거린다. 남자의 입은 완전히 벌어졌고, 입 주위로 오랫동안 면도하지 않은 수염이 무성하다. 힘을 잃은 항문에서 쏟아진 배설물이 남자의 몸을 뒤덮었다. A의 손에 들린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재생된 화면이 떨리고 있다.

4.

오랫동안 부르지 못한 이름을 불러본다. 하비바, 언제나 대답이 없던 당신은 여전히 대답이 없다.

문 앞에서 서 있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들고 있던 술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나이가 조금 어리다고만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자가 아닌 아이였다. 게다가 들을 줄만 알고 말은 못하는 병어리였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어머니의 화장품을 바르고 어른 흉내를 내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그녀를 문 밖에 두고 나갔다. 등 뒤에서 달히는 문소리가 부서질 듯 크게 들렸다. 나는 결혼에 대한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 들었다 한들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었을까, 내가 흠모하던 여자는 카밀라였다. 난 간절히 기도했다. 신의 가호가 나와 카밀라 사이에 임하기를. 신의 계획은 나의 바람과 달랐다. 카밀라는 삼촌과 결혼했다.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은 어른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가득 찬 밤하늘을 향해 나는 조소했고, 신을 저주했고, 불 꺼진 마을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집어 던졌다.

나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다. 신의 뜻에 저항하고 싶었고, 어떻게든 그녀에게 나의 적의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죽은 새처럼 웅크리고 잠든 그녀의 야윈 어깨를 바라볼 때마다, 타르처럼 검고 깊었던 성숙한 카밀라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견디기 힘든 어떤 날은 잠든 그녀에게 고개를 쳤다. 그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감싸고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나를 두려워했고 언제나 내게 이유 없이 미안해했다.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나는 그녀를 자주 때렸다. 그녀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입술을 꼭 다물고 그 시간을 견뎠다. 그녀는 집 안을 낮선 사람처럼 조심조심 걸어 다녔다. 그 가벼운 걸음은 내 마음에 불편한 자국들을 만들어냈다.

도적들이 마을을 습격했다. 일주일 전에 시장에 나타난 도적들이 상인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저 두려움에 떨 뿐 마을은 어떤 대비도 할 수 없었다. 도적들은 끝까지 저항하는 사촌 이수와르의 이마에 총을 쏘고 마을의 어른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 기르던 양떼가 도적들에게 모두 약탈당했다. 양은 마을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였다. 도적 중 한명이 뒤통수에 총을 겨누었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들과 군인들은 도적들이 사라진 길을 향해 욱하고 침을 뱉을 뿐,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마을은 슬픔에 잠겼다. 차갑게

식은 이수와르를 땅에 묻으며 죽음 앞에 한 없이 비겁하고 무력했던 나 자신이 미워 견딜 수가 없었다. 양들이 없는 초원은 황량했다. 빈 초원의 풀을 움켜쥐며 여자들은 오열했고, 남자들은 담벼락에 주저앉아 푸실푸실한 흙만 쥐었다가 놓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그녀가 의자에 걸터앉아 트랜지스터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러는데 전파가 약해 불분명하고 잡음이 많았다. 그녀는 입을 꿈지락거리며 무엇인가를 자꾸 중얼거렸다. 난 그녀의 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들리는 소리는 거칠고 끔찍했다. 기가 찼다. 마을은 슬픔에 잠기고 양들은 약탈당했다. 그런데 저 철없고 어린 아내는 라디오나 들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며 노래를 하고 있다. 난 고향을 치며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돌려 앉혔다. 그녀는 놀라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나무판에 무엇인가를 써서 내게 건넸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나는 그것을 읽지도 않고 발로 밟아 깨뜨리고 그녀의 뺨을 쳤다. 그녀는 형겉처럼 너무도 쉽게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는 주저앉은 그녀의 등을 밟았다. 분노는 사실 나 스스로에게 향한 것이었다. 나는 이수와르를 지키지 못 한 내 뺨을 쳐야 했고, 도적들에게 소리치지 못하고 등 돌려버린 부끄러운 내 등을 밟아야 했다. 하지만 그 분노마저 나는 비겁하게 그녀에게 돌렸다. 나는 그녀가 듣고 있던 라디오를 들어 던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앉아 있던 그녀가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라디오를 들고 있는 내 오른손에 매달려 힘을 썼다. 그녀는 짐승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입을 크게 벌렸다.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어이 그녀가 내 팔뚝을 물어뜯었다. 나는 통증을 느끼고 라디오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심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슴 깊숙이 품고 구석으로 숨었다. 그녀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당황한 나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웅크린 그녀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독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토막 난 나무판을 집어 들었다. 그것을 맞추어 판에 적혀 있는 글을 읽었다.

‘엄마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엄마가 죽었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싶습니다.’

소리 없이 열린 그녀의 입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내 마음을 뚫고 지나갔다. 뚫려진 면이 거칠어 너무도 따가웠다. 그녀를 처음 봤던 날이 떠올랐다. 내가 신을 저주하고 운명을 거부하며 술을 마시고 마을에 소리를 지르던 그 순간, 그녀는 낯선 집의 닫힌 문 앞에 홀로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밤 새 이슬을 맞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 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아무것도 기댈 곳 없는 그녀를 나는 집에서 조차 발꿈치를 들고 다니게 만들었고 또 방치했다. 묶여 있던 끈이 툭 끊어지듯 마음이 휘청거렸다. 나는 웅크리고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돌려 앉혔다. 그동안 한 번도 울지 않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물이 목울대에 닿고 천천히 옷을 적셨다.

그 밤,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남편으로 그녀 옆에 누웠다. 그녀의 작은 가슴을 손바닥으로 모아 움켜쥐었다. 오직 작은 유두만이 손바닥에 감각될 뿐, 그녀는 너무 야위었고 작았다. 하지만 불가해하게도 그녀의 품은 놀라운 정도로 넓었다. 그녀의 커튼이 찢겨지고 허벅지에 묻어나는 뜨거운 피를 손바닥으로 닦으며 나는 울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머릿속에 들어와 나를 가만가만 어루만졌다. 잠이 쏟아졌다. 마을은 절망에 잠겨 뜬 눈으로 새벽을 지새웠지만, 난 너무도 오랜만에 그녀의 품에 안겨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었다.

5.

지루함이 길면 죽고 싶어진다. 파도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바다 속에 잠겨 있던 침묵이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부서지는 것 뿐. 들리는 것은 끝없는 침묵, 침묵뿐이다. 지루하다. 지루해지면 곧 우울해졌다. 우울함이 길어지면 마음 깊숙한 곳이 뒤집히고, 수 없이 많은 방이 텅텅 비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꼈다. 그럴 때면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갑판에 몇 번이고 침을 뱉었다. 침은 금세 말라붙어 죽은 새우껍질처럼 하얀 찌꺼기들을 남겼다. 그 찌꺼기들을 보고 있으면 또 지루해지고, 우울해지고, 기어이 죽고 싶어졌다. 시간은 죽고 싶다는 생각의 끝없는 회귀이고, 삶은 그것을 버터내는 불안함이 자 미쳐가는 정신의 바다를 향해하는 뜻 없는 배였다. 난 끝없이 표류하고 조금씩 침몰했다.

배를 타고 있는 그 누구도 이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다. 사실 그것은 무의미했다. 항구를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다른 항구로 들어갈 수 있을 지가 중요했다. 바다의 수평선은 이곳과 저곳의 경계를 허문다.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은 세상은 온통 바다뿐이고 바다위에는 오직 배만 남았다는 것을 뜻했다. 선원들은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모두가 지루해 죽고 싶거나, 누군가의 목에 칼을 꽂고 싶어 했다. 내가 그랬으니 남들도 그럴 것이다. 이곳은 각자의 개성도, 상황도,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우리들은 모두 같다. 그럼에도 견디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두고 온 아내와 아이가 얼마나 자랐을지를 상상한다. 그 상상력은 너무도 허약해 금세 부서졌고, 언제나 분명하지 않았으며 안개처럼 흐릿했다. 조업은 예상보다 잘 되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냉동 창고는 너무도 더디게 채워졌다. 그물이 험겁게 들썩거리고 바다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마다 내 안의 크고 작은 문들이

하나씩 ‘꽝’ 소리를 내며 단혔다.

나도 바다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 바다가 너무도 잔잔해 그 어떤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 날이었다. 완전히 정지된 배는 사막 한 가운데 서 있는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낮선 고요는 수면을 방해하고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대책 없이 떠도는 불면은 위험한 것이다. 나는 어금니를 꼭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갑판으로 올라갔다.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 다른 밤이었다. 갑판을 둘러싼 공기는 봄처럼 따듯했다. 검게 열린 하늘에는 별자리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떠있었고, 작은 파도조차 없는 검은 바다가 거울처럼 그 모습을 온전히 반사하고 있었다. 하늘은 바다에게 바다는 하늘에게 서로의 경계를 내어주며 섞여갔고, 떨어진 별들이 바다 속에서 물감처럼 빛을 풀어내며 녹아갔다. 배가 하늘로 조금씩 떠올랐다. 모든 것이 우주로 향해 천천히 부유했고 난 중력을 느낄 수 없었다. 침묵의 시간이 견고하고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바로 곁에서 들렸지만 소리의 진원지는 아주 먼 곳인 듯 미세하고 아득했다. 소리는 두고 온 아이의 웅얼이 같았고, 잠든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 같았다. 소리는 바람처럼 갑판 위를 떠돌다가 하늘로 날아올랐고 이내 유성처럼 갑판위에 투두둑 떨어졌다. 뜨거운 눈물이 두 볼 위로 흘러내렸다. 황홀했고 가슴이 터질듯이 부풀어 올랐다. 아름다웠다. 이대로 우주 속으로 걸어가고 싶었다. 선장은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바다를 사랑하지 말고 증오해라. 어떻게든지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라. 바다는 자신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먼 재물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바다의 노래가 들리면 침을 뱉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아라.’

오른쪽 다리는 이미 갑판에서 벗어나 검은 수면을 향해 내딛고 있었다. 검은 수면은 부드러운 비단처럼 보였다. 나는 바다위에 누워 비단을

머리끝까지 덮고 깊은 잠을 자고 싶었다. 더 이상 내게 그보다 큰 염원은 없었다. 그 순간, 솟아오른 하얀 물줄기. 바위처럼 커다랗고 흑단처럼 검은 눈동자가 나를 정면으로 쳐다봤다. 고래였다. 배 위를 떠돌던 소리가 갑자기 바다로 떨어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파도소리에 묻혔다. 놀란 나는 갑판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시 차가워진 바람이 흐르는 눈물을 흠치며 불기 시작했고, 수면은 구겨지며 파도를 만들어 냈다. 다음날, 엔진을 정비하던 선원 한명이 사라졌다. 그는 중국인이었고 가장 나이가 많았던 선원이었다. 그가 결국 바다의 노래를 듣고 우주 속으로 걸어갔다는 것을 모두 다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6.

A와 B가 줄을 끌어 남자를 뒤집어 놓는다. 남자의 오른쪽 허리에 서 바닷물이 쏟아진다. 그의 몸속에 숨어있던 보리새우들이 보트위에서 팔딱 거리며 튀는다. 허리 부분의 점퍼는 찢겨져 있고, 몸통은 함부로 뜯겨져 있다. 그의 손은 퉁퉁 부어있고 손가락의 끝 마디는 몽땅 떨어져 나가 하얀 뼈가 구슬처럼 박혀 있다. 그의 입술은 형체가 거의 남지 않았고 검푸른 잇몸에 박힌 이빨은 유독 하얗다. B가 남자를 하얀 포대로 감싼다. 피정에서 들것이 내려온다. 낙지잡이 어부는 C에게 쉴 새 없이 말을 한다. 어부는 바다생활 중 시체를 발견하면 채수가 좋고 행운이 따른다는 속설을 믿는다. C는 어부의 말에 대꾸 없이 남자를 피정으로 인계한다. 갈매기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A가 남자를 살핀다. 남자의 몸이 들썩일 때 마다 바닷물이 흐르며 악취가 진동한다. A가 남자의 옷을 하나씩 벗겨가며 남자의 신상에 대해 수색하기 시작한다. 부식된 점퍼의 지퍼는 움직이지 않는다. B가 A를 도와 가위로 점퍼를 자른다.

옷이 벗겨질 때마다 드러난 남자의 몸은 자꾸만 가위질을 멈추게 만듭니다. 부패한 몸속에서 정체모를 소리가 부글거린다. 남자의 귓구멍에서 나온 작은 칠게 한 마리가 눈을 분주하게 움직이며 갑판을 면밀히 살핀다. 남자의 오른쪽 허리에 난 구멍 속에는 검은 고동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인상을 찌푸리며 바라보던 어부가 핸드폰으로 남자를 찍는다. C가 어부를 저지하고 주의를 준다. B는 남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술집 전단지를 빼낸다. A가 점퍼에서 국적을 알 수 없는 외국 담배와 작은 사진을 발견한다. 무표정한 소녀와 갓난 아이의 사진이다. 소녀가 입고 있는 옷은 이국적이다. 하지만 A는 그 옷이 어느 나라의 것인지 알지 못한다. 낙지잡이 어부가 담배를 꺼내 물고 B에게 한 대 권한다. B가 담배를 받아들고 남자의 몸에서 머물던 눈길을 돌린다. A가 방수포를 끌고 와 남자의 몸을 덮는다. C가 조타실에 들어간다.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보고한다. 높이 떠오른 해가 바다를 끌고루 비춘다. 파도의 곁을 따라 부서지는 노란 햇빛에 눈이 부셔 B는 모자를 눌러쓰고 담배를 깊숙이 빨다. A는 오랫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7.

배는 작은 항구에서 이틀 간 정박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항구를 바라보는 선원들의 표정은 모두 상기되어 있었다. 이틀은 짧고도 긴 시간이었다. 그토록 밟고 싶었던 땅이었지만 정작 갈 곳이 없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싶었지만 만날 사람이 없었다. 그저, 돈을 쓰는 일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나는 이틀 동안 술만 마셨다. 사람들은 이방인인 나를 시종일관 호의적이지 않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입술을 비틀고 묘하게 웃으며 키득거렸다. 나는 불편했지만 그 곳을 피해 달리 갈 곳

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육지의 모든 것들은 나와 무관하게 움직였다. 나는 육지를 꿈꾸고 그리워했지만 육지는 내게 관심이 없었다. 마지막 술잔을 비우며 생각했다. '결국 난, 술을 마시기 위해 배를 탔구나.'

항구에서의 마지막 밤은 추웠다. 선장은 일찍 들어와 통신기기를 점검하고, 지도위에 항로를 그렸고, 먼저 들어온 선원들은 선실에 모여 앉아 블랙잭을 했다. 상실감을 애써 숨기고 있는 듯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다. 노란 백열등 불빛이 그들의 표정 속에 숨어 있는 우울한 곁을 더욱 부각시켰다. 선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갑판에 앉아 그녀를 생각했다. 아직도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아이는 이제 걸어 다닐지 모른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상상해보려 했지만 파도소리가 자꾸만 그 순간을 앗아갔다. 일 년에 한 두 번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줄 알고 넘은 국경이었다. 하지만 벌써 2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배를 타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 까다로운 서류도 필요 없었고 내 경력이나 국적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이토록 오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점퍼에서 사진을 꺼내고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웃으면 더 예쁜데 사진 속 그녀는 무표정하다. 웃으라고 했지만 사진기 앞에서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사진을 손바닥으로 포개고 몸을 움츠렸다. 사진을 점퍼에 다시 집어넣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어둠속으로 흠어들며 쉬이는 입김을 바라봤다. 어쩌면, 영원히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를 양 옆으로 세차게 흔들었다.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배를 타며 생긴 버릇이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렸지만 쉽게 선실로 돌아가지 못했다. 반짝거리는 불빛들과 육지에서 바람처럼 들려오는 소음들, 그리고 곳곳에 우뚝 서있는 섬들. 그것들을 머릿속 깊숙이 새겨놔야 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바다의 노래를 이겨내는 힘을 기르고 고향으

로 돌아갈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육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했다. 육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이다. 어두운 수면 위로 배가 조금씩 움직였다. 출항을 위해 배를 육지로부터 멀리 이동시켜야 했다. 물때를 잘 못 만나면 스크류가 바닥에 박혀 배가 움직일 수 없다. 나는 선미 끝에 앉아 멀어지는 불빛을 바라봤다. 파도가 제법 심해 배가 위 아래로 크게 출렁거렸다. 줄을 잡고 선미에 매달려 마지막 남은 술병을 열었다. 그때, 줄의 매듭이 풀렸다. 차가운 날씨가 많은 곳을 얼어붙게 했다. 얇게 얼어붙은 얼음은 발의 중심을 빼앗았다. 힘이 풀려 허우적거리는 발은 허공을 내딛었다. 어, 하는 소리를 짧게 내 뱉고 난 바다로 떨어졌다. 바다에 떨어지면서 회전하는 스크류 끝에 몸이 부딪혔다. 죽음은 그렇게 쉽게 찾아왔다. 어떤 놀람도, 고통도 없었다. 난 바다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갔다.

8.

나는 인근 노역장에서 일을 했다. 아침에는 돌을 깨고, 오후에는 깨진 돌을 바구니에 담아 산을 넘었다.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마저 자리가 없어 이틀에 한번 씩은 집으로 그냥 돌아와야 했다.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더운물을 준비했고 괜찮다고 발을 빼도 언제나 직접 내 발을 닦아주었다. 도적이 든 후 부터 나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노와 무력감이 새벽 내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가끔 불 꺼진 방에 앉아 창문을 열고 노래를 불렀다. 양떼가 없는 빈들을 비추는 달빛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곧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내가 부르는 노래가 좋다고 했다. 나 역시 눈을 감고 내 노래를 듣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좋았다. 어느 날, 그녀가 처음으로 내게 무엇인가를 부탁했다. 시타르를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시타르? 그녀가 나무판에 쓴

것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악기를 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잘 켜시던 악기였어요. 나중에 꼭 배우기로 했었는데.’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엄마처럼 시타르를 배워 나도 노래하고 싶어요.’ 그녀는 시타르를 제법 잘 켰다. 작은 손가락이 현을 짚을 때마다 울리는 음은 창문 틈으로 뒤편에 부는 바람소리 같았다. 그녀에게도 만약 목소리가 있다면 시타르의 소리처럼 높고 쓸쓸할 것 같았다.

마을은 자급자족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동안 남자들은 국경 근처의 도로를 닦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공사현장이 차를 타고 가도 만나절이나 걸리는 거리였고 우리 마을에게 할당된 일이 거의 끝나버려 누구도, 어떤 곳에서도 일 할 수 없었다.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하나 둘 마을을 떠났다. 나는 어떻게든 마을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녀를 두고,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들을 두고 마을을 떠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아이의 이름도 짓지 못하고 브로커와 함께 급히 국경을 넘었다.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다. 다시 돌아오는 날, 아이의 이름을 짓자고 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떠나는 날, 아이는 높은 소리를 내며 울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단지, 까만 눈동자가 깊이 잠겼을 뿐이었다. 국경을 넘고 생경한 풍경과 지형을 대할 때 마다 나는 그녀를 생각했다. 하비바, ‘사랑받는 자’ 라는 뜻이다. 난 그 이름대로 그녀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노라고 발바닥이 낫선 땅을 밟을 때마다 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9.

낫선 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의식은 천천히 명징

해졌다. 눈을 뜨면 언제나 엔진소리부터 들렸었다. 숨을 들이쉬면 아무리 말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가 지겨웠다. 갑판 위에는 버려진 생선의 살점이 썩어가고 있었고, 공기는 불완전하게 연소된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낯선 소리들은 무엇일까, 입안에 고인 이 차갑고 말간 느낌은 무엇일까, 소리의 진원지를 찾는다. 소리는 작지 않았고 불명확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무 커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소리는 머리 위에서 떨어졌고, 양옆에서 미풍처럼 스쳐지나가기도 했으며, 발밑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흔들거리기도 했다. 먼 곳에서 끊임없이 바위가 굴러갔고, 이름 모를 생물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는 크고 높았다. 나는 서 있었다. 그리고 떠 있었다. 풍경은 둥근 원안으로 휘어져 들어왔다. ‘이곳이 바다 속이구나.’ 라는 생각이 천천히 머릿속에 맴돌며 죽었다는 인식과 함께 배 위의 지루했던 삶과 돌아가야 할 고향이 젖은 의식을 뚫고 부표처럼 둥둥 떠올랐다.

해류가 몸을 떠민다. 그것은 무겁고 밀도가 높은 바람과 같았다. 그 흐름에 따라 천천히 발이 움직이고, 난 바다 속을 산책하듯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지금 이곳을 어찌 형용할 수 있을까, 부드러운 흙속에 심겨진 나무뿌리처럼 나는 바다 속에 잠겨 있다. 생각이 난다. 회전하는 스크류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때, 내 심장이 멈췄을 것이다. 오른쪽 허리가 심하게 손상되었다. 헤쳐진 살점과 내장들이 붉은 해초처럼 흔들린다. 갈치 두 마리가 내 곁에 맴돈다. 갈치가 움직일 때마다 칼날이 흔들리듯 날카로운 빛이 반짝거린다. 갈치는 내 몸을 먹었다. 너털거리리는 살점을 먹고 손상된 내장을 뜯었다. 떠있던 다리가 바닥에 닿는다. 바닥의 모래는 이제껏 밟아봤던 그 어떤 땅보다 부드러웠다. 바다 속에 숨겨진 땅은 아름다운 곳이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곳곳에 솟아있고 바위틈마다 색색의 말미잘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촉수를 흔들며 움직였다.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작은 새우들은 머리카

락과 수염 속에 기어들어와 제 몸을 숨겼다. 해류가 몸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난 꽃씨처럼 느릿느릿 바다 속을 떠다녔다. 모래 속에 반쯤 잠긴 폐선이 보였다. 수초와 이끼가 폐선의 몸체를 뒤덮고 있었다. 폐선은 진흙을 뒤집어쓰고 낮잠을 자는 게으른 당나귀 같았다. 불 꺼진 폐선의 선실은 발광하는 꼬리민태들로 분주했다. 청록색으로 빛나는 꼬리가 흔들릴 때마다 밝은 선실은 등을 켜 놓은 것처럼 조금씩 되살아났다. 조타실에는 해마들이 단정한 모습으로 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조타실의 주인은 자신들이라는 듯, 끈게 선 해마의 몸은 고상하고 위엄 있어 보였다. 폐선의 갑판에 달라붙은 검은 고동들의 더듬이는 물속에서 느릿하게 흔들렸고 몇몇은 바지위로 기어 올라왔다. 정수리 위로 커다란 바다거북이 천천히 지나갔다. 무심한 바다거북의 눈동자가 나와 잠시 마주쳤다. 폐선의 엔진이 곧 돌 것만 같았다. 녹슨 스크류가 회전하고 모래 속 깊이 쳐 박힌 닻이 거품에 둘러싸여 천천히 떠오를 것만 같았다. 나는 조타실의 타를 잡고 바다거북이 만들고 간 길을 따라 항해하고 싶었다. 몸이 조금씩 짓물러갔다. 몸속에서 푸른 가스가 피어오르고, 난 점점 가벼워짐을 느꼈다. 발밑의 폐선이 우물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조금씩 작아져갔다.

10.

이제,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바지에 붙어있던 검은 고동들은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허벅지에 빼곡하게 붙었다. 고동의 느린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몸이 녹아가는 것을 느꼈다. 찢겨진 내장 속 배설물이 흘러졌다. 그것은 작은 먼지처럼 물 속에 퍼져 어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었다. 내부는 천천히 부패하고 있었다. 몸속에 가득 찬 가스는 나를 조금씩 떠오르게 했다. 이곳이 어디쯤일까, 풍경은 자꾸 변하고,

서있는 땅은 늘 새롭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을까, 의식이 끝없이 알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떨어진다. 끝을 알 수 없는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고독이 나를 떠나 조금씩 먼 곳으로 이동한다. 분주한 소리가 들렸다. 수없이 많은 콩치 떼들이 빠른 속도로 물속을 뚫고 지나갔다. 그 모습은 해마다 마을의 강을 찾던 철새를 생각나게 했다. 불타는 태양을 가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춤추던 군무. 콩치들의 무리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을 공유한 듯 바다를 푸르게 물들였다. 그 깊숙한 중심에서 들리는 소리는 투명한 심장처럼 콩치들의 움직임에 피를 공급했다. 난 천천히 그 속을 뚫고 들어갔다. 힘을 잃어버린 피부에 수없이 많은 생채기가 났다. 몇 번씩 몸이 위 아래로 뒤집히고 온몸으로 단단한 우박이 뚫고 지나가듯 많은 충격들이 텅 빈 몸을 흔들었다. 피부가 벗겨진 손가락의 뼈가 하얗다. 푹, 오른손 검지의 끝마디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깨끗하게 벗겨진 뼈는 하얀 진주 같다. 뼈는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발견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기름진 땅 어느 곳에 떨어져 나름의 이유를 품고 존재하게 될 것이다. 나도 그리되었으면 싶다. 침전하는 하얀 뼈를 따라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싶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땅에 의식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문득, 바다의 노래를 따라 우주로 걸어갔던 중국인이 생각한다. 그는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땅의 주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은 날날이 벗겨지고 떨어져나갔을 것이다. 이제 그의 몸은 깨끗한 보석처럼 반짝거릴지도 모른다. 물이 점점 차가워진다. 내 곁을 맴돌던 물고기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간다.

11.

신원미상. 아랍계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 해당되는 실종신고 없음.

방수포에 덮여있던 남자의 시신은 뒤늦게 도착한 함정에 옮겨진다. 함장은 별도의 실종신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상부에 특이사항을 보고하지 않는다. 함장은 피정에 타고 있던 해경들을 격려하고 휴가를 명령한다. 어부에게는 간단한 보안교육을 하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어부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린다. 함정의 해경들이 방수포에 덮인 남자의 시신을 들것으로 옮긴다. 남자는 행려병자로 분류되고 화장터로 옮겨진다. 입고 있던 옷과 몇 개의 소지품들과 함께 남자는 소각된다. 별도의 절차나 의식은 생략된다. 푸른 하늘에 검은 연기가 날린다. 남자의 몸은 가볍고 고운 가루로 변한다. 남자는 장묘사업소로 옮겨져 땅 속에 매립된다. B가 화장 후 남은 재의 일부를 비닐봉지에 몰래 담았다. 그 모습을 C가 본다. C는 무엇인가를 말하려다 말고 모자를 눌러쓰고 조타실로 들어간다. B는 방과제에 앉아 한참동안 바다를 바라보다 비닐봉지를 연다. 불어오는 바람에 재가 날린다. 한줌도 안 되는 먼지 같은 남자의 유골이 바다에 닿자마자 사라진다. 갑판에 앉아 줄을 정리하던 A는 남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사진을 생각한다. 자꾸만 소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무표정하고 심상하던 얼굴. A는 들고 있던 줄을 꼭 묶고 하늘을 바라본다. 하얀 진눈깨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다.

12.

오랫동안 부르지 못했던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 하비바 — 새처럼 가벼운 소리가 하늘을 난다. 당신의 이름은 하늘에 스미며, 비처럼 대지를 적신다.

혹시 아직도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짓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가나, 라

고 지으면 어떨까, 대답할 수 없는 당신의 얼굴이 보고 싶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멀리했던 그 시절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혹 내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지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시타르를 잘 켜줬다면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을지, 마땅히 나누고 들었어야 할 당신의 이야기가, 나는 국경을 넘고, 배를 타고, 지금에서야 비로소 궁금해졌다. 고향을 떠나오던 날, 당신의 품에 안겨 울던 아이의 소리를 기억한다. 부끄럽지만 아이의 얼굴과 태어난 날을 잊어버렸다. 그것이 지금, 내가 절망스러운 이유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만큼은 잊지 않았다. 그 소리를 어찌 잊겠는가, 바다의 노래가 삶을 희롱하며 죽음으로 이끌 때마다, 까닭 없이 무력해진 마음속으로 빠져들어 차라리 죽고 싶어질 때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어깨를 붙들었다. 어쩌면 아이의 울음소리는 노래였는지도 모른다. 노래하지 못하는 당신을 대신해 그 아이가 튼튼한 목청으로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나,’ 노래라는 뜻이다. 아이는 노래할 것이다. 그 노래가 당신의 성대를 대신해 떨릴 것이고, 당신의 침묵을 대신해 말하게 될 것이다.

하비바, 나는 당신이 좋아했던 노래가 되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 나는 바람보다 가벼워졌다. 나는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는다. 국경을 넘어 마을로 향한다. 가나가 만지고 있을 초원의 풀 위로, 새떼가 뒤덮는 하늘 위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당신의 머리 위로, 그리고 당신의 말라버린 성대 속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좋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4.4. 「떠떠떠, 떠」

모음이 사라지길 원해. 혀끝이 입술에 부딪치지 않고 발음되는 단

어들, 입천장에 혀가 닿지 않고 태어나는 부드러운 언어들, 입술 사이에
암초처럼 걸려 빠져나오지 않는 커다랗고 단단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사전과 인간의 기억에서 모조리 지워졌으면 좋겠어. 아라비아, 암모니
아, 에너지, 에스컬레이터, 맘모스, 엘리베이터, 안나 카레리나, 엘로, 에
어플레인, 윌리엄, 헬로, 27, 예스터데이, 파인애플, 테이블, 탁구..... 이
런 단어들이 삭제된다면, 아니 그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나는..... 좀 더 좋아졌을까? 하지만 알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겠지. 상처를 주면 두 배로 증식하는 플라나리아처럼 점점 많아질 뿐
이야. 나는 지쳤어. 더 이상 그것들에게 봄벼 거품처럼 버글대며 희미해
지고 싶지는 않아.

차라리, 병어리가 되겠어.

*

얼굴을 벗는다. 바닥에 떨어뜨린다. 사자의 머리가 바닥에 튕군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고 피부는 붉고 뜨겁다. 마주 보는 거울의 표면이
열기로 뿌옇게 흐려진다. 사자의 몸에서는 빨지 않은 섬유에서 땀은 오
래된 땀 냄새가 난다. 아무리 맡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 라커룸 문
을 열고 고여 있는 내부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고개를 돌려 흑- 뺨어낸
다.

저기, 사자씨.

낮선 목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빼며 고개만 살짝
돌려 뒤를 확인한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등 뒤에는 제 머리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 판다가 서있다. 나는 못 들은 척 다시 라커룸으로 얼굴을 돌린다. 판다의 기분이 상하길, 그것이 호의든 적의든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든 나에게 대한 관심이 사라지길 원한다. 그러나 룸 미러에 반사된 판다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다. 기다리겠다는 듯 들고 있던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무연한 눈빛으로 내 등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거울을 손으로 닦고 판다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본다. 땀에 젖은 긴 머리가 동그란 이마에 달라붙어 있고 얼굴은 나처럼 붉은, 여자다. 꼭 다문 얇은 입술 끝은 살짝 올라가 있다. 미묘하게 장난스러워 보이는 그녀의 기다림이 당혹스럽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지기 시작한다. 툭,툭,툭, 경동맥 뛰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급히 가방을 뒤져 사원증을 꺼내 판다에게 내민다. 판다는 손바닥위에 놓인 사진과 이름을 물끄러미 내려다본 후 고개를 들고 말한다.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셔야지요.

나는 미간을 잔뜩 좁히고 입을 꼭 다문다.

말..... 못하세요?

턱을 밑으로 당기고 판다의 눈에 눈을 맞춘다. 나는 오른손을 들어 입을 가리고 거칠게 고개를 끄덕이며 기분이 상했음을 어필한다. 판다는 입술을 살짝 벌려 픽 웃으며 입을 떼는다.

거짓말.

판다가 얼굴을 곳곳이 들고 내 눈을 쏘아본다. 거울로 제 눈을 가만히 응시하는 것 같은 집요하고도 흔들림 없는 눈동자, 구멍처럼 새까맣다. 혀가 뒤로 말리고 숨이 가빠진다. 신발 속으로 침투한 빗물에 발끝

이 젖는 것처럼 기분이 확 더러워진다. 나는 판다의 눈길을 피해 바닥에 떨어진 사자의 머리를 집어 든다. 라커룸 문을 소리 나게 닫고,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판다를 옆으로 밀치고는 화장실 쪽으로 향한다. 커다란 몸피의 판다는 맥없이 옆으로 쓰러진다. 쓰러지는 그때였다. 불현듯 하얗게 표백된 어떤 이미지 하나가 강한 압력으로 내부를 밀어내며 떠올랐다. 뭉쳐진 허파짜리가 연쇄적으로 타다닥 터진 것처럼 숨이 탁 막혔다. 걸음을 멈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판다를 쳐다본다. 바닥에 주저앉아 이편을 바라보는 판다의 눈이 붉어지고 있다.

*

다시 열한 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책상위에 책을 내려놓고 오른 손에 연필을 움켜쥐겠어. 공들여 깎은 연필의 뾰족한 검은 끝을 선생의 왼쪽 목덜미에 정확하게 겨냥할 거야. 선생은 그때처럼 교탁에 가슴을 대고 통통하게 살진 손가락에 냄새나는 침을 묻히며 무료하게 여성잡지를 넘기고 있겠지.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선생에게 은밀히 다가가. 선생의 주름진 목 밑에 숨은 경동맥은 평화롭고 규칙적으로 천천히 뛰고 있겠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춰,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에 힘을 주겠어.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선생의 목에 연필을 찔러 넣을 거야. 도살되는 돼지처럼 꾸익꾸익 소리를 지르는 선생의 사지가 벼동대며 흔들리겠지. 나는 연필을 똑바로 잡고 손바닥으로 꺾꺾 눌러. 목 밑으로 점점 짧아지는 연필을 보며 선생의 표정을 확인하지. 값나가는 돼지의 머리처럼 미소 지어서는 곤란해. 연필을 연필깎이의 핸들처럼 빙글빙글 돌리며 선생의 숨이 고통스럽게 멎는 소리

를 들을 거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용하며 소리 없이 웃어주겠어. 선생의 목에서 흐른 피가 녹아내린 딸기 맛 아이스크림처럼 흰 블라우스를 적시고 교탁 위에 동그랗게 고이면 선생의 눈앞에 교과서를 짝 펼치며 이렇게 말할 거야.

천천히 읽어봐. 한 문장씩. 또박. 또박. 또박.

달력에서 모든 27일을 도려냈다. 27이라는 검은 숫자를 빨간 펜으로 빈틈없이 덧칠했다. 뭐든 좋으니 27일에 특별한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밤마다 두 손을 움켜쥐고 기도했다. 홍수도 나지 않았고, 전염병도 돌지 않았으며, 전쟁도 나지 않았고, 대통령도 죽지 않았다. 내 기도와 상관없이 27일은 수요일로 혹은 월요일로 아무 문제없이 멀쩡히 도래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은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자궁에 정자가 달라붙지 않아 평생을 수치심과 자격지심에 시달려야 했던 불행한 여인일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조금 정신이 날카로운 환자였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파 상관없이 아직도 그녀가 어딘가에서 멀쩡히 숨 쉬며 건강하게 늙어가고 있을 생각만 하면 몸에 열이 오르고 어금니가 짝 조여진다. 열 한 살을 27일, 단 하루만 남기고 까맣게 만들어버린 그 선생을 용서할 수 없다.

선생은 교탁에 앉아 무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27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은 물끄러미 나를 봤다. 하얗게 질린 얼굴과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작은 몸을 아주 느리고 집요한 눈빛으로 차

근차근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읽어.

난, 읽을 수 없다. 읽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읽지 못한다는 것을 선생도 알았으며, 새까만 악마 같은 다른 열 한 살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선생은 매월 27일만 되면 내게 책읽기를 시켰다. 심지어 7일이나 17일에도 나를 불렀다. 어떤 날은 아무 연관도 없는 3일이나 6일 같은 날도 27번을 불렀다.

나는 입술을 달짝 거리며 그냥 서 있었다. 선생은 종종 천천히 읽어 봐, 또박또박, 어서, 라는 말을 무책임하게 던지며 교탁에 놓인 잡지를 뒤적거렸고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했다. 친구들 중 몇몇은 킁킁 거리며 웃었고 몇몇은 병신, 더듬이, 장애인 같은 말로 나를 조롱했다. 뒤에서는 작게 잘라 침을 문혀 동그랗게 뭉친 종잇조각이나 지우개가 날아와 뒤통수를 때렸다. 선생은 그런 모습들을 따분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교탁을 몇 번 손가락으로 탁탁 때릴 뿐 그들의 모든 행동을 방치했다. 가끔은 나를 내버려두고 화장실이나 교무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때로는 주먹으로 교탁을 내리치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선생님 말이 안 들리니? 읽어. 빨리 읽으란 말이야!

어쩔 수없이 나는 입을 뗐다.

떠,떠,떠,떠,떠,떠,어.....뜨,뜨,.....

읽으려했다. 어떻게든 읽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읽어지지 않았다. 울어도, 고개를 숙여도, 비참하게 떠,떠,떠,떠, 더듬어도 선생은 주름진 눈꺼풀조차 까딱하지 않았다. 기어이 내게 책을 읽히는 것이 자신의 위대한 교육적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생의 태도는 완고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감각하지 못했다. 극지방의 시간이 얼음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한 층위에 영원히 머무는 것처럼 결빙된 일 초 일 초가 뜨거운 핏속을 유빙처럼 느리게 떠다녔다. 더 이상 나는 친구들의 흥미조차 되지 못했다. 웃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담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담임은 교탁에 머리를 박고 뭔가를 했고 친구들은 지겨운 시간을 견디기 위해 칼로 책상에 자국을 내거나 교과서 여백마다 낙서를 했다. 오직 나만이 떨리는 입술과 몸으로 기립을 유지하며 부유하는 글자들을 입술로 짓이키며 울고 있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마침내 성공한 나의 책읽기가 아니었다.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아이가 책상을 쓰러트리려고 교실 바닥에 쓰러졌다. 쓰러져 있는 여자아이는 사람이라기보다 기묘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모종의 사물 같았다. 껍질이 으깨진 곤충이 마지막 남은 신경을 이용해 떨고 있는 것처럼, 여자아이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포즈로 온 몸을 꼬고 끔찍한 소리를 질러댔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이 관절 하나하나에 묶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끌고 있는 것처럼 여자아이는 사지를 뒤틀었다. 무엇인가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아이의 작은 손가락은 허공의 어떤 부분을 강하게 쥐어짜고 있었고 무릎과 팔의 관절은 굽혀지지 않는 반대편을 향해 맹렬하게 뻗어나고 있었다. 한 손으로도 쥘 수 있을 것 같은 얇은 목에서 튀어나온 푸른 정맥은 포유류의 발밑에 깔려 몸을 뒤트는 새끼 뱀처럼 쉴 새 없이 꿈틀거렸다. 여자아이의 보라색 입술에서는 하얀 거품이 일었고 뒤집힌 눈동자는 완전한 흰색이었다. 놀란 열 한 살들은 소리를 지르며 각자의 엄마를 부르며 울었고 선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옆 반에 있는 남 교사를 불렀다. 나는 지금도 명징하게 기억한

다. 교실바닥에 누워 몸을 뒤틀고 있는 여자아이의 붉은색 치마 사이로 보이던 눈부시게 하얗던 팬티. 그 흰색이 조금씩 젖으며 노랗게 변색되는 모습을. 여자아이는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온종일 여자아이의 빈 의자를 쳐다봤다. 부재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복원시켰고 복원된 이미지는 제법 진짜처럼 교실을 걸어 다니며 내 정신의 한 면을 압박했다. 기다림은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이상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시간을 온전히 사용했다. 시계의 초침이 분침처럼 분침이 시침처럼 더디게 움직였다. 여자아이는 일주일 뒤에 등교했다. 선생은 여자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했다. 여자아이는 공식적인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 나갔다. 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자아이를 따라갔다. 여자아이는 학교 현관을 나가기 직전 잠시 멈춰 뒤돌아 나를 쳐다봤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흘릴 것 같은 여자아이의 눈동자. 물속에 섞여가는 붉은 잉크가 춤추며 허물어지듯, 그것은 빨간 색이었다.

*

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어. 애는 언제나 웃고 있거든.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인상을 쓰지 않아. 완벽한 포커페이스. 그게 마음에 들어.

그녀는 판다의 머리를 쓰다듬다 주먹을 쥐고 가볍게 머리를 툭 때린다. 판다의 여전하다. 영원히 웃다 끝내 소각될 얼굴.

너는 전보다 얼굴이 많이..... 딱딱해졌구나.

그녀는 다시 판다의 얼굴을 뒤집어쓰며 말했다.

나가자. 일하러 가야지.

나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어. 말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하지만 말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주는 곳은 없지. 나는 오랫동안 장애(障礙)라는 단어에 대해 고민해왔어. 무엇인가 가로막고 혹은 걸립되어 불안하게 절룩거리는 단어. 늘 내 자신에게 묻곤 했지. 나는 장애가 있나? 단어가 입술사이를 가로막아 산산조각난 언어. 끝없이 누수 되는 호흡, 치아 사이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말들. 나는 분명 장애가 있지. 타인들의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장애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확인만 가능할 뿐이지. 잘려져 나가거나 뿔뿔히 떨어져야만 비로소 알아볼 수 있는 불구. 혹은 처음부터 남다른 기형의 조건들. 그들은 오직 확연하게 다른 것만 분간 할 수 있거든. 입속에 숨은 작은 헛바닥이 아무리 떨어져 뒤틀려도 내 혀는 불구가 아니야. 그들은 내 장애를 이해할 수 없어.

동물이 됐다.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자의 탈을 뒤집어쓰고 있으면 아무도 내게 질문하지 않는다. 동물은 인간의 언어가 필요 없다. 대화할 필요도 없다. 그저 용맹스럽게 포효하고 털이 무성하게 난 팔과 다리를 흔들면 된다. 털 자란 아이들은 끊임없이 내게 안기고 싶어 하고 연인들은 나와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은 단연 백수의 왕인 사자다. 판다가 나의 인기를 시기하며 왕좌를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판다처럼 우둔한 동물이 귀여움 하나만으로 사자를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아이들은 사자와 판다의 싸움을 좋아한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사자는 판다에게 시비를 건다. 판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간다. 아이들은 우아- 하는 소리를 내며 사자의 앞발처럼 손가락을 구부려 공중에 붕붕 휘두르며 맹수 흉내를 낸다. 판다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괴성을 지르며 사자에게 덤빈다. 사자와 판다는 자존심을 걸고 치열하게 싸운다. 사자가 이길 때도 있고 판다가 이길 때도 있다. 하지만 주로 판다가 승리한다. 물론 사자가 늘 봐주는 것이다. 어른들은 사자와 판다의 연애를 좋아한다. 판다가 갑자기 달려와 사자를 끌어안는다. 판다는 과감하게 사자의 입에 입을 맞춘다. 사자가 도망가면 판다가 쫓아온다. 판다가 사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사자는 바닥에 등을 대고 쓰러진다. 판다는 사자를 덮친다. 사자는 판다의 옆구리를 간질이고 간혹 판다의 뒤에서 엉덩이를 잡는다. 남자들은 괴성을 지르며 좋아했고 여자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자꾸 사진을 찍었다.

‘말을 더듬는다.’ 는 문장은 잘못된 표현이야. 말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더듬어서 입술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 형체가 없거나 혹은 너무 커. 입속에 넣어 굴리던 얼음이 녹아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뱉어내지지가 않아. 말은 입속에서 제 형체를 잃어버리지. ‘에어플레인’ ‘아라비아’ 같은 말들이 그래.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단어들은 기체처럼 이미 증발된 말이야. 내쉬는 바람소리 외에는 입술사이에서 나올 음성은 하나도 없어. 어떤 말은 몸피가 너무 커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해.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부지런히 놀려도 말은 입안에 딱 끼어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아. ‘탁구’ 나 ‘파충류’ 같은 말처럼 입술이 강하게 파열되어야 가능한 말들이 그렇지. 이런 말들은 철창 밖으로

내민 새끼 원숭이의 얇은 팔다리처럼 타,타,타, 파,파,파, 일부만 겨우 내밀 수 있을 뿐이야. 죽음에 대한 의견은 모두 살아있던 자들의 상상이지.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모든 논의는 허구이지. 말을 더듬는다는 것도 말을 더듬지 않는 이들의 추측이고 상상의 문장일 뿐이야.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성격이 급한 것도, 말이 꼬여서도 아니야. 자신감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어휘력이 떨어져 단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 내게 말은 붕괴된 조직이고 소멸된 유적이며 퇴화된 신경과도 같아. 혀끝에 달라붙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말은 이끼와도 같고 증발하고 흔적만 남은 얼룩과도 같지. 나는 이것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어. 초성을 길게 발음해보기도 하고 비교적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 도치시켜 보기도 했지. 방구석에 혼자 앉아 되지 않은 발음을 수도 없이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이렇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말이 왜 입술 밖으로는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 걸까.

그런데, 내 맘이 너에게 들릴까?

열여섯 살. 이것이 마지막이라 여기고 육교에 섰다. 하드보드지에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꼭 고치고 싶습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는 글귀를 적어 목에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연민에 찬 눈빛도 있었고 서툰 배우들의 길거리 연극을 보듯 무신경한 표정도 있었다. 나는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라고 말하려 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아, 숨을 들이쉬고 다시, 아,아, 아. 발을 바닥에 탁,탁,탁 구르며 어떻게 해서라도, 아,아,..... 조금 쉬었

다가 다시 한 번 아,아,아. 한 문장이라도 아니 초성이라도 어떻게든 발음 해보려고 아,아,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다. ‘안녕하십니까?’ 의 ‘안’ 이라는 짧은 초성하나 발음 하지 못하고 나는 육교 한 가운데 정물처럼 서 있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를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가기 시작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푹 던진 그 눈빛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팔과 다리에 박혔다. 수없이 많은 관통상이 남아 너털너털해진 몸과 마음으로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그들의 눈빛은 명확한 동기도 없이 모금을 하는 의심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처럼 싸늘했다. 그때 육교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지나가는 트럭에 깔려 죽거나 두 개의 다리 중 하나라도 잃어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 평생 휠체어에 앉아 커다란 바퀴를 돌리며 사는 것이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육교에서 내려왔다. 누구든 좋으니 커다란 사람의 품에 얼굴을 대고 울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들의 은밀하고 낮은 시선이 어깨와 등 뒤에 얼룩처럼 남았다. 그들이 벌려준 넓은 길을 홀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다짐했다. 이것으로 끝이다. 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말과 언어가 있다면 그것마저 다 버리겠다. 이제 나는 병어리다.

*

우리는 일이 끝나면 작동이 멈춘 놀이기구에 앉아 사람이 빠져나간

한적한 유원지를 감상했다. 때로는 목마위에 앉기도 했고 때로는 범퍼카에 나란히 앉았다. 그녀는 말했고 나는 들었다. 그녀가 벗어놓은 판다의 얼굴을 껴안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내 안쪽의 속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딱딱딱 움직이는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물처럼 얼굴에 닿을 때마다 딱딱한 표정의 단단한 표면이 깎이거나 녹아내렸다. 그녀는 끝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바라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아니야?’ 같은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으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그런가보네’ ‘웃긴다’ 같은 말로 유연하게 대화를 다시 이끌어나갔고 때때로 내 표정과 가벼운 수화를 보고 대화의 화제나 분위기를 바꾸어갔다. 그녀의 말은 놀랍도록 건강한 것이었다. 표정과 어투, 가늘고 긴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물속에서 막 꼬집어내 움켜쥔 생선처럼 탄력적이었고 물기를 털어낸 야채처럼 싱싱했다. 나는 그녀의 말끝마다 웃었다. 웃고 있다 보면 웅덩이에 고여 어지럽게 부유하던 잡다한 것들이 소리 없이 바다에 침전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양손을 마주잡아 깍지를 끼고 낮게 한숨을 내쉬며 원편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왼쪽을 쳐다보면 창문이 있었어. 그리고 열한시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면 네가 앉아 있었지. 창문너머 파랗게 열린 하늘이나 그 하늘을 가로질러가는 비행기의 느린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처럼, 나는 너를 봤어. 앉아 있을 때는 녹슨 흉상처럼 느껴지다가도 서 있을 때는 폭풍 속에 흔들리는 연약한 나무 같았지. 금방이라도 뿌리째 뽑혀 어딘가로 날아갈 것 같은 너를 보고 있으면 난 이상하게도 마음이 저릿해져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꼭 누르곤 했어. 네가 책을 들고 서 있을 때마다 나는

알아볼 수 있었어.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손끝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을. 입 속에 갇혀 부들부들 떨리고 있을 너의 혀를 본 것도 같았지. 아니 온 몸이 한 조각의 혀처럼 보였어. 흠뻑 젖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 그때 너는 내게 어떤 풍경과도 같았어. 그 풍경 속에 뛰어들어 너의 손을 한번이라도 잡아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지.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아마도 그때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던 것 같아.

그녀가 쳐다보는 그곳엔 아이들이 놓쳐버린 분홍색 풍선이 높은 나무가지에 걸려 깃발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나도 그때부터 그녀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고.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녀가 내게서 판다의 머리를 빼앗아 뒤집어썼다. 두 팔을 엇갈아 안고 있던 팔을 푸는 과정에서 그녀의 손톱이 팔목을 긁었다. 나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판다의 판자놀이를 꼭 누르며 떨고 있었다. 판다의 표정은 여전히 명랑하게 앞뒤 양옆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길 수 없는 쾌감이 몸을 통과하고 있거나 완전히 미쳐버린 표정처럼 판다는 고통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불끈 쥐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이상한 떨림이었다. 손가락들이 마치 독립된 개체라도 된 것처럼 짹 주먹 사이사이를 뚫고 풀려나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짧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붉은 원피스의 소녀보다 조금 더 성장한 그녀는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끔찍하고 위태로운 모습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웃고 있는 판다의 명랑한 얼굴 이면에 하얗게 눈을 뒤집으며 어둠을 노려보

고 있을 그녀의 진짜 얼굴. 나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는 그녀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내부에서부터 맹렬한 힘이 내 손을 밀어냈다. 마치 그녀의 몸속에 숨어있던 짐승이 그녀의 내벽에 몸을 부딪치며 날뛰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으으 으 울며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다. 그녀의 발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꺼져가는 불처럼 천천히 사그라들었다. 외부적 자극 없이 저절로 잠에서 깨어나는 늦은 오후처럼 그녀는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녀의 눈꺼풀이 판다의 눈동자 안쪽에서 느리고 어둡게 깜박였다. 그녀는 물끄러미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내밀한 곳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 깊은 시선이었다. 그녀는 낮은 음성으로 아, 하는 소리를 내며 일어났다. 그리고 뒤돌아 탈을 벗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눈가를 만지고 얼굴을 정리했다. 나는 그녀를 등 뒤에서 껴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의 등은 단단한 벽처럼 완고하게 나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잠이 들어. 갑자기 잠이 드는 이게 내 병이야. ‘갑자기’라는 시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지 너는 모르겠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비할 수도 없어. 그 시간은 만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아. 정말, 그저, 갑자기, 잠이 들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잠이란 게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프지 않아. 보는 것과 달리 무섭지도 않고. 아니, 저녁이 오고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어둠속에 누워 서서히 잠드는 정상적인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 이 잠은 완벽하거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세계에 내 방이 있다고 치자. 이 잠은 그 방에 놓여있는 가장 편안한 침대에서 잠자다 깨어나는 것과 같아. 그 세계는 이 세계와 완전히 다른 곳이야. 평소에 꾸는 꿈이란 흐릿하고 불완전하잖아. 심지어 내가 꾸는 꿈인데도 내 마음대로 꿀 수 없지. 꿈은 내 것이 아니야. 늘 쫓기거나 불안해.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내 목에 칼을 겨누기도 하고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위협하기도 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수없이 몸이 부서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끝없이 이별해야 해.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이란 게 결국 늘 결핍되어 있고 조각나 있는 거야. 그래서 늘 두렵지. 그런데 내가 갑자기 잠드는 세계에서 꾸는 꿈은 달라. 난 한 번도 그 꿈에서 울어본 적 없어.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늘 나를 안아줬어. 그 세계는 믿을 수 없이 따뜻하고 너무도 고요해. 홀로 이 잠에서 깬 때면 아쉽고 외로워서 또다시 그 잠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깨어날 때가 문제야. 그럴 때면 잠에서 깨는 것이 반대로 꿈 같아. 가장 더럽고 차가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악몽. 나는 늘 버려진 아이처럼 길 위에 누워있어. 정신이 들 때마다 낯선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가장 끔찍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다는 것. 제사에 쓰일 어린 짐승의 목덜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담소를 나누는 백정들이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을 조롱하며 숨이 멎길 기다리는 악마들 같아. 그때 내가 겪는 감정이란 뭐랄까, 별거벗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 아니 그들이 나를 강제로 별거벗겨 희롱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내 모든 틈과 구멍에 그들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활짝 벌려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나의 내부를 몽땅 들킨 것 같은 기분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것

인지 너는 죽어도 알 수 없을 거야.

그녀는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초식동물의 것처럼 커다랗고 까만 눈동자에 투명한 막이 덮였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눈물로 범벅이 된 내 눈가를 닦아냈다. 그리고 말했다.

부탁이 있어. 앞으로 내가 또 쓰러질지도 몰라. 아니 갑자기 또 그렇게 되겠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하얗게 뒤집힐 거야. 온 몸을 떨며 피물처럼 이상해지겠지. 하지만 절대로 나를 만지지 마. 허둥대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 절대로 울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 가능하다면 잠시 산책을 다녀오는 것도 좋겠어. 그리고 내가 깨어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줘.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슬프거나 놀라지 않도록. 심지어 갑자기 잠들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만약 또다시 네 눈이 지금처럼 눈물로 가득하다면 나는 너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 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잠이 들면 꿈을 꿔고 꿈속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돌맹이가 깔린 길바닥에 누워 몸을 비비며 발작을 했다. 같은 꿈이 끝없이 반복됐고 반복되는 꿈만큼 그녀는 입에 거품을 물었다. 나중에는 내가 잠이 들면 그녀가 고통스러워진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감는 게 두려웠다.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일어나보면 시계의 분침은 제자리거나 아주 조금 전진해 있었다. 어둠이 시간의 모든 틈을 매워버린 것처럼 밤은 좀처럼 흐르지 않았다. 불을 켜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피부에 차갑게 묻는 것 같아 순간 한기를 느꼈다. 책장에서 책을 한 권 꺼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괴로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자를 가만히 내려다 보다 입을 열어 읽기 시작했다. 밤의 표면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처럼 산산조각 났다. 깨진 조각들이 입술을 찢고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이빨을 딱딱 부딪치며 입술을 떨어뜨리고 불규칙한 호흡을 했다. 여전히 읽어지지 않았지만 읽으려 했다. 말을 시작하니 방이 분주해졌다. 분명 혼자 있는 공간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들어와 내 곁에 선다. 어느새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내 방. 그들의 귀가 나방처럼 펄럭거리며 날아다니고 몇몇은 벽에 단단하게 붙어 내 말을 듣는다. 견딜 수 없이 부끄럽고 민망했다. 무릎 꿇은 내 허벅지 위에 채찍을 휘두르며 자해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견뎠다. 더듬거리는 소리가 그녀에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만 남고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밤이었다.

*

우리는 연인이 됐다. 이제껏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본 적이 없다. 하물며 누군가 내게 무엇이 되어 준적도 없었다. 하지만 사랑이라니. 나는 웅크리고 누워 접혀진 무릎을 만지며 자위하던 소년이었다. 가끔 웃었지만 주로 울었다. 별수 없이 침묵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어야 했던 시간들. 그럴 때면 눈을 감아 어둠을 만들어 그 속에 숨었다. 잠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수 없이 많이 했다. 가능하다면 이름 모를 생물이 벗어놓은 허물을 뒤집어쓰고 땅속에 들어가 몇 년 동안 잠

들어 있는 상태가 되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단단한 땅을 파기에 너무 연약했다. 뜨거운 태양아래 누워 눈을 감으면 붉은 어둠이,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푸른 어둠이 나를 둘러쌌지만 나는 어디에도 숨을 수 없었다. 할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앞당겨 죽고 싶었다. 말라죽은 곤충처럼 작은 자극에도 곧 바스라질 것 같던 바로 그 시절에 그녀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한낮의 유원지가 갑자기 저녁처럼 캄캄해지며 큰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유원지에 있던 사람들이 비를 피해 소리를 지르며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시끄럽고 분주한 유원지가 일순간 바다에 침몰해버린 범선처럼 고요해졌다. 오직 빗소리만 공기처럼 사방을 에워쌌다. 우리도 비를 피해야 했다. 판다는 사자의 손을 꼭 잡고 탈의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탈의실은 그리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았다. 뛰면 땀수룩 털 옷이 젖었고 그만큼 몸은 무거워졌다. 물밑에 수풀이 빼곡한 강을 걸어서 건너는 기분이었다. 판다는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쑥 뽑아 집어던졌다. 판다의 얼굴은 활짝 웃으며 바닥에 뒹굴었다. 그녀의 작고 동그란 이마에 빗방울이 부딪쳐 부서졌다. 그녀는 사자의 얼굴도 뽑아 던져버렸다. 우리는 정체불명의 생물로 기묘하게 변태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빗속을 달렸다. 이상한 경험이었다. 그녀가 말했던 이상한 세계가 혹시 이런 곳은 아닐까. 우리는 그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물이 된 것처럼 자유롭게 거침없이 세계의 중심을 향해 뛰었다.

탈의실에 도착하니 쓰러질 것 같았다. 몸은 무겁고 심장은 터질듯 쿵쾅거렸다. 나는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웠다. 몸에서 뿜어나는 후끈한

열기가 안개처럼 주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쩍해보였다. 남자가 왜 이렇게 약해. 그녀는 바닥에 누운 내 옆구리를 발로 툭 차며 머리카락을 털었다. 그녀의 머리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얼굴에 떨어져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얼굴이, 다시 눈을 감았을 때 그녀의 입술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혀가 꼭 다문 내 입술을 천천히 열고 있었다. 나는 다시 눈을 꼭 감으며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혀는 어항 속 물고기처럼 내 안에서 움직였다. 부드럽고 느린 움직임으로 맴돌다가 갑자기 빠르게 수면까지 떠올랐다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그녀의 혀가 내 혀를 만났을 때 내 혀는 뒷걸음질쳤다. 내 혀는 늘 말라있었고 딱딱했으므로 그녀의 혀를 다치게 할지도 몰랐다. 물러서는 내 혀를 그녀의 혀가 재빨리 붙잡았다. 그녀의 혀는 아주 천천히 내 혀를 만졌다. 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혀를 안았다. 오랫동안 혀뿌리에 웅이처럼 박혀있던 단단한 긴장이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내 혀는 물처럼 녹아 그녀의 혀에 흡수되었다.

정말 이상했어..... 뭐랄까, 네 혀는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 감각이..... 아니야. 이것은 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도 아니야. 정말 이상한 그냥, 어떤 느낌이었어.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있던 네 혀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 나는 애타게 너를 부르고 찾아 해맸지. 그런데 그때, 어디에서부터 스며드는지 알 수 없는 따뜻한 물이 차올랐어. 어느새 내 혀는 수면 위에 떠있는 작은 돌고래처럼 헤엄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너는 이 멋진 혀로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었던 거니.

땅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어있던 생명들이 땅위로 기어 나오는 때가 있다. 지금처럼 대지에 비가 내리고 끓는 물처럼 땅이 위 아래로 뒤섞이는 순간이다. 그들이 땅위에 올라와 남은 시간을 모두 사용하며 목숨을 거는 유일한 일은 짝을 만나고 사랑을 하는 일이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 모든 종류의 기억과 흔적이 이제 내겐 덧없고 무의미하구나. 열 한 살의 지독했던 시간도 그녀를 처음으로 만났었다는 기억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말하고 싶었다. 너를 사랑해.

그 후로도 그녀는 일하는 도중 가끔씩 갑자기 잠이 들었다. 판다는 변함없이 웃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갑자기 그녀가 잠이 들 때면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아무리 사자가 무섭고 용맹스러운 행동으로 주위를 끌어도 그 순간 판다가 발산하는 치명적인 매력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았다. 통통하게 살찐 하얀 판다가 갑자기 바닥에 누워 활짝 웃는 얼굴로 뒹구는 모습은 너무 귀여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아있는 판다가 바닥에 등을 비비며 먹이를 달라고 재롱을 부리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갑자기 잠이 들면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사진을 찍었고 바닥에 뒹굴며 재롱을 떠는 판다의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해했다. 어린아이들은 누워있는 판다에 올라타거나 바닥에 누워 판다 흉내를 냈다. 그때마다 사자는 번개처럼 달려가 판다 곁을 지키고 서서 아이들을 내쫓고 으르렁거리며 그들을 방해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간혹 뜨거운 것이 올라와 목이 뻐다. 그녀만 홀로 꿈속에서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면 화도 났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소한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판다에게 쓸

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갑절의 노력을 해야 했다.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 앞구르거나 옆돌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때리고 도망가기도 했다. 자진해서 사람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고 아이들을 번쩍 안아 어깨에 걸고 뛰기도 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백수의 왕인 사자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판다는 천천히 일어났다. 판다는 잠시 우두커니 바닥에 앉아 열심히 일하는 사자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리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탈탈 털고 내게로 달려왔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싸우고 다시 연애했다.

*

나는 그녀와 내가 만들어낸 냄새 속에 누워 그녀의 흰 등을 만진다.

손가락으로 그녀의 왼쪽 어깨에 이끼처럼 붙어있는 굳은살을 만졌다. 생각해보니 그녀는 갑자기 잠드는 순간에는 항상 왼쪽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추고 혀를 댔다. 단단하고 까슬까슬했다. 천천히 핏기 시작했다. 가능하다면 부드러워지길 원했고, 정말 그것이 가능하다면 혀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끌려 없어지길 바랐다. 아니, 그것이 옮길 수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쓸모없고 딱딱한 내 혀로 옮겨오고 싶었다. 그녀의 몸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많았다. 나는 그것들에 일일이 입을 댔다. 간혹 숨을 참았고 자주 침을 삼켰다. 불쑥 울고 싶어졌고

그때마다 킁킁 웃었다. 그녀도 웃으면서 자꾸 몸을 뺐지만 나는 끝까지 따라가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냈고 집요하게 혀를 뱉다. 그녀는 내 머리 카락에 얼굴을 묻고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 현관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 내가 연락도 없이 늦게 출근한 날 있잖아. 그날이야. 그때도 꿈을 꿨어. 낯설고 이상한 곳이었어. 안개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어. 아주 넓은 곳이라는 것을. 이 안개가 걷히면 푸른 초원이나 광활한 사막처럼 하늘과 땅이 나뉘어있는 지평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안개 속에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걸었던 것 같아.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알아? 외로움이었어. 나는 현관 앞에 우두커니 앉아 손등을 이마에 대고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어. 궁금했어.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였을까? 안개에 가려져 있던 풍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했던 것은 외롭다는 감정이 왜 생겼을까? 였어. 하지만 그럴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꿈은 현실의 공기와 맞닿아 급속도로 금이 갔지. 어쩔 수 없이 포기했지만 이상하다는 마음은 며칠 간 사라지지 않았거든. 희미하지만 깨닫게 된 것은 있어. 나는 어디를 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 누구를 찾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더 이상했지. 그런데 말야. 지금 그 꿈이 다시 생각났어. 그때는 안개 때문에 볼 수 없었던 풍경까지 생생하게 보여. 너였어. 나는 너를 찾고 있었던 거였어. 끝내 못 찾고 꿈에서 깨어 그토록 외로웠었나봐. 지금은 외롭지 않아. 그 꿈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완전하고 완벽해. 어서. 들어와.

그녀의 말처럼 그녀의 세계는 완전했다. 균열도 소음도 없었다. 어떤 것도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았다. 그곳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적절했다. 우리는 깊은 바다 밑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땡구는 눈 없는 물고기처럼 서로를 만지고 맛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나간 피부 위에 남은 감각은 조각칼이 지나간 자리처럼 날카롭고 환했다. 우리는 오래 했고 또 자주 했다. 할 때마다 풍경은 다르게 변했으나 공기는 늘 따뜻했고 주변은 고요했다. 그 순간 나는 말하고 싶었다. 그녀처럼 입을 열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기분과 감각에 대해 설명하며 끝나지 않는 길고 긴 말을, 수다를 떨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말할 수 없는 입술과 표현할 수 없는 몸으로 겨ான 무력한 포옹뿐. 그녀는 내 품에 안겨 말없이 숨 쉬며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등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다.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싶은 이 벅찬 감정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다. 첫 글자는 다음 글자에 의해 지워졌다. 손가락을 떼는 순간 글자는 휘발된 알코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등에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들었고 나는 파도 밀 흔들리는 모래에 계속 글자를 썼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며 나지막히 말했다.

직접 말해 줘. 네 말을 듣고 싶어.

나는 그녀의 눈을 뻘히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라커룸에서 처음 봤을 때처럼 단단하고 집요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으니까, 더듬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해.

말하고 싶었다.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의 귀에 대고 또박또박 큰 소

리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도 잘 안다. 더듬거리다 결국 입을 꼭 다물게 될 것이다. 그녀는 울게 될 것이고 나를 연민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받고 싶은 사랑은 연민이 아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입술을 가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손을 뺀 내 턱을 꼭 잡고 앞뒤로 흔들며 말했다.

알았다고? 지금 알았다고 끄덕인 거지?

나는 그녀가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을 것을 알았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몸에 열이 올랐다. 아무 말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목구멍에서부터 굴러온 커다란 돌맹이들이 입안을 가득 채운 기분이었다.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나만 있는 방에 유령처럼 희미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똑같은 가면을 쓴 것처럼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딱딱했다. 더듬기 시작하면 그들은 똑같이 입술을 비틀며 웃거나 저들끼리 속삭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달랐다. 활짝 웃는 표정으로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며 가볍게 윙크를 했고 입술을 앞으로 내밀어 키스하는 흉내를 냈다. 나는 힘없이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더듬기 시작했다. 시간이 늙고 병든 개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몇 번이나 입을 다물었고 몸속을 도는 피가 뜨거워져 얼굴이 터질 것 같았다. 더듬는 소리가 스스로도 민망해서 미칠 것 같았다. 그녀 옆에 서있는 사람들이 끔찍한 표정을 지으며 조소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스부호 같았다. 음성은 끊어졌고 단어는 분절되고 해체됐다. 나의 언어는 조각조각 나뉘어 찢겨져있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 내가 겨우 그녀에게 들려준 말이라곤 떠,떠,떠, 밖에 없었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몸을 비틀었다. 눈을 뒤집으며 입에 거품을 물

었다. 아무 저항 없이 땅으로 추락하는 것들이 갖는 거침없음과 위태로운 속력으로 그녀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뒹굴었다. 벌거벗은 그녀는 부러져 말라버린 나뭇가지 같았고 산도를 통과하다 결국 사산되어 바닥에 떨어진 짐승의 새끼 같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녀 옆에 무릎 꿇고 앉아 그저 아,아,아, 소리를 내며 괴로워했다. 그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게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지금 그녀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그녀가 왼쪽 어깨를 바닥에 비비며 오른쪽으로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금방이라도 뚝뚝 소리를 내며 부러질 것처럼 뒤틀렸고 숨어있는 정맥이 부풀어 올라 그녀의 피부는 뿌리처럼 갈라졌다. 나는 그녀의 왼쪽 어깨 밑에 이불을 접어 집어넣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고작 그런 것뿐이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저 먼 세계에서 그녀는 홀로 싸우고 있다. 나는 그녀의 벗은 몸을 내 옷으로 덮어주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많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단 한 마디도 정확히 발음되지 않겠지만 상관없다. 그녀는 지금 분명 들을 것이다. 나는 말한다. 그녀는 듣는다.

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사,사,사아,아,아아,아아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아아앙,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필자의 창작품 「굿나잇,오블로」 「벽」 「가나」 「떠떠떠」를 중심으로 창작론 연구를 시도했다. 연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 지금의 시대에 여전히 소설을 쓴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창작자의 입장에서 창작의식의 고취였고 또 한 가지는 매스미디어와 영상매체에 잠식된 소설의 위기와 그로 인해 소설의 정신이 무너지고 소설이 인물과 상황의 외부적 이야기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것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을 논했다.

서론에서는 연구목적을 밝혔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소설을 창작하는 창작자와 문예창작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 사이에서 가능한 방식의 창작론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유용한 하나의 의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논문을 써나갔다. 매스미디어와 영상매체가 강력한 영향력으로 모든 문화예술을 지배하는 현 시대에서 소설을 창작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봤다. 또한 그러한 전망이 불러온 위기의식이 도리어 소설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내적인 성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이론서들과 저명한 창작품을 참고하여 소설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해봤다. 결론적으로 소설은 인간의 실존과 내면세계의 비밀을 다루는 것이라는 의견을 주체삼아 필자의 창작품을 예시로 들어 이 시대에 인간의 실존에 대해 연구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또한 총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되

는 외부적 이야기보다 행위와 내면의 틈을 발견하고 행위자가 표현하지 않은(표현하지 못한) 숨어있는 의도와 그것의 진정성을 탐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이를 위해 필자가 창작한 소설을 예시로 들어 <망각된 존재들의 숨어있는 서사>와 <행위와 내면 사이>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와 그 표현>에 대해 논문을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품에 대해 어떠한 논리를 전개하며 연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창작자의 창작론이 과연 학문적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자문이었고 이러한 형식의 사례로 적용된 논문이 많지 않았기에 두려움과 망설임이 끊임없이 오갔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창작품을 쓸 때의 소설의 언어와 그것에 대해 다시 논해야 하는 논리의 언어의 충돌이었고 그 언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인과적인 증명과 과학적인 방식으로 써내려가야 하는 글쓰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창작론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창작자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그동안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창작의 순간과 작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소설을 쓸 때 창작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소설 쓰기의 어려움과 피로움이 아닌 소설을 쓴다는 것이 나와 독자에게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그에 따른 회의감일 것이다. 그것은 결국 창작자 스스로 이겨낼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창작론을 써나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창작자에게 창작법도 중요하지만 창작의식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와 논의가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은 창작자 스스로가 이겨내야 할 정신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문예창작학을 공부하는 창작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다양하고 유의미한 창작론의 생산은 이 시대의 소설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장의 <망각된 존재들의 숨어있는 서사>에서는 「굿나잇,오블로」를 통해 매스미디어와 영상매체가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간들의 소소한 삶과 각각의 고유한 삶의 조건들을 파헤치고 그것을 양분삼아 그 힘을 더해가는 시대적 상황을 진단하고 그 빛에 노출된 인간의 삶이 급작스럽게 드러났다가 무책임하게 망각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 살피었다. 그로 인해 파괴되는 인간성과 가장 기초적이고 안전한 공동체인 가족이 붕괴되는 현실을 조명했다. 또한 「백」을 통해서서는 모종의 권력이 가하는 억압아래 놓여있는 인간과 권력구조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연구했다. 시대와 역사적 상황이 선진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주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비인간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능성이라는 것을 밝히려 했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권력구조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게 만들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빼앗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회의 영향력 아래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사회의 일원으로 혹은 조직의 견고한 유지하게 하는 도구적 존재로서의 동일성이다. 때문에 이 시대에 소설이 열등하고 소통부재의 문학예술형식으로 전락될 수 있으나 같은 이유로 소설이 더욱 더 인간과 세계의 이면에 대해 치열하게 탐구하고 그것을 밝히고 드러내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행위와 내면 사이>에서는 「떠떠떠,떠」를 통해 행위자의 의도가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행위와 그것의 연결로 인하여 생기는 서사를 살펴보고 때로는 그것이 의도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논한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행위와 내면 사이의 틈은 넓고 때로는 행위가 내면의 의도를 배반하기도 하고 행위 자체가 내면을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인간의 내면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행위의 문제를 놓고 많은 학문과 예술은 각자의 역사적 과정과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그것들은 추상의 대지위에 건축한 허구의 건물처럼 개념과 논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삶의 조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황을 설정해서 인간의 행위와 내면세계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총체적인 양식은 소설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과 생각들을 논했다. 「떠떠떠,떠」의 중심인물들의 서사와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조명했다. 그들의 내면속에서는 많은 생각들과 언어가 복잡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발화되고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언어와 행위는 내면의 의도와 반대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에 집중하고 외부로 보여지는 행위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피상성을 비판했다. 나아가 서사의 속도와 이야기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인해 소설이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쓰지 못할 때 맞이하는 소설의 죽음에 대해서도 논했다.

<내면의 목소리와 그 표현>에서는 「가나」의 작의와 창작의 동기를 밝히고 소설 속에서 인물의 내면세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창작자가 받아야 할 형식적인 제약이 없음을 말하고 나아가 창작자들이 소설을 쓰면서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는 소설쓰기의 고민은 소설의 다양성과 풍부한

표현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서두에서 소설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소설은 정의되지 않는 넓은 외연과 방식을 갖고 있고 또 과학과 철학 등 다양한 문화 예술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때문에 창작자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탐색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시도와 탐구가 필요한 것이다. 「가나」의 중심인물이 시체이고 그것은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면이나 정신을 파악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물리의 세계에 억압받는 표현양식이 아니기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

4장에서는 논문에서 다루었던 4편의 창작품을 통해 필자의 작품이 어떻게 표현되고 쓰여졌는가에 대한 결과물로 첨부하였다.

참 고 문 헌

■ 기본자료

정용준, 「굿나잇, 오블로」, 《현대문학》 2009 6월호.

정용준, 「벽」 《문학들》 2009 가을호.

정용준, 「가나」 《현대문학》 2009 12월호.

정용준, 「떠떠떠,떠」 《문학과 사회》 2010 겨울호.

■ 단행본

1) 국내

김주연, 『문학과 정신의 힘』, 문학과지성사, 1990.

김현,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1999.

오생근, 『위기와 희망』, 문학과지성사, 2011.

김형중, 『단 한권의 책』, 문학과지성사, 2008.

김병익, 『21세기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1.

강지희, 『제2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11.

이경재, 『젊은소설 2010』, 문학나무, 2010.

이수형, 『젊은소설 2011』, 문학나무, 2011.

김나영, 『제1회 웹진문지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과지성사, 2011.

송종원, 《문예연구》 2010 봄호, 문예연구사.

차미령, 《현대문학》 2009 6월호, 현대문학.

이수형, 《문학과 사회》 2009 겨울호, 문학과지성사.

강동호, 《문예중앙》 2011 봄호, 문예중앙.

백지은, 《작가세계》 2001 여름호. 작가세계.

2) 국외

밀란쿤데라, 『소설의 기술』, 권오룡 옮김, 민음사, 2008.

밀란쿤데라, 『커튼』, 박성창 옮김, 민음사, 2008.

S.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한용환 옮김, 고려원, 1997.

제랄드 프랭스,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9.

폴 리콥르, 『시간과 이야기2-허구 이야기에서의 형상화』, 김한식 이경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0.

프란츠 슈탄첼, 『소설형식의 기본유형』, 탐구당, 1982.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심설당, 1997.

발터벤야민,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옮김, 민음사, 2005.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조영일 옮김, 비, 2006.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홍대화 옮김, 열린책들, 2009.

조지오웰, 『1984』, 정희성 옮김, 민음사, 2009.

조지오웰, 『동물농장』, 도정일 옮김, 민음사, 2010.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김상석 옮김, 국일미디어, 2003.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김종건 옮김, 생각의나무, 2007.

프란츠 카프카, 『성』, 홍성광 옮김, 웅진씽크빅, 2008.

앨빈 케넌, 『문학의 죽음』, 최인자 옮김, 문학동네, 1999.